

# 海清堂

2539년  
겨을호  
제 8 호



송광사강원



## 하사당의 눈푸른 주인

**삼** 일암의 아래채인 하사당에는 방장스님을 시봉하는 시자가 산다. 하사당은 보물 263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보물집에 산다고 그러는지 삼일암 시자를 ‘하사당 주인’ 이라고들 한다. 그 자리가 총림의 최고 어른을 시봉하는 소임이다보니, 말이 좋아서 주인이지 절머슴보다도 힘든 것이 하사당 주인 노릇일 게다. 오랜만에 이 하사당 주인이 바뀌어서 두달 전부터 미국에서 온 두리안 스님이 살고 있다. 사시공양을 마치고 별좋은 오후에 하사당 마당에 들어서니, 마침 두리안 스님이 과일을 한 아름 안고 상사당에서 내려온다. 대뜸 굴과 자몽 한 개씩을 내밀며 방장스님이 주신 것이니 먹으라고 권한다. 군불을 뜨뜻하게 때 놓은 방에 앉아 작설차를 내는 스님의 모습이 그럴듯해 보여서 한국에 오기 전에도 차를 마셨느냐고 물으니, “오래 됐어요.” 하며 씩 웃는다. “방장스님 시봉하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행자생활에 비하면...” 행자생활이 훨씬 힘들었다는 뜻으로 들려서 어떤 점이 힘들었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 미국문화하고는 너무나 다른 ‘군사적인 분위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애를 먹었다. 죽비 치는 시늉을 하면서 ‘참회, 참회’하며 고개를 내젓길래, 다섯 손가락을 펴보이며 해인사 행자생활에 비하면 다섯 배(?)는 쉬운 게 송광사 행자생활이라고 했더니, 웃음보를 터트린다. 자기도 해인사에서 온 행자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서. 지난해 여름 배낭 하나 메고 ‘출가하고 싶어요’라고 적힌 쪽지를 가지고 송광사에 와서, 오자마자 고추볶음에 고추장을 한 손가락 퍼넣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서 대중스님들을 놀라게 했던 스님의 출가인연이 궁금했다. 뉴욕주립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하며 박성배 교수의 육조단경, 반야심경 강의를 들으면서 선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불교는 자료가 거의 없어서 잘 몰랐었는데 송광사 국제선원에서 구산스님께 5년 동안 참선 지도를 받고 돌아간 R. E. Buswell 교수가 쓴 한국 선에 대한 저서와 구산스님의 NINE MOUNTAINS를 읽으면서 한국불교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요즘 일과는 방장스님을 시봉하는 틈틈이 스님께 육조단경을 배우고, 돈오입도요문론과 신심명(영역본)을 읽고 있단다. 끝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없어요. 그냥 살아요.”



# 海清堂

2539년  
겨울호  
제 8 호

발행처/송광사 강원 · 발행인/지운(강주) · 편집인  
/보적(입승) · 편집장/보원 · 편집/도은,도웅,연각,  
범우,넙혜 · 사진 삽화/도웅 · 발행일/2539년  
(음)12월 30일 · 주소/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0661)755-5300,5302 인쇄/도서출판 보림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62-1 ☎(062)232-6702

## 차 례

조계의 물소리	하사당의 눈푸른 주인	
포토에세이	2/김장	도웅
만행기	4/광제사와 조주고불	대원
지대방 이야기	7/복도 많은 نوم	광인
	8/이거 부처님만 아세요	지안
	13/백팔배 참회	도강
창작우화	10/낙엽이 전하는 말	보적
동문기고	14/수행자의 자기질서	덕조
편지	23/연변에서 온 편지	
	30/연꽃이 피어나듯	도선
	41/신원스님에게	종지
기획연재 6	16/강원은 수행도량이고 학인은 구도하는 수행자다	지운
특별기고	24/태어나야만 했던 붓다	진욱
시	32/가을 산행, 겨울 포행	천호
시봉기	34/노스님을 떠나보내고	각경
소감문	36/해인가족 모임에 다녀와서	연각
법회 현장에서	38/스님은 관객	노휴
소임기	46/해청당 소임을 놓으며	보원
원전번역	48/고산원법사면학	기함
	51/사종의 대의	도은
	54/불일보조국사감로탑개수기	정묵
학인논문	57/규봉종말과 보조국사의 화사상	영경
화보	42/화보와 소식	
	67/편집 후기	
	68/후원 안내	





## 김 장

잘 버무려 독에 담은 김장이  
때되면 저 알아서 맛이 들듯  
겨울 한철 목숨 걸고 용쓰다 보면  
우리 공부도 그렇게 푹 익어질런지

사진·글 : 도웅/치문









## 광제사(廣濟寺)와 조주고불

대원/송광사 교무

지난 여름 중국여행을 하면서 광제사에 들렀다. 광제사는 중국불교도협회가 들어 있는 북경 시내 절이다.

얼마 전 한중일 세 나라의 불교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을 때,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이 방문한 절로 우리로 치면 조계사 짝 되는 곳이다. 절은 불품이 없었지만, 그래도 중국

에서 처음 참배하는 절이라 부처님께 인사라도 드리려고 들어가서 참배하고 있는데, 마침 저녁예불 시간이었다. 아직 4시 밖에 안되었는데 예불을 드린다. 중국 스님 열 분 정도와 신도 대여섯이 전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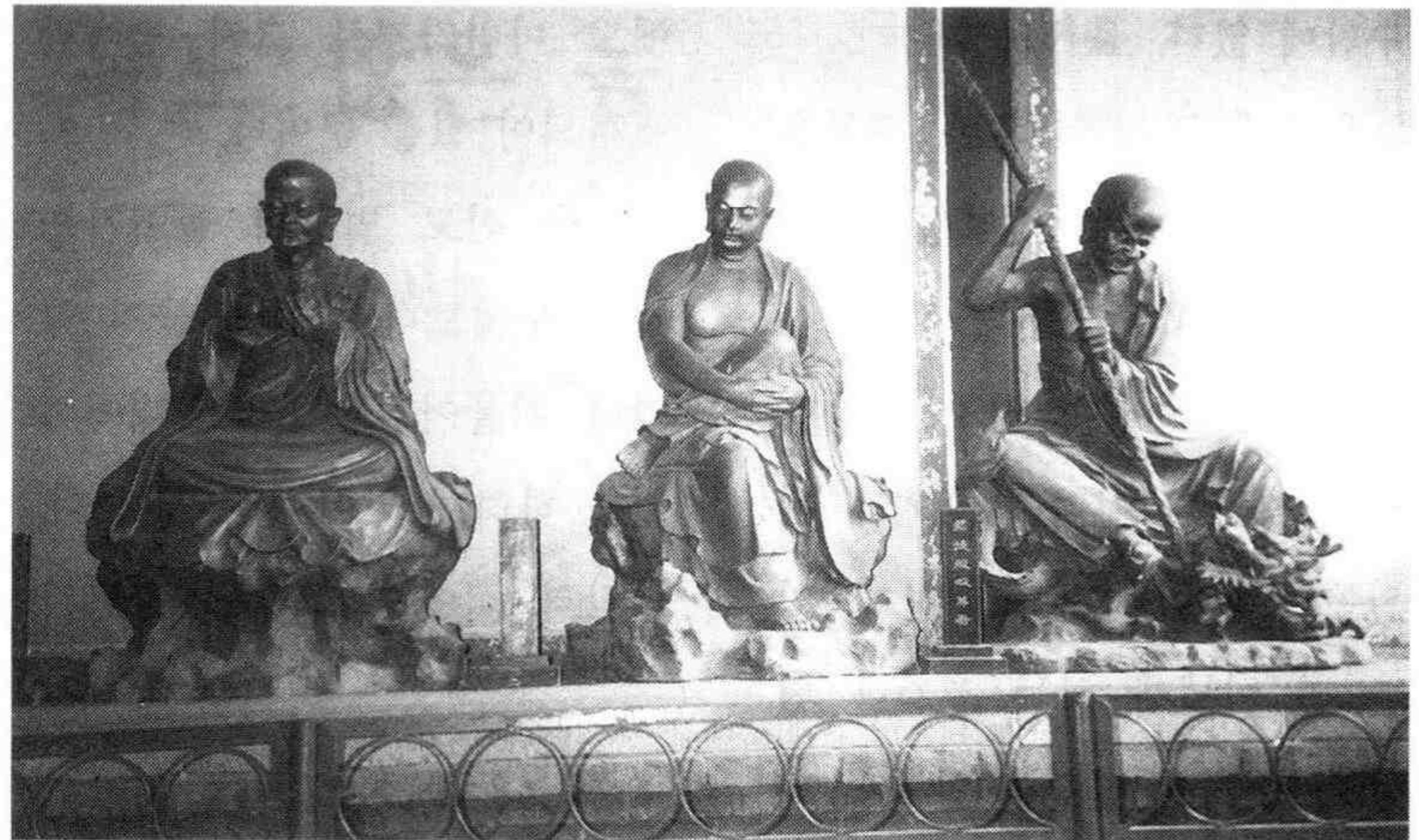
중국 절의 특징은 무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밀교색이 강하다. 교리적인 것은 그만두

고 절 전체의 분위기가 무당집 비슷하다. 시커멓게 그을은 법당에다 천장에 치렁치렁 늘어뜨린 울긋불긋한 천 조각, 불상에도 노란 가사를 입혀 놓았다.

전체가 우중충한 분위기. 중국을 여행하면서 참배하는 절마다 한결같이 우중충한 분위기 때문에 맥이 빠졌다. 같은 중국이라도 대만과는 천양지차다.



위 : 대웅전의 벽면에 모셔져 있는 나한상들  
아래 : 오대산 상징인 백담



한국불교가 선불교라면 중국 불교는 정토종 계통의 불교라고 할 수 있다. 정토종에서 모시는 부처님은 아미타불. 소림사 승려가 한 손만 세운 채 '아미타바' 하는 광경을 중국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아미타바'야말로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염불이다.

LA 하시엔다산 기슭에 대만 절 서래사(西來寺)가 있다. 대만 고웅(高雄)에 있는 불광사의 조실스님인 성운스님이 세운 절인데, 규모도 크지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 미국인들도 즐겨 찾는다.

나는 우연히도 이 두 절을 다 가보았는데 별로 부담이 되지 않았다. 비록 모든 건물은 목조가 아닌 시멘트로 지어 한국 절같이 고색창연한 멋은 없지만, 그것이 오히려 대만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습기가 많은 대만에서 목조건물이 오래 견디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멘트로 지어 건물이 단단하니 신경쓸 일이 없었으며, 그 대신 교육과 사회사업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가는 절마다 집 짓는 불사로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우리의

현실, 20년마다 갈아주어야 하는 기와장, 목조건물은 30년마다 보수를 해야 한다고 들었다. 한번 할 때마다 들어가는 돈은 또 얼마나 엄청난가. 불이라도 나게 되면 말짱 헛일이다. 다른 데 정신을 쏟을 여유가 없는 현실, 그래서 70년 전 만해스님이 쓴 <불교유신론>은 아직도 급진적인 주장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 가장 흔한 건물은 성당이다. 유럽을 여행하면서 그네들의 석조건물을 보며, 유럽인들이 근세 식민지 활동을 하여 자국의 이익을 챙기게 된 원동력이 이런 석조건물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주거에 신경을 안써도 되니 남는 힘을 밖으로 돌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아니면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유럽인들의 성격이 석조건물을 선호했는지도 모른다.

식민지배를 받은 약소국은 대부분 목조건물을 짓고 살았던 나라들이다. 세계 4대 문명은 비옥한 강을 끼고 있는 농경지에서 일어났지만, 다같이 웅장한 석조물을 남겨 놓고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웅전에는 삼존불이 모셔져 있고, 벽 양쪽에는 나한 동상이 아홉 분씩 열여덟 분이 모셔져 있는데, 모두 연기에 그을려 시커먼 모습이다. 우리는 16나한인데 중국은 18나한이다. 중국 절에는 탱화가 없다. 본존불 뒤

에도 마찬가지로 그저 광배만 조각되어 있을 뿐이다.

신을 신고 법당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기울어진 무릎받침대에서 절을 하려니 양이 차지 않는다. 대만의 절에는 그래도 양탄자



를 깔아 놓고, 그 위에 무릎받침대를 올려 두기 때문에 한쪽으로 비켜 한국식으로 오체투지를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벽돌바닥이니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다.

중국에서도 특히 북경의 스

님은 이름만 스님이지 스님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 객스님을 대하는 태도도 엉망이다. 내가 한국에서 온 스님이라고 못하는 중국어로 얘기해도 시큰둥하다. 오히려 못들은 척하며, 문을 닫아야 하니 빨리 나가라고 호통을 친다. 생각 같아서는 한방 쥐어박고 싶었지만 중국이라서 참았다.

내가 배웠던 역대 선사스님들의 모습은 이미 세월의 박제가 되어버린 것 같아 실망이 컸다. 45년의 사회주의 체제가 이렇게 수행자들까지 황폐하게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보나마나 아닐까?

아! 찾아 오는 이마다 '차나 한잔 하시게' 하던 그 조주 고불(趙州古佛)은 어디 있느냐! 행각을 떠나 냇가에서 밥을 지어 먹다가 '공부는 모름지기 단숨에 해 마칠 것이요, 끊었다 이었다 하면 안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그길로 황룡으로 돌아갔다는 몽산(蒙山)은 또 어디 있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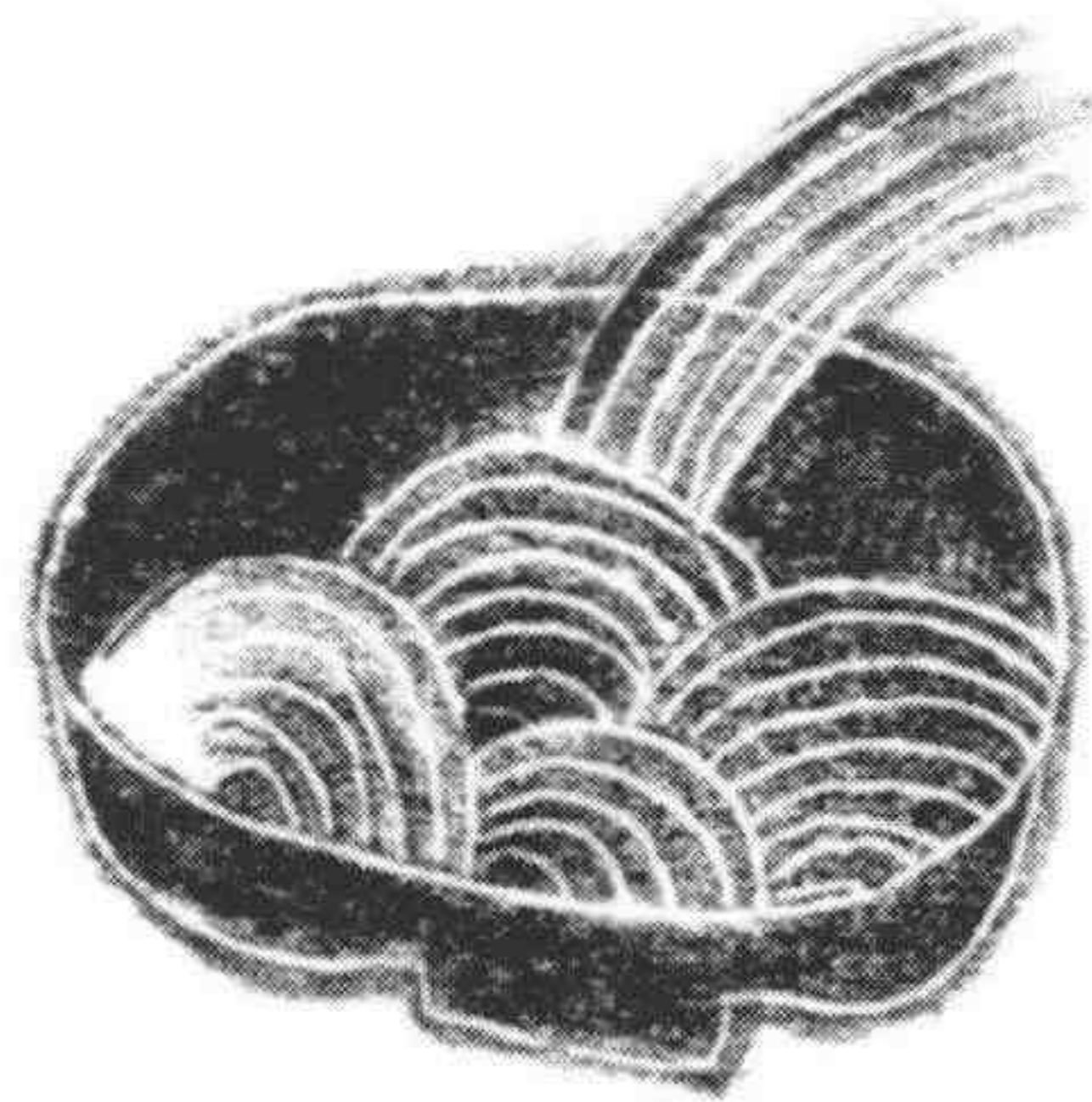
결 제 방학을 맞아  
사형 토굴이 있

는 보현산에 갔다. 오후 늦게야 도착한 나를 사형은 반가이 맞아주면서 정성들여 저녁 공양을 차려주었다. 다음날 저녁 늦게 사형이 내일 축대 보수공사를 하자고 한다. '그래 공짜는 없지, 밥값을 해야지' 생각하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소담스럽게 흰눈이 내리고 있고, 간간이 바람소리만 스쳐지나간다. 그때 사형이 전화 받으면서 "오늘 축대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복도 많은 놈이라 눈이 온다, 눈이... 다 틀렸다." 하는 말이 들려왔다.

눈이 내리고 난 후 날씨가 추워지더니 물이 얼어 나오지 않는다. 받아두었던 물로 공양을 하고, 그릇은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그 다음날도 날씨는 풀리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않았다. 아침 공양을 대충 때우고, 사형은 설겅이하기 귀찮은데 사시공양은 작년에 토굴질 때 신세진 보리암 비구니 절에 가서

## 복도 많은 놈

광인 / 사교



하자고 한다. 점심 공양시간에 맞춰 2Km나 떨어진 보리암에 가니 비구니 스님이 무척 반가워 한다(?). 공양 대접을 잘 받고 차담까지 하고나니, 장작을 패달란다.

'그래. 공짜는 없지' 하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도끼를 잡고 사형한테 배워가며 온 힘을 다해 나무를 팠다. 그러나 못하는 도끼질에 나무는 살아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튀어 달아난다. 거기다가 나무의 결마저 한쪽으로 몰려 있어서 도끼질을 해도 잘 나가지 않는다. 사형은

손도끼를 가지러 간다고 가고, 혼자서 도끼질을 하는데 손바닥에는 온통 물집이 생기고, 어깨는 쭈시고, 온몸에 땀이 비오듯했다. 중은 땀이 흐르도록 일하면 안된다는데 손도끼를 가지러 간 사형은 한참 지났는데 오지 않고, 나무를 거의 다 패고나니 그때야 전기톱만 가지고 여유있게 나타난다. '어휴! 이럴 줄 알았으면 토굴에서 칼국수나 해 먹는건데.' 사형은 내 속마음도 모르고, 나무가 부족하다며 나무를 더 하겠다고 산으로 올라간다. '그래 죽여라, 죽여.' 나무를 다 패주고, 저녁공양까지 얻어먹고 나른한 몸을 이끌고 토굴로 돌아왔다. 그날로 몸살이 나서 황금같은 방학을 토굴에 누워 다 보냈다.

그 산에 송이버섯과 산삼이 난다는데, 요사이 힘도 부치는데 복도 많은 놈 해제하면 산삼이나 캐러갈까? 가만있어라. 해제가 몇일 남았더라...



# 이거 부처님만 아세요

지안/치문

**지**금 해청당 큰방에는 간간이 들리는 한숨 소리, 펜 굴러가는 소리에다 지긋이 눈을 감고 골똘하게 생각에 잠긴 스님들의 진지한 모습으로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다.

‘해청당’에 실을 원고를 모으기 위해 상금(장학금)을 걷고 백일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상금이 스님들이 다달이 받는 월보시보다도 많으니 나도 숨이 막힐 수밖에 ..... 스님네들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원고는 쓰레기통에 던져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긴장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오늘 하고 싶던 얘기를 다해 보련다.

나는 대구 파계사로 출가해서 행자생활을 시작했는데, 절

에 와서 일주일쯤 지나니까 스님께서 머리를 깎아주시면서 “도량 청소나 하면서 잘 지내보시게.” 하셨다. 나는 얼른 빗

“어른 스님들보다 늦지않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죽비 소리에 맞춰 마치 포크레인이 대형트럭에 흙을 퍼담듯이 먹어 치워야 했다. 그 날 공양 때에도 마파람에게는 감추듯... .”

자루를 들고 도량을 찾아나섰지만, 절 구석구석을 돌아봐도 도량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절 마당 축대 밑에 도량 비슷한 곳에 낙엽과 흙모래가 쌓여있

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그것들을 퍼다 버렸다. 한참 뒤에야 스님들은 절을 도량(道場)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 도량과 도랑도 구별 못하는 정말이지 똥 오줌 못가리는 시절이었다.

파계사에서는 누각에서 법당을 향해 사시마지를 올리고, 재를 지낸다. 그날은 재가 있어서 지장보살 정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옆구리를 쿡 찌르는 것이 아닌가! 그 스님이 손가락으로 내 발밑을 가리켜서 얼른 보니, 아이쿠 내 바지가 왜 바닥에 있지? 얼떨결에 흘러내린 바지를 끌어올리고 뒤를 돌아보니, 그날따라 웬 신도들이 그리 꼭 들어찼는지 ...

그렇게 세월은 흘러 행자교육원을 수료하고 송광사강원에



방부를 들여 큰방 생활이 시작됐는데, 군대 이등병 때 그 긴장된 생활은 저리가라 할만큼 힘이 들었다. 그중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공양인데, 어른 스님들보다 늦지 않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죽비 소리에 맞춰 마치 포크레인이 대형트럭에 흙을 퍼담듯이 먹어 치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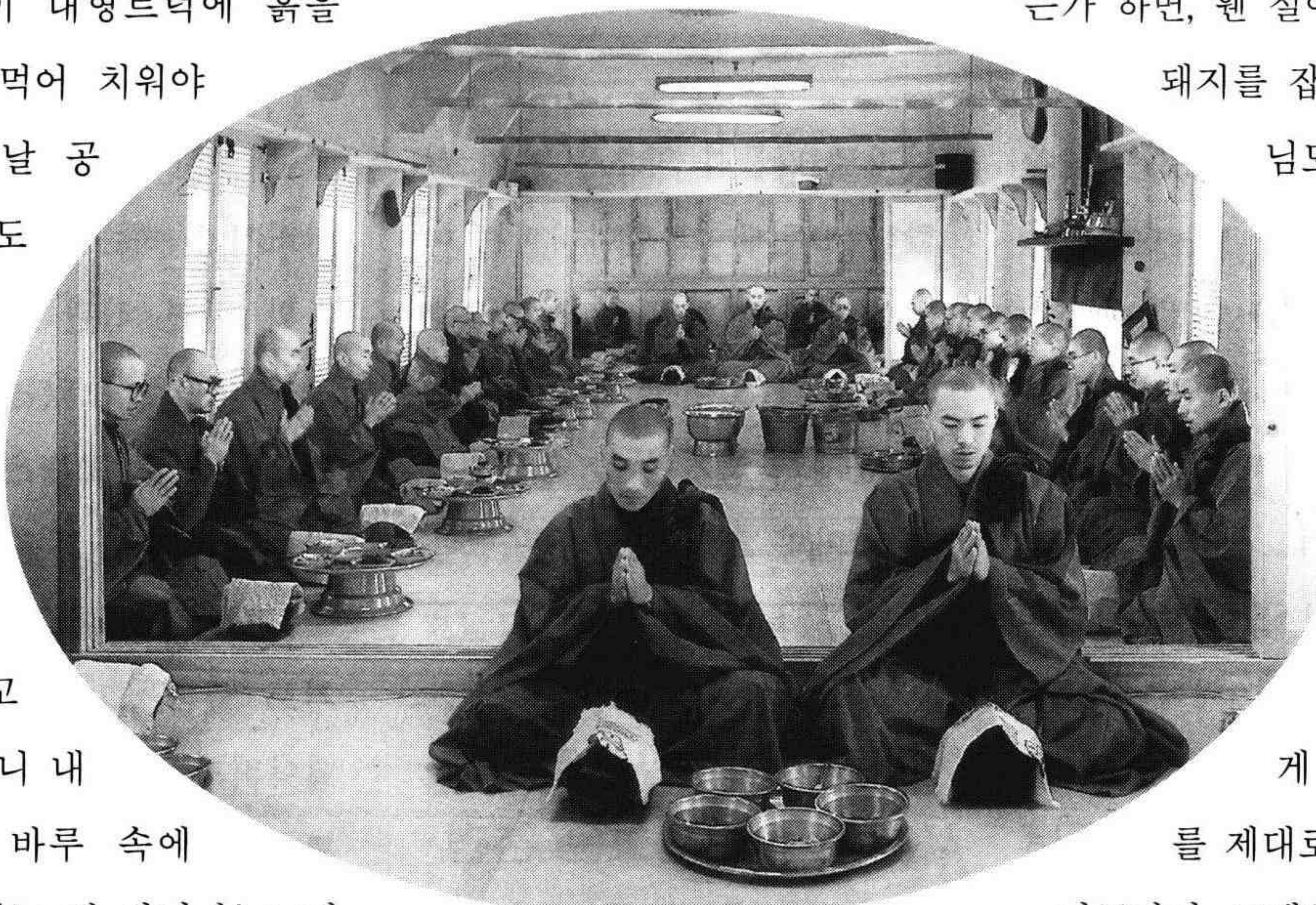
했다. 그 날 공양 때에도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손가락이 입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내 손가락이 바로 속에

또 하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들고 있던 손가락은 대중 스님들이 찬상에서 반찬을 더는데 쓰는 것이었다. 살그머니 돌아보니, 눈치 챈 스님이 없는 것 같아서 살짝 찬상에 도로 내려놓았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 부처님만 아세요.’

드디어 치문반 소임 중에 제일 힘들다는 도량석 차례가 되

었다. 평소에 염불을 잘 못해서 떨리기도 하고, 그날따라 감기 기운이 있어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자명종 소리에 2시 30분에 일어나 큰법당에 불을 켜고, 3시 정각에 목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 목이 꼭 잠겨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밤 사이에 감기가 더 심해져서 목이 부었는지 힘을 주는데도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도량석은 돌아야 하니까 젓먹던 힘까지 써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겨우 마칠 수 있었다.

그런데 새벽예불을 마치고 큰방에 돌아와 가사장삼을 벗

는데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떤 스님은 정량에서 내 도량석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소변이 안 나오더라고 하고, 어떤 스님은 목탁이 하도 느려서 목탁 들고 어디가는 줄 알았다고 하는가 하면, 웬 절에서 새벽부터

돼지를 잡나 했다는 스님도 있었다.

내 도량석 덕분 에 그날 오 후 치문 반 스님 들은 윗 반 스님 에 게 도량석 습 의 를 제대로(?) 받았다.

지금까지 고백한 내용은 사실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었는데, 다 털어놓고 나니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내가 본래 근기가 모자라서 실수를 많이 하긴 하지만,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하나 고쳐가다보면 언젠가는 나도 부처님 같이 마음이 활짝 깰 날이 오지 않을까?



# 낙엽이 전하는 말

보적/사교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쓸쓸한 늦가을 밤, 손톱만한 달이 뼈죽 고개를 내밀 때였다. 나는 우화각에서 춤추듯 흐르며 아이들같이 지즐대는 물소리에 귀기울이고 앉아 있었다. 가끔씩 바람이 불어 나무를 흔들어댔고, 잠에서 깨어난 나뭇잎들이 가볍게 몸을 날려 물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달빛을 받으며 공중에서 맴돌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때 자그마한 나뭇잎 하나가 소리도 없이 내 무릎 위에 내려 앉았다. 그러더니 말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사각거리는 조그맣고 귀여운 목소리로.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소년과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그들도 다른 마을 사람들과 마찬

가지로 나물과 약초를 캐며 살았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할아버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곤 했다.

“진리를 구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할아버지를 찾아뵙고는 존경을 표시하고 가르침을 받아 갔다.”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나면 그들은 활짝 펴진 얼굴로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또 아주 먼 곳에서 진리를 구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할아버지를 찾아뵙고는 존경을 표시하고 가르침을 받아 갔다. 소년은 늘 야위고 볼품없는 할아버지를 찾아

오는 그들이 이상스러웠다. 할아버지가 하는 일이라고는 시간만 나면 판판한 바위 위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으니까.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는 것같기도 했다. 그렇게 앉아 있는 할아버지의 머리 위로 해와 달과 별들이 흘러가면서 소년도 조금씩 성장했다. 하지만 소년은 이곳이 싫었다. 답답하게 느껴지는 산 속도 싫고, 변변치 않은 음식도 싫고, 시간만 나면 우두커니 앉아 있는 할아버지도 싫었다. 할아버지는 마을사람들이나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부드러웠지만, 소년에게는 늘 무뎠었다. 무언가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면 묘한 웃음을 지으며 하시





는 말씀은 “그래, 잘 생각해 보거라”하는 것이 전부였으니까. 어느날 소년은 마을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말로만 듣던 도시 생활이 그리웠고, 그곳에 가면 모든 일들이 잘 될것만 같았다. 별들이 빛을 뿜어내고 바람이 나뭇잎들을 가볍게 어루만지는 밤, 조용히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 뒤로 가서 소년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떠날 거예요. 이런 답답한 곳에서 더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도시로 갈거라구요. 가서 내 이상과 꿈을 마음껏 펼치겠어요.” 소년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할아버지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광활한 우주를 연상시키게 하는 초록빛 별들이 쏟아져 나왔다. 소년은 움찔

했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웃으면서 말했다. “도시로 가겠다고, 그곳에 가서 뭘 하겠다고 거냐?” “그곳에서 내 이상과 꿈을 펼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단다. 모두가 공허할 뿐이지.” 할아버지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말을 계속했다. “내가 너에게 삶의 비밀을 가르쳐 주마. 자, 보아라.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눈물만큼이나 많은 별들이 곧 무너져내릴 듯 밤하늘을 장식하고 있었다. “저 별들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소년은 어이가 없다는 듯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별이요.” “누가 보느냐?” “제가요.” “다시 한번 보거라. 누가 보느냐?” “제가 보고 있지 누가 봐요? 할아버지는 제게

장난을 치시는 건가요.” 소년은 화가 치밀었다. “이게 삶의 비밀인가요? 할아버지는 너무하시군요.”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삶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단다. 모두가 공허할 뿐이지. 할아버지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말을 계속했다.”

비밀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란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만 삶의 비밀이란 단순한 것이야. 그저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지. 저기 보이는 반짝이는 별 안에 온 우주가 들어있는 거란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하나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할아버지는 길게 꼬리를 흔들며 떨어지는 별을 보면서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가거라. 가서 네가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다 해보려므나. 하지만 무엇을 하더라도 이 말만은 기억해라. 모든 행위를 할 때 늘 깨어 있어라. 그리고 별을 보아라.” 할아버지는 말씀은 마치고는 다시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의 주름진 눈에서

별이 떨어졌다. 그 별 속에도 수많은 별들이 무리지어 흘러내렸다.

소년은 도시로 나갔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았고, 많은 재산도 모았다. 높은 지위와 명성도 얻었고, 사랑도 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별이 없었다. 어느날 문득 그는 누에고치처럼 말라 비틀어진, 텅 빈 자기 가슴을 보았고, 아무도 몰래 다시 산 속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는 예전의 해맑은 소년이 아니라 흰머리가 듬성듬성 박힌 초라한 늙은이일 뿐이었다. 그가 옛날에 살던 집은 무성한 풀로 뒤덮여 있었고, 거기서 예전에 그의 할아버지가 자주 앉으시던 바위를 찾아내었다. 그는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을에 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삶의 비밀을 가르치는 현자가 나타났다. 그의 눈에는 늘 별이 반짝인다고.’

## 작은 정성 큰 기쁨!

**당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웃의 도움이 없으면 자립할 수 없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창 응석을 부리고 꿈을 키울 나이에 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생활비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소년소녀 가정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더라도 성의껏 보내주시면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무게를 덜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데 밑거름으로 쓰이게 하겠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3490-0043410-11(예금주 : 소년소녀)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541-930)  
 송광사 강원 내 노휴스님  
 ☎(0661) 755- 5302

주위에 도와야 할 소년소녀가장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사집반  
논강이 끝나자마자  
곧장 약사전으로 가서 백팔  
배 참회를 했다.

백팔배 참회는 치문반 때  
부터 지금까지 줄곧 해 왔  
으니까 거의 이 년이 되어  
가는 셈이다. 강원에 입방해서  
얼마되지 않았는데 무릎이 살  
살 쭈셔오더니 점점 심해져서  
도반스님들에게 물어보니, 속  
가 때 몸이 변하는 중이라 그  
렇다고들 했다. 경상에 앉기도  
힘들어져서 병원에 가 물리치  
료도 받아보고, 한의원에서 침  
을 맞고 약도 지어 먹었지만  
효과가 없어서 내 죄업이 두  
터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참회기도를 하기로 발원했다.

처음엔 사자루에서 시작했  
는데, 무릎이 쭈시고 아파서  
신음소리를 삼키면서 겨우 백  
팔배를 채우고 나면 온몸에  
땀이 배이곤 했다. 그래도 빼  
먹지 않고 밤 9시 삼경종이  
울리면 어김없이 사자루로 가  
서 절을 했더니, 처음엔 무릎  
이 더 나빠지는 것 같더니만  
날이 가면서 차츰차츰 통증이  
주는 것이 느껴졌다. 한겨울밤  
에 텅빈 사자루에서 혼자 절

## 백팔배 참회

도강/사집

을 하다보면 바람소리나 낙엽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오싹 소  
름이 끼치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이 년이 지  
난 지금은 신심이 부족하고  
공부가 더딘 것을 안타까워  
하며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기  
만을 빌뿐이다.

요즘은 날이 아주 꺾거나  
차지 않으면 무릎에 이상이  
느껴지지 않고, 하루 종일 경  
상에 앉아 있어도 힘든 줄 모  
르고 지내고 있다. 이번 동안  
거부터는 절하는 곳을 약사전  
으로 옮기고, 시간도 새벽 논  
강 끝난 후로 바꿨다. 그렇게  
하니까 저녁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공부시간이 그전보다  
한 시간쯤 더 늘었다. 그러면  
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전공  
부가 더 수월해져 재미도 생  
겼고, 가끔 외전도 볼 수 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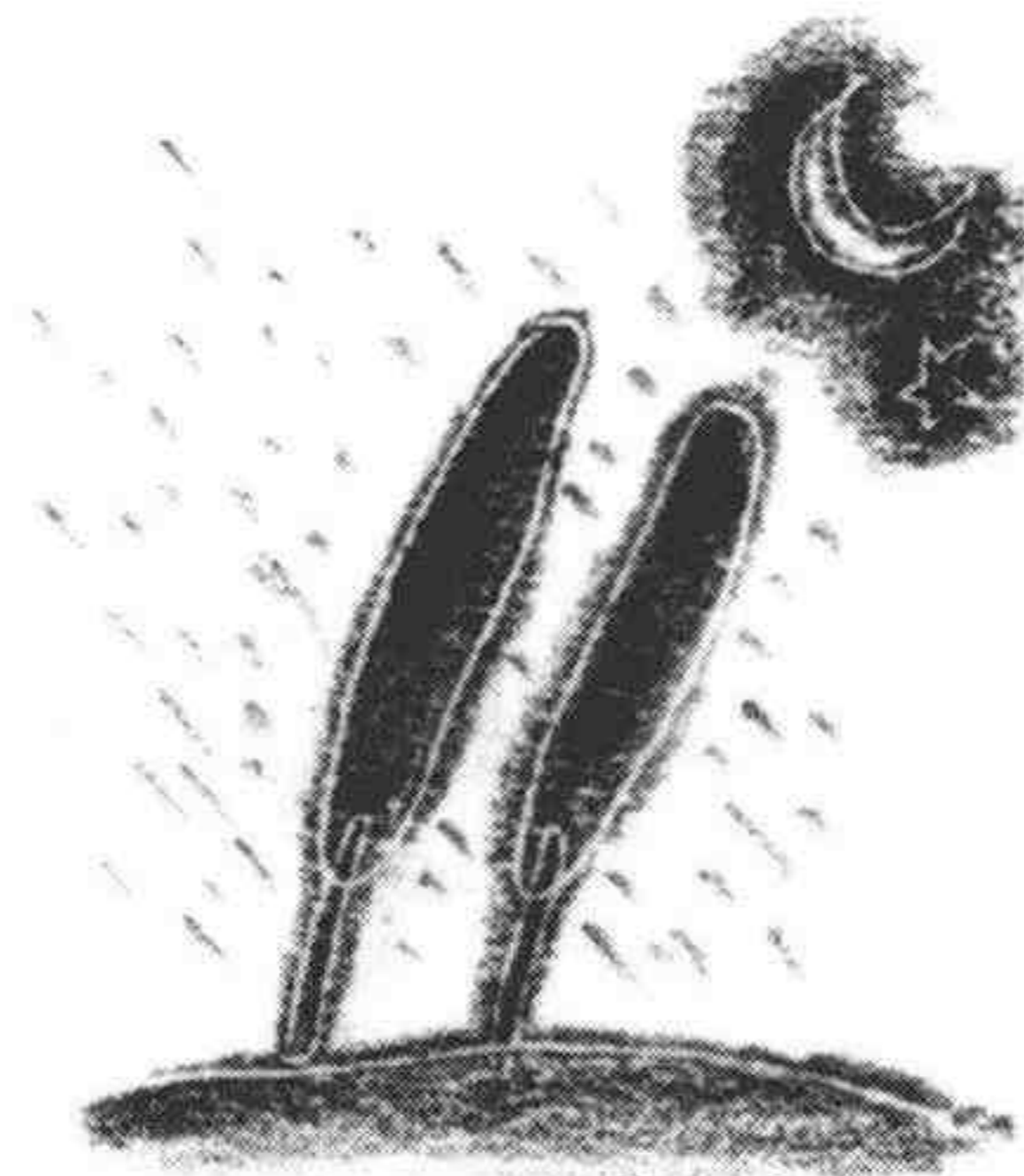
되었다. 그 대신에 저녁에  
절할 때는 몸이 많이 풀려  
있어서 무릎에 무리가 없  
었는데, 새벽에 몸이 굳은  
상태에서 절을 하다보니  
처음엔 무릎에 이상이 오  
는 것같았다. 그래서 절하  
기 전에 먼저 몸을 풀어주고,  
절하고 나서도 몸을 풀었더  
니 지금은 오히려 저녁에 하  
는 것보다 쉽고 하루가 가뿐  
하게 지나가는 느낌이다.

서산스님께서서는 ‘선가귀감’  
에서 ‘허물이 있으면 곧 참회  
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곧  
부끄러워할 줄 알면 대장부의  
기상이 있다 할 것이요, 또한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  
면 그 죄업은 마음을 따라 없  
어질 것이다.’고 하셨고, 성철  
스님 같은 큰스님도 평생 백  
팔배 참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나같은 중생은 말해 무엇하겠  
는가! 부디 지금 이 마음 변치  
않아서 강원 졸업 때까지, 더  
나아가 중노릇을 마칠 때까지  
백팔배 참회를 계속해서 두터  
운 업장이 봄날 얼음장 녹듯  
풀려서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볼 날이 있길 기도 드린다.



# 수행자의 자기 질서

덕조/2회 동문, 선방 수좌



**바**람이 제법 차고 매섭다. 강원도 산골에 비할 것은 못되지만 따뜻한 남쪽지방에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가 가슴을 움츠리게 한다.

결제가 시작되었다. 스산하게 불어오는 차가운 한 줄기 바람결이 벌거벗은 나뭇을 스치며, 마치 번뇌가 화두를 파고 들 듯이 날카롭게 옷깃을 파고든다.

결제철이 되면 불법의 오묘한 인연법에 따라 누더기 하나 걸치고, 갈아입을 옷 두 벌에 바루와 가사 장삼을 챙겨 결망 하나 짊어지면 천하에 부러울 게 없는 운수납자들이 제방에서 몰려든다. 막 비구계

를 받은 막내 스님부터 일흔여덟의 노구를 이끌고 정진하러 오신 선덕스님에 이르기까지 서른네 분이 모여서 수선사가 정진 열기로 가득하다.

이렇게 많은 대중이 모여 살게 되면 선원 청규와 각 사찰의 가풍에 따라 대중 질서와 화합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대중이 잘 모이면 모두가 좋은 도반이요 훌륭한 선지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철 내내 자신의 인내력과 수행력을 시험받게 된다. 은사스님 말씀처럼 출가 수행자는 혼자 있거나, 대중 생활을 하더라도 철저한

자기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결제를 맞으면서 누구나 각오가 있듯이 나 역시 결제 동안 지킬 몇 가지 작은 원을 세웠다.

첫째 미천한 나의 덕행과 수행력으로 대중의 증소임을 말지 말고, 자그마한 범당을 맡아 청소하며 조석으로 참회 발원 108배를 한다. 둘째 휴식 시간에 지대방에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홀로 포행을 한다. 셋째 오후 불식으로 몸과 마음을 맑혀 정진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세월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 했다. 좌복 위에서 일없이(無爲) 일찍 자고, 일없



이 새벽 3시 도량석 목탁 소리에 맞춰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 하늘을 쳐다보면 별빛이 얼마나 맑고 투명한지 모른다. 초롱초롱한 별들이 머리 위로 쏟아지고, 찬 공기는 정신을 번쩍 나게 해서 좋다. 이렇듯 적막한 산사에 별들은 잠들지 아니하고, 새로 차 오른 달빛은 기왓골을 타고 도량을 적신다.

법당에서는 향이 그윽히 피어오르고, 학인스님네의 청아한 예불 독경소리가 정좌하고 있는 나의 가슴을 울리니 잠시 화두를 내려놓고 자신을 살핀다. 우리들의 영혼이 가장 성성하게 깨어 있는 이 시간에 나는 시주밥을 축내지 않고 제대로 중노릇을 하고 있는지 물어 본다. 아울러 조선시대 청매(青梅)스님의 십무익(十無益) 중에 “성품이 공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좌선하여도 이익이 없음이요”라는 구절에 나의 삶을 반조해 본다.

겨울은 날씨가 추워 게으르기 쉽지만 정진하기에는 좋은 계절이다. 선사 스님께서 “출가 수행자들이여, 게으르지 말며

시선을 밖을 향하지 말고 자기 내면을 관조하여 이육시중(二六時中)에 성성하게 깨어 있으라”고 경책하셨듯이, 수행자는 맑고 투명한 정신으로 순간 순간을 살아야 한다.

아울러 대중 속에서 나 자신이 ‘청매조사십무익’의 말씀에 비추어 사는지 돌아켜볼 일이다.

1. 마음을 반조하지 않으면 경을 보아도 이익이 없음이요,
2. 성품이 공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좌선을 해도 이익이 없음이요,
3. 인(因)을 가벼이 여기고 과(果)만 바라면 도를 구해도 이익이 없음이요,
4. 정법을 믿지 않으면 고행해도 이익이 없음이요,
5. 아만을 꺾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음이요,
6. 안으로 실다운 덕이 없으면 위의를 나투어도 이익이 없음이요,
7. 남에게 스승이 될 덕이 부족하면 대중을 거느려도 이익이 없음이요,
8. 마음이 신실(信實)하지 않으면, 말재주가 있어도 이익이 없음이요,

9. 평생 괴각짓을 하면 대중에 있어도 이익이 없음이요,

10. 꼭 막혀 무식하면서 교만을 떨면 이익이 없느니라.

오늘 아침에는 오랜만에 눈이 내려 조계산이 눈 세상이 되었다. 절에서 차가 제격이지만 무심히 평평 쏟아지는 눈을 벗삼아 정신이 번쩍드는 진한 커피를 한잔 마셨다. 향기가 너무 좋아 모든 이웃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을 정도였다.

따스한 차 한잔을 마시며 소리 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으니, 어느새 저녁 종성이 울려 퍼진다. 곧 입선 죽비를 칠 시간이다. 좌복에 앉아야 겠다.

“聞種聲煩惱斷 智慧長菩提生,  
離地獄出三界 願成佛度衆生”

이 종소리를 듣고서 번뇌가 끊어지고 지혜와 보리심이 자라서, 지옥을 여의고 삼계를 뛰어넘어 원컨대 성불하여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여지이다.

파지옥진언

음 가라지야 사바하!

음 가라지야 사바하!

음 가라지야 사바하!



# 講院은 修行道場이고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다.

## (2) 법은 수행체계의 원리이다

지운/강주

### -目 次-

1. 강원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修行道場이다.
2. 佛法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3. 깨침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한가지, 觀照에 있다.
4. 강원에서의 교법공부로 과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가?
  - 1) 教法은 因의 힘을 가지고 있다.
    - (1) 법은 깨침의 법칙이다.
    - ※ (2) 법은 수행체계의 원리이다.
  - 2) ‘공부’라는 말의 意味는?
  - 3) 看經하는 방법
  - 4) 예불, 참회, 정근, 염불 및 모든 습의는 수행이다.
5. 그러므로 講院은 修行道場이며 學人은 求道하는 修行者이다.

### 3

법 자체에 이러한 성격이 없다면 아무리 수행해본들 진리를 깨칠 수 없다. 그렇다면 깨침의 종교라고 하는 불교는 벌써 이 地上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법의 법칙성이라는 것은 깨침의 법칙성이고 수행체계의 원리이다. 이 모두는 곧 因果의 성격을 말한다.

이러한 因果의 수행법칙은 불교의 모든 수행의 법칙이자 수행체계이기도 하다. 이 인과의 수행법칙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인 緣起法으로서 “此有故彼有·此

起故彼起·此無故彼無·此滅故彼滅”이다. 이를 順觀과 逆觀의 관조반야와 상응시켜서 살펴보면 “此有故彼有·此起故彼起”는 流轉緣起門에 해당되고, “此無故彼無·此滅故彼滅”는 還滅緣起門에 해당된다. 물론 이 二門은 깨쳐들어가는 수행의 문이다.

최초의 법문이자 최후의 법문인 四聖諦를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四聖諦는 苦.集.滅.道로서 聖人이 깨달은 네 가지 진리를 말한다. 苦聖諦와 集性諦은 世間の 因果 관계로 苦는 현실의 果이고, 集은 苦의 原因이다. 이는 ‘갈애가 있기 때문에 苦가 있다’는 것으로 “此有故彼有·此起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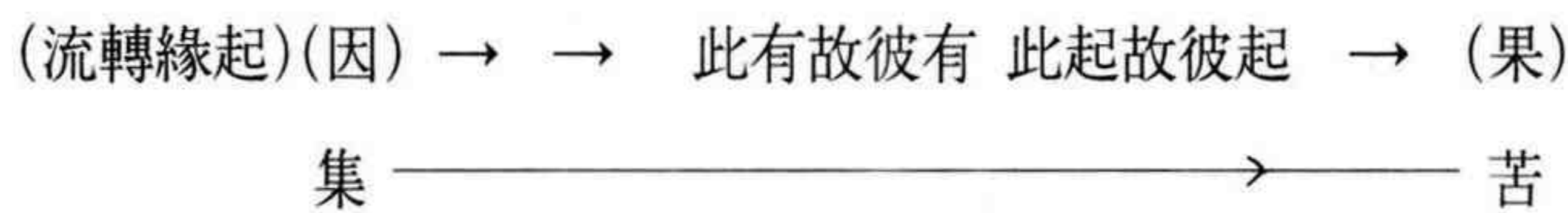
彼起”의 流轉緣起門이고, 道聖諦는 出世間の 因果관계로 滅은 열반으로서 果이고, 道는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수행방법, 즉 八正道로서의 因이다. 이는 ‘팔정도의 수행에 의하여 渴愛가 소멸하여 갈애에 의한 모든 고가 소멸한 열반의 증득이 있다’는 것으로 “此無故彼無·此滅故彼滅”의 還滅緣起門이다. 이와 같이 깨침의 구조도 바로 인과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사성제의 수행因果는 二支緣起가 된다.<sup>1)</sup> 이 구조의 연기법은 十二支緣起의 流轉門과 還滅門의 順觀과 逆觀의 수행구조와 같은 것으로 가장 기본적 수행체계의 원리(법칙)이다. 그런데 십이연기의 順觀과 逆觀은《大毘婆沙論》卷二十三에 의하면, 順觀은 무명으로부터 老死에 이르는 것으로 무명의 因을 말미암아 노사의 果를 향하여 순차적으로 관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逆觀은 노사로부터 무명에 이르는, 즉 노사의 果로부터

<표-1>

《四聖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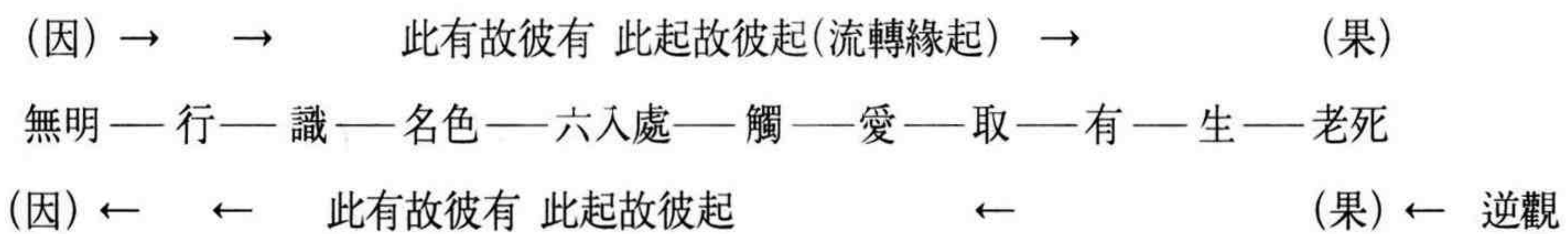
(流轉門)——世間



《十二緣起》

(流轉門)

順觀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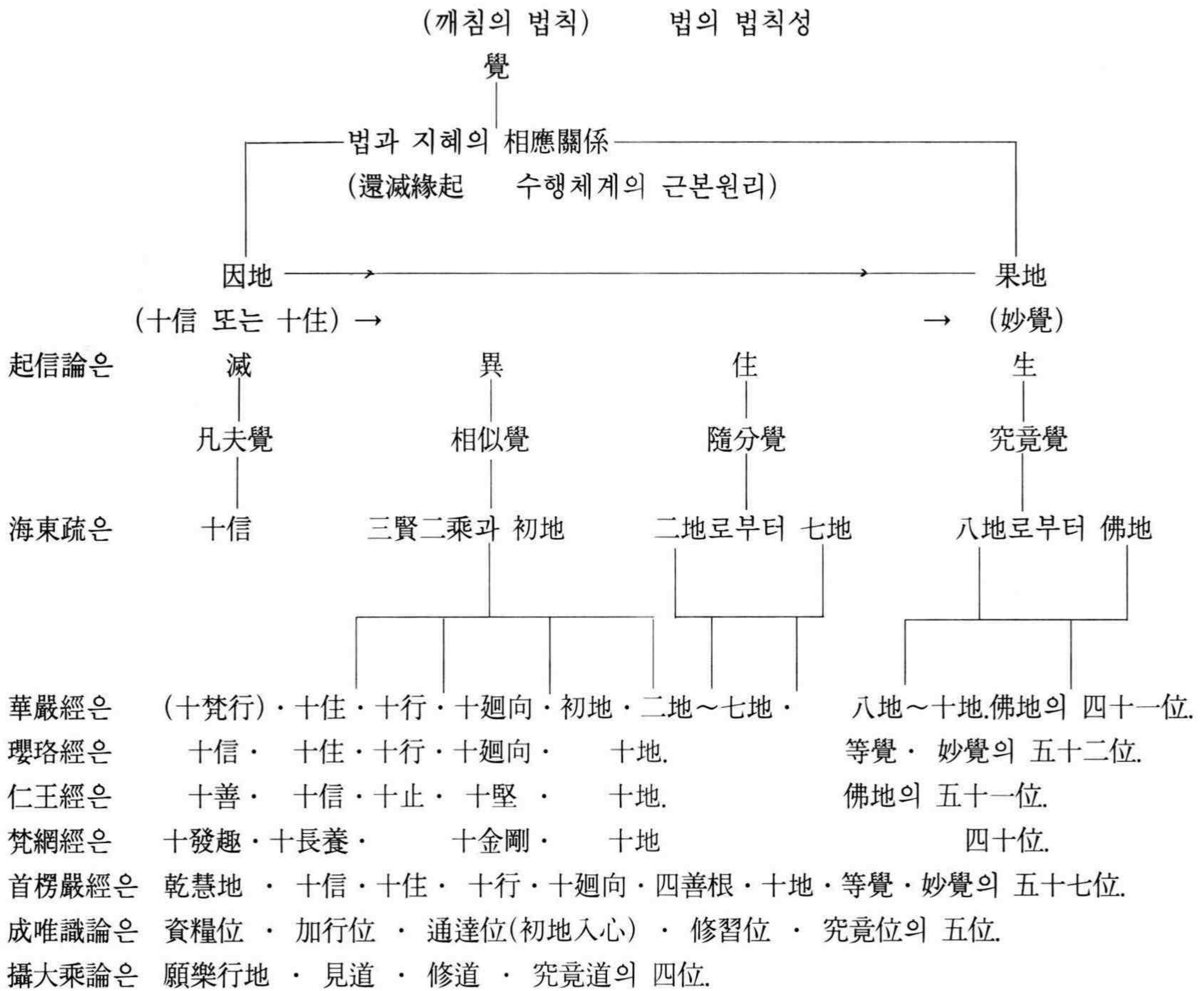








<표-2>



라는 구조적 상대성을 초월해 있는 것과 다르다. 이와같이 漸修와 頓修의 두 가지 수행의 길이 相即相入하는 緣起法의 원리임을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이 수행은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 이 법이 바로 마음이라는 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성제의 苦와 集도

마음이고, 八正道의 수행과 열반의 성취도 마음이라는 사실이다. 십이연기도 마찬가지로 마음이고, 因地와 果地도 그대로 마음이다.

그러므로 《宗鏡錄撮要》에

若心外有法 만약 마음 밖에 법이 있다고 한다면  
 卽成斷常 斷과 常의 두 見解를 이룰 것이요  
 若法外無心 만약 법 밖에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孰言空有 누가 空이니 有니 말하겠는가.<sup>4)</sup>

라고 하여 법과 마음은 不二임을 밝혔다. 말

4) 木版本 p. 34 後面 海印寺 出版部 2532년



하자면 수행하는 마음은 斷常二見을 떠난 법의 법칙성에 따르는 것으로, 수행의 체계는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

因地에서 果地까지 이르는 因果의 성격을 가진 깨침의 법칙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법과 상응하는 반야지혜 자체가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에서는 '法'의 입장에서 법의 성격이 因임을 살펴보았지만, 여기서는 心法不二의 '心'의 입장에서 법이 '因'의 성격을 가졌음을 살펴보자.

因地에서 법과 상응하여 果地로 가는 반야지혜를 始覺智라고 한다. 始覺에서 始의 뜻은 '처음'이라는 말로서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수행도 그 시작이 잘못되면 그 결과도 올바르게 못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시각의 시는 매우 중요하다. 覺은 마치 잠에서 '깨다', 꽃병을 '깨뜨리다'는 의미로 파괴의 작용을 가지고 있다. 즉 꿈같이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잘못을 범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말한다. 마치 탐진치의 강을 건너 生死의 꿈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깨침의 始는 깨침의 출발점으로, 깨쳐가기 앞서 무명번뇌를 깨뜨리는 깨달음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는 깨달음의 본질과 연결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만일 새로운 지식을 알아 기존의 잘못된 지식을 버리는 것으로 깨달음의 기준을 삼는다면, 새로운 사실을 앎으로서 그 기준을 삼는다면 이는 잘못이다.

말하자면 마음을 관조할 때 움직이는 생각의 본질이 실체가 없음을 알면 그 생각의 흐름이

멈쳐지고 결국 소멸하여 버린다. 이때 생각의 본질이 실체가 없음을 곧 無自性空이고, 그렇게 아는 마음이 覺이다. 각과 법은 不二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생각이 소멸함으로 해서, 이러한 무자성공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처음으로 알기 시작한 마음이 각이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나타난 법과 처음으로 안 마음의 不二가 始覺이다. 그러므로 시각의 시는 무자성공이 나타남을 시작으로 삼는다. 그러나 생각이 소멸하는 매순간이 사실 始가 된다.

그런데 왜 생각의 소멸을 강조하는가 하면, 생각의 내용물은 일어나는 생각마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사상, 철학, 경제, 정치, 종교, 생활습관, 예술, 문화 등 온갖 지식을 내용물로 한다. 그러나 이는 곧 형상이기에, 좌선하거나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 있어 보면 처음에는 그럭저럭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이 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면서 산책을 하거나 누구와 대화하거나 하면서 생각이라는 형상에 푹 빠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로써 생각이 하나의 영상임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이 일상에서도 매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영상이 순간순간 밖으로 투사하는 것을 자신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투사된 영상이 도리어 진실의 세계인양 여긴다. 결국 생각을 하는 한 진실의 세계는 왜곡되고, 꿈과 같이 착각 속에서 진실과 허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괴리감에 꿈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의 소멸이 수행이고, 소멸이 나타난 최초의 모습이 法の 性으로서 無常, 空



등이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존재의 본질이 무자 성공임을 알기 시작한 始覺이 수행의 출발점인 因地의 출발시점이고, 시각은 반야지혜이므로 이를 始覺智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각과 법이 상응하는 시초의 모습으로서 이 始覺智가 존재하는 이유는 始覺智 자체에 있다. 즉 각과 법이 상응할 수 있는 것은 각도 법과 같이 성질이 空性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대승기신론》에서 “覺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心體가 妄念을 여인 것을 말함이니, 망념을 여인 相이란 虛空界와 같다”<sup>5)</sup> 라고 설하는 것처럼, 空 가운데는 滅할 것이 없으며 滅하게 하는 者도 없다.<sup>6)</sup> 따라서 어디까지나 각이 일어나는 기준을 無自性空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는 覺의 본질이고 성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海東疏》에서 “空의 뜻이 菩提의 뜻이며, 法性の 뜻이 菩提의 뜻이다”<sup>7)</sup> 라고 했다. 각과 법이 서로 상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각 자체에 법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始覺智가 果地의 佛智에 도달할 수 있는 원천적 힘의 본질이 空이라면 이 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가지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거울에 비유하자면, 첫째, 공 자체는 허공과 같이 비어 있음을 의미한다. 마치 거울의 면이 깨끗하고 비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마음거울의 본질이 空이라는 데서 覺의 의미가 드러난다. 이를 如實空鏡이라고 한다.<sup>8)</sup>

둘째, 비어 있는 깨끗한 거울면이 일체 세간의 경계가 나타나도록 하는 場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그 나타난 경계가 出入하는 실체가 아님을 여실히 비쳐 주고, 또 이 경계에 의하여 비어 있는 淨한 空의 성질이 물들거나 파괴되지 않는 常住一心을 말한다.<sup>9)</sup> 도리어 나타난 형상이 꿈이고 허상임을 비쳐주어서 미망을 깨뜨리는 覺照의 힘이 있음을 말한다.

즉 마음의 본질은 항상 無念이기에 허공과 같이 空하여, 공은 실체로서의 형상이 없으므로

5) 元曉撰《大乘起信論疏記會本》卷二 “覺義者는 謂心體離念 離念相者 等虛空界” 韓國佛教全書 第一冊 1990년 p. 1-748中

6) 上同〈卷三〉“空中無有滅 亦無使滅者 諸法畢竟空 即是涅槃故” p. 1-758下

7) 上同 “何義故爲菩提. 空義, 是菩提義. 如義, 法性義, 實際義, 是菩提義”

8) 上同 “復次覺體相者, 有四種大義, 與虛空等, 猶如淨鏡. 云何爲四. 一者如實空鏡. 遠離一切心境界相. 無法可現. 非覺照義故”

“다음에 覺體相이란 것은 네 가지의 큰 뜻이 있어서 허공과 같으며, 마치 맑은 거울과도 같다. 무엇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如實空鏡이니, 모든 마음의 경계상을 멀리 여의어서 나타낼만한 법(現象)이 없으나 (觀照(始覺智)에 의하여 모든 현상이 소멸한다. 그러나 아직 本覺과 一念으로 상응한 상태가 아니므로) 覺照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p. 1-754中

9) 上同 “既現於鏡, 故言 ‘不出而不染鏡’故曰 ‘不入’. 隨所現像, 同本覺量, 等虛空界, 三世際. 故無念念之失. 亦無滅盡之壞. 故言 ‘不失不壞常住一心’等也.” p.p. 1-754下--755上



不變이고, 본래 寂靜이기에 不動이고 무념이다.<sup>10)</sup>

또 무념이므로 覺照性이다. 왜냐하면 생각은 不覺이나 心性은 생각이 없는 無念이므로 불각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공에 의하여 공 아닌 뿌리없이 움직이는 생각(動念)이 소멸하므로 공은 동념에 대하여 각조성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무념이 각조의 성이고, 본래 覺한 상태이므로 본각이라 한다.<sup>11)</sup>

그러나 본각의 본질은 여실히 空이고, 如實空은 심성에 물흐르듯이 흐르는 움직이는 생각(動念)의 번뇌가 머물 수 없게하므로 심성의 공은 또한 파괴의 각조이다. 마음의 본래의 모습이 覺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공이라는 법의 성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 공이 모든 존재가 하나의 공으로써 一法界임을 모르는 有的, 실체적 성격의 번뇌를 파괴하는 각의 힘으로써 因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覺照는 대지혜광명이며 법계를 편조한다.<sup>12)</sup> 즉 공한 마음의 크기가 무한대임을 말한다. 지식은 하나의 사물에 국한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지식과 지식의 조합에 의하여 새로운 세계를 추리하지만, 지식은 변하므로 지식에 의

한 세계도 변한다. 그러니 不變의 心性에 의하여 照된 法界와는 다르다.

그리고 覺照性은 佛地에 이르는 自發性이다. 이 각의 본질인 공은 無生滅하기 때문이다. 공하지 않는 客塵의 무명번뇌를 가만두지 않고 모두 공으로 熏習하여 정화시키는 자발적 힘이 있다. 즉 비어 있는 마음거울에 나타난 생각이라는 갖가지 형상을 용납하지 않고 공으로 소멸시킨다.

그러므로 覺의 공한 성질이라는 훈습이 법의 因이고, 그 법의 인에 의하여 무명번뇌가 멸하는 果를 가져온다. 이것이 깨침의 자발성이다. 그러므로 이를 因熏習鏡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始覺智의 본질이 공에 如實空鏡과 因熏習鏡의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보았다. 원효스님은 이 두 가지의 특성을 佛智에 이르게 하는 因性이라고 하였다.<sup>13)</sup> 이 因性은 곧 법이고, 因이다.

10) 上同 〈卷四〉 “所謂心性常無念故 名爲不變” --- “雖有染心而常不變之義 雖舉體動而本來寂靜 故言心性常無念也”

11) 上同 〈卷二〉 “言本覺者 謂此心性離不覺相 是覺照性 名爲本覺” p. 1-748下

12) 上同 “大智慧光明義故 照法界義故” p. 1-748中

13) 上同 〈卷三〉 “別解之中, 別顯四種. 此中前二在於因性. 其後二種在於果地.” “따로 설명한 중에는 네 가지를 각각 나타냈으니, 이 가운데에 앞의 둘(如實空鏡과 因熏習鏡)은 因性에 있고 뒤의 두 가지(法出離鏡과 緣熏習鏡)는 果地에 있다.” p.1-754



## 연변에서 온 편지

지운스님께 올립니다.

요 몇일 전 한국반야회 회장인 강태원 처사가 저희 수월정사를 다녀갔습니다.

강 처사로부터 아름다운 조계산 가을 소식과 함께 스님들께서 모아 보내주신 참으로 맑고 향기로운 정성을 잘 전해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곳 스님들은 복전 가운데 복전이십니다. 복밭이란 죽지 않는 복씨를 일구어 주는 터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님들의 정성을 스스로없이 거두어 들인 복밭에 들어가 복된 씨앗이 되지 못할 아픈 인연을 짓는 일은 아닐런지요.

격인 갈대꽃 사이로 가을도 다 저문 두말강가에는 머잖아 맵찬 겨울바람이 살얼음을 깔고 휘몰아쳐 올 것입니다. 스님들의 청정한 정성은 펴서 따뜻하고 큰 가르침이 되어 찬 얼음 매운바람도 일없이 견디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수월정사는 연변 자치주에서 하나뿐인 조선사람들의 절입니다. 이제 우리 수월정사에도 늘 함께 해주실 조국의 스님들이 계시어, 이제는 춥고 긴 겨울도 더 아쉬울 것 없는 행복한 마음으로 손꼽아 기다려지기까지 합니다.

백두산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꼭 잊지 마시고 수월정사를 찾아 주시라는 청을 진심으로 드리면서 이만 삼배를 올립니다. 내내 법체 청안 하옵소서.

북기 2539년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도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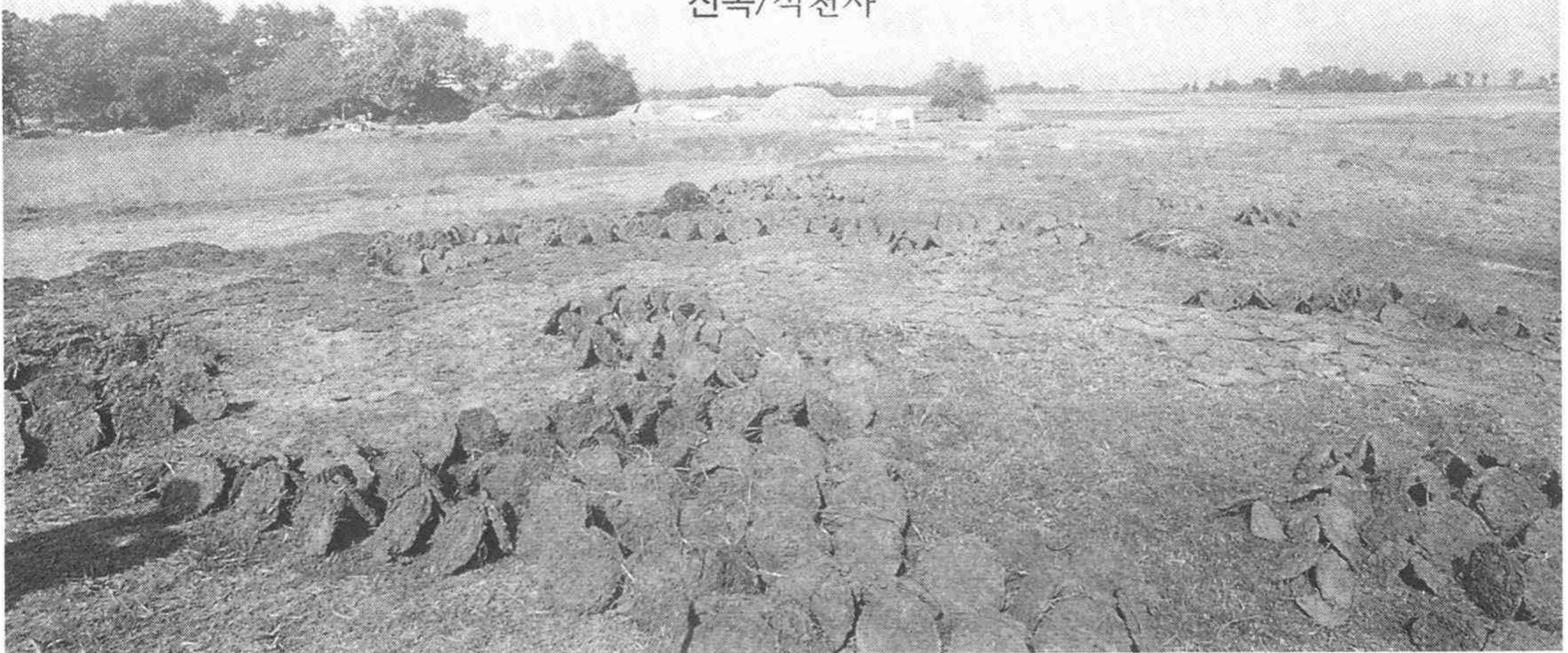
수월정사 신도회 회장 신 선덕하 정례

\* 중국 연변의 동포들이 한국절을 짓기 위해 화주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송광사강원 대중은 지난해 10월 부산 국제시장, 자갈치시장에서 탁발을 했습니다. 그 탁발금과 스님들이 화주한 돈을 보냈더니, 이렇게 답례 편지가 왔습니다. - 편집자 -



# 태어나야만 했던 붓다

진옥/석천사



## 1. 머리말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길을 어떻게 제시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아함경에서부터 화엄경까지의 내용들을 그냥 고답적으로 서술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최대한 현대의 문제와 관련지어 접근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한다.

금강경에 ‘부처님 법은 결정된 것이 없는 것을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이름한다’고 했듯이 시간과 공간, 당시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현실의 법이므로, 과거의 것들이 훌륭했다고 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모두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2천5백여 년 전 또는 그 이후의 훌륭한 교설들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치

않는가를 가려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약이라도 그 약이 치료해야 할 병이 없으면 그 약은 필요 없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불교사적으로 볼 때 대승불교가 일어난 것도 그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원효의 화쟁사상도 시대적 요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에 필요한 부처님 처방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가려 집필하고자 한다. 필자의 미약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많은 조언과 격려로 채워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부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될 주변 상황과, 역사가 붓다를 창조하고 붓다가 역사에 부응해서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붓다의 자의(경전에는 당신이 태어날 곳과 부모, 나라를 선택했다는 기록이 있



다.)와 역사의 타의를 다같이 보고자 하며,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들이 어떤 형태의 붓다를 만들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 2. 인도의 기후 풍토와 종교성의 형성

인도는 고대사회로부터 종교의 천국이었던 것 같다. 현재 인도인들의 종교성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종교성은 고대 인더스 문명에서 발견되는 고대 유적, 유물 가운데 물과 관련된 종교시설로 추정되는 잘 정비된 수로와 목욕시설 등에도 나타나고, 모헨조다로의 사제사상은 그대로 종교적 지배 사회였음을 잘 말해 준다.

인도인들이 기원전 3천5백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필연적으로 물과 연결된 종교를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그 지방의 특수한 여건, 즉 기후와 풍토 때문이었을 것이다. 40℃가 넘는 무더운 기온과 높은 습도, 그리고 거친 자연환경등이 이러한 종교적인 심성으로 나아가게 했을 것이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히말라야의 천년설과 그 눈이 녹아서 내린 물에 대한 생각은 종교적으로까지 승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인도인들이 현재에도 히말라야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인더스 강물을 신성시하고, 이 물에 목욕하고 기도하며, 죽은 후에는 화장하여 그 재를 인더스 강변에 뿌리는 것도 물이 바다에 이른 뒤에 다시 저 영봉인 히말라야에 이르러 흐름을 계속하듯이, 우리의 생명도 다시 새로운 흐름이 땅으로부터 부여받는다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도인들의 물에 대한 신앙은 세계의 어느 민족보다도 강하고 철저했다. 인도의 살인적인 더위는 한낮에 사람의 활동을 정체시켰으며, 음식은 낮은 열량으로 섭취해야 했다. 그래서 자연히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한 자리에서의 정체는 정신적인 고요와 사색을 발달시켰고, 이것이 인도인들의 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고행주의(苦行主義)를 탄생시켰다. 지금도 세계의 사색자들 가운데 인도인들이 대단히 많은 것은 그 때문이리라. 요가인들의 요가운동은 정체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며, 지식(止息) 등의 호흡법도 추운지방이나 많이 움직이는 문화환경 속에서는 발달할 수 없는 것들이다.

또한 인도인들은 자연환경의 엄청난 변화 앞에서 매우 나약했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자연물 모두에 정령이 있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지내고 기원하는 의식이 대단히 발달했다. 브라만교의 초기 다신교 현상도 이와같은 이유에서이며, 나중에 이 신들을 지배하는 신을 만들어낸 것이 범신(梵神)이다.

이러한 자연 환경의 특성은 후에 부처님의 탄생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며, 그의 교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관계는 뒤에 차츰 밝혀 나가겠다.

## 3. 아리안족의 침입과 브라만교의 형성

아리안족의 인도 침입은 인더스 문명의 멸망과 함께 고대인도 사회에서 큰 사건이었다. 기



원전 1천3백년 경부터 몇 차례 아리안족이 인도를 침략한다. 원주민들은 검은 피부에 낮은 코의 드라비다족이었으며, 인도를 침략한 아리안족은 현재의 이란족과 같은 종족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역사의 흐름에서 침략을 당하는 쪽은 흔히 문화적, 정신적, 경제적인 불균형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B.C 13세기경 인도는 아리아인의 철기문화와 드라비다족의 청동기문화로, 지배자와 피지배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역사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지배자는 소수이며, 피지배자족은 다수이다. 드라비다족은 아리아인에 밀려서 최고의 곡창지대인 인더스 상류의 오하(五河)편잡주에서 쫓겨나 차츰 남쪽으로 이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제권도 아리아인이 장악하게 되었다.

역사에 있어서 군사, 경제 등이 우위에 있고, 지배자 쪽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들은 정신적인 종교까지도 피지배자에게 강요하게 된다. 아마도 드라비다 원주민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리안족은 그러한 체계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갖고 들어왔거나 현 상황에 맞게 창조한 새로운 지배윤리로서 한 종교를 창조하는데, 이것이 '브라만교'이다.

지배자들은 인간을 4계급으로 나누었다. 정신을 지배하는 최고계급인 사제자는 절대적으로 아리안족 차지였다. 이들은 범신의 머리로 부터 나왔다고 가르쳐 범신의 적자임을 나타냈으며, 재정력과 군사력을 지닌 왕권도 아리안족이 맡았다. 그리고 두 민족 사이의 혼혈은 평민이었

으며, 드라비다 원주민들은 최하위의 노예계층이 되었다. 그들을 죽여도 살인이 아니었으며, 모든 생사여탈권은 지배자들이 쥐고 있었다. 이러한 지배체제로서 윤리를 체계화한 책이 '베다'이다.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리그베다이며, 그 후에 야जू르베다, 아타아르베다 등 차츰 제사의 규칙과 아울러 브라만 계통의 신성화 작업이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었다.

#### 4. 브라만교의 모순과 극단적인 유물론의 탄생

이 브라만교는 처음 탄생될 때부터 침략의 승자인 지배자가 고안해낸 지배 윤리로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순 속에서 잉태된 종교라고 해야 할 것이다. 4계급 제도인 카스트는 인간의 삶을 완전히 계급적인 차별개념으로 파악하여 지배자인 왕족은 원래 범신에 의해서 기득권을 부여받은 자라고 생각했으며, 나머지 평민과 노예는 범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종족이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평등은 범신인 유일신(唯一神) 앞에서 그 계급내에서의 평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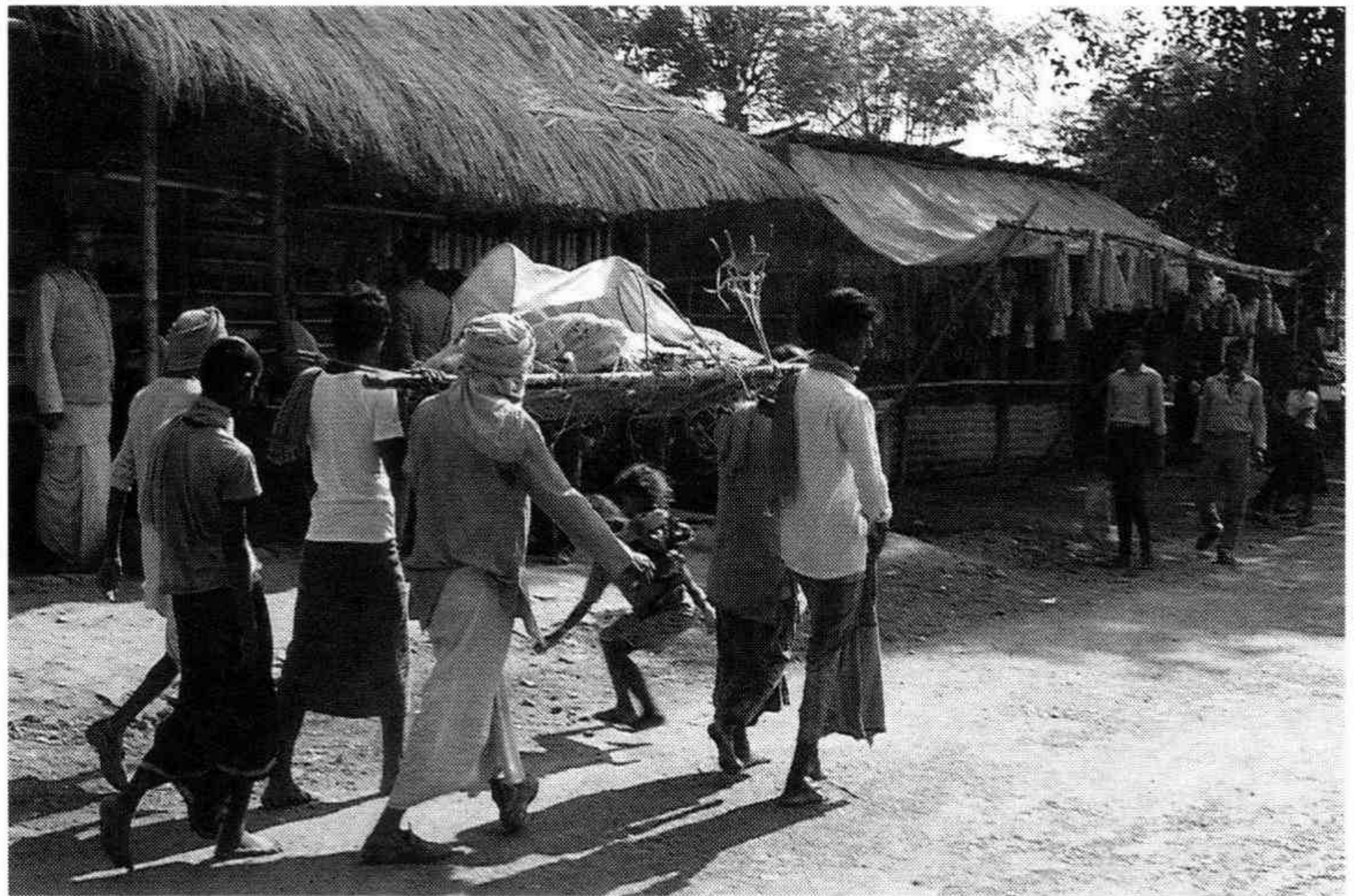
이 브라만교가 초기에는 다신교의 형태를 띠다가 차츰 유일신의 개념으로 바뀌었으며, 유일신의 권한을 절대신으로 의인화시켰다. 모든 인과는 무시되고 오직 인간의 삶 자체가 신에 의해서 좌우되며, 이 신에게 제사를 잘지내야 신이 인간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평민과 노예들은 자아의 상실과 함께 무력화되어 이제는 그 계급을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무기력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제사장이나 왕권에 의해서 노예가 제물로 바쳐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Karma(業)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이 업은 신이 내려준 자기의 운명으로 생각하여 그 업을 스스로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고 여기게 되었다. 나중에 붓다에 의해서 이업은 자기에 의해서 지어지고 자기에 의해서 새로이 개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만, 붓다가 태어나기 이전에는 신과 브라만 제사장들의 특권의식적인 지배윤리로서 이용되었다.



이러한 절대신의 지배시대에 나타난 것이 반대급부적으로 신에 반항하는 세력이다.(서구 중세의 사제자의 절대권능에 반대해서 일어난 유물사관과 흡사하다.) 초기의 다신교적 상황에서 유일



신적인 논리가 전개되었으나, 붓다가 태어나기 약 200여 년 전부터 새로운 사조가 등장하였다.

이 시대를 우파니샤드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에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자못 가까워진다. 다시 말하면 범신이 일부 떨어져 나와서 내가 되고, 내(아트만)가 죽으면 다시 범신으로 돌아간다는 새로운 윤회의 체계가 정립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평민계층의 상인들과 왕족들이 실질적인 경제와 정치의 주도권자로 등장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적인 역할을 한다.

그 반면에 브라흐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법에 얽매어 일반 대중으로부터 소외당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사상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 과거의 신본주의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진행된다. 불경(佛經)에서 전하는 육사 외도(六邪 外道)라고 말하는 신사조의 사상가들도 이에 속한다. 이러한 사조 가운데 큰 흐름을 이룬 것이 앞서서도 언급한 무도덕론(無道德論)과 인과부정론, 유물론 등이다. 이 세상에는 신이 만들어낸 도덕이란 없으





며, 인과도 없고, 신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조는 구박받던 기층대중과 새로운 부를 축적하여 사회의 지도자로 부상한 장자(長者, 불경에 나오는), 새로운 왕권을 구축하여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고자 하는 신세력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자이나교의 자이니즘도 이러한 부류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기존 지배논리를 주축으로 한 브라마니즘과 새로운 변혁을 시도한 신사조 간

의 갈등은 백성에게 어떤 것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게 하였다.

수행자들의 수행방법에도 혼선이 빚어졌다. 극단적인 고행(苦行)주의, 수정(修正)주의, 의식주의, 계행주의 등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히 일반 백성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국민들은 이 사상계의 혼란을 바로잡아 줄 위대한 분이 탄생하기를 기원했는데, 그것은 총체적인 이름의 깨달은 자, 혹은 밝은 자인 붓다이다.

대각자가 나타나서 세상의 어지러움을 모두 바로잡고 바른 질서를 세워주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석존을 전후해서 스스로 붓다라고 외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 일반 기득권자이며 극우에 해

당하는 브라흐만들은 이러한 붓다의 탄생을 매우 경계했고, 신사조를 타고 새롭게 부상한 평민의 자제들과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킨 왕족들은 붓다의 탄생을 무척이나 기다렸으며, 천민층도 자기를 구원해 줄 붓다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바람 속에서 붓다가 탄생한다.

## 5. 국가간의 전쟁과 백성의 혼란

붓다의 탄생전후인 B.C 5~6세기경 인도의 국



가 형태는 소도시였다. 다시 말해 조그만 부족이 모여 한 도시를 이루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되는, 요즈음에 비하면 조그만 형태의 나라이다. 부처님께서 탄생한 왕사성도 그러한 나라 가운데 작은 편에 속하는 나라였다. 경전에 나오는 마가다국 같은 나라는 부족국가 가운데 비교적 그 세력이 컸던 나라이다.

이러한 부족 형태의 수많은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실제 무력을 가진 왕족들과 그 왕족을 돕는 신진부호 세력들은 이웃한 약한 나라들을 끊임없이 넘보았으며, 인도 전역에서 전쟁이 끊일 날이 없었다. 조그만 나라들은 끊임없이 위협을 받았고 부처님이 탄생하신 왕사성도 결국 패망하고 말았다.

이러한 전쟁은 노예들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평민들 가운데 대부분도 전쟁을 두려워했다. 전쟁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노예도 탄생했다. 전승국이 패전국의 국민들에게 노예가 될 것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패권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전쟁의 두려움이 만연해 있었으며, 국민들은 새로운 형태의 이상향을 찾게 되었다. 그것이 전륜성왕이다. 이 전륜성왕은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고, 왕의 위세와 그의 덕화로 모두를 교화하는 왕으로, 전륜성왕의 이상향은 평화통일이 되어 전쟁으로 인한 죽음이 없이 편안한 생활을 누렸으면 하는 국민들의 바램이었다. 대각자(大覺者)인 붓다와 전륜성왕은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의 다른 바램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질서의 혼란이 사상적이든 정치적이든 간에 그들에게는 큰 혼란을 주었으며, 목숨까지 위협했던 것이다. 사상적으로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했고, 정치적으로도 새로운 질서를 바랬던 것이다. 이것이 원력인데, 이러한 원력이 바로 새로운 인물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붓다는 시대적 요청이었으며, 대각자는 그 시대와 상황이 만들어낸 위대한 완성자였다.

## 6. 맺음말

새로운 인물의 탄생은 그 시대와 상황이 요구하는 바와 일치해야 한다. 그 시대, 장소와 상황에 전혀 동떨어진 인물은 탄생할 수 없는 것이다. 설사 그러한 인물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물론 선각자로서 당시에는 대중으로부터 소외당했더라도 후대에 진가가 알려지는 경우는 가끔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인물이 태어났던 배경을 보면 그 인물의 주장을 완전 납득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을 뿐, 당시에 그러한 사상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무르익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붓다의 탄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그 당시 중생들의 강렬한 요구이자 희망이었던 것이다. 불교식으로 시절인연이 도래했던 것이다. 붓다의 탄생은 내적으로는 인간의 완성을 의미하지만, 외적으로는 방황하는 중생들의 강렬한 요구였다.



# 연꽃이 피어나듯

도선/사집

어린 영에게  
 지난날 무성한 그늘을  
 드리웠던 숲 속의 나뭇잎들은  
 지금 모두 어디로 갔는지요?  
 겨울 산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앞산 중턱에 몇 그루 서 있는  
 소나무들만이 추위에도 푸르름  
 을 잃지 않은 채 홀로 기상과  
 절개를 지켜 나가고 있는 듯합  
 니다. 그 소나무 위에 지금 함  
 박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즐거  
 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지, 기도  
 는 잘 되시는지 어린 보살님의  
 안부가 궁금하군요. 앞마당이며  
 장독대 위에 무심히 내리는 하  
 얀 눈송이도 멀리서 내집 찾아  
 오는 반가운 손님인양 정겹고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이 겨울,  
 지난 한해동안 은혜를 입은 많  
 은 분들에게 한 장의 고운 엽  
 서에 감사의 정을 담아 보내고  
 싶은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근래 송광사의 큰스님이셨던

효봉스님과 구산스님을 시봉하  
 였으며, 여든이 넘으신 지금도  
 가끔씩 후원 일을 도와주시거  
 나 스님들의 옷을 손질해 주시  
 는 보경화 보살님, 겨울 땀감이  
 며 발농사 등 사중의 힘들고  
 께운 일을 도맡아 하시는 부목  
 처사님, 추운 날씨에 콧물을 줄  
 줄 흘리면서도 스님만 보면 어  
 린아이처럼 꾸벅 인사하시는  
 말 수가 적은 청소부 처사님,

**앞마당이며 장독대 위  
 에 무심히 내리는 하얀  
 눈송이도 멀리서 내집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  
 인양 정겹고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이 겨울**

순천에서 오셔서 가끔씩 떡이  
 며 피자 공양도 올리고 공양간  
 일을 돌봐주시는 마음이 따뜻

한 난이 엄마, 그리고 산철 방  
 학 중에 밖에 나가지 않고 손  
 수 많은 숨과 알코올 구입해서,  
 신도분들의 법당 출입이 뜸한  
 아침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 각  
 불단에 모셔진 부처님들을 깨  
 끄이 닦고 목욕시켜 주신 치문  
 반 본각스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살아가면서도 여러 스  
 님들이 따뜻하게 이 겨울을 보  
 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  
 는 고마운 분들께 따뜻한 차한  
 잔 달여 드리고 싶은 세모입니  
 다. 향일암에는 벌써 동백꽃이  
 피었다지요. 그 곳에도 함박눈  
 이 내리고 있는지요? 지금쯤  
 학교 친구들과 어울려 연말 연  
 시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며 신나게  
 놀러 다니고 싶고, 친한 벗과  
 함께 먼 낯선 고장으로 여행도  
 다녀 보고 싶은 호기심 많은  
 어린 나이에 찾아오는 이 없는



절에서 기도하던 그 마음으로 집에 가서도 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군요. 좋은 사람 미운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보이는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로 보여 …….

조용한 암자 추운 법당에서 열  
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어린 보  
살님을 생각하니 조금은 안됐  
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겨울 추  
위가 심할수록 봄의 새싹들이  
더욱 푸르다고 하지요. 그러니  
좋은 도량에서 기도 열심히 하  
세요. 이 추운 계절이 지나고  
머지않아 화사한 새봄이 올 거  
예요. 그때에는 우리 어린 보살  
님도 열심히기도 한 공덕으로  
아픈 몸도 다 낫고 싱그럽

고 푸른 새봄을 맞이  
할 수 있겠지요. 순  
간 순간이 소중하  
고 아쉬운 우리들  
의 삶의 한때 아  
침에 눈을 떠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만나고 헤  
어지는 못 사람들  
이 나와 어떤 인

연으로 만나고 헤어지는지, 분  
주한 일상에서 떠나와 한번쯤  
은 조용한 산사에서 사색의 시  
간을 가져 보는 것도 좋겠지요.

어린 보살님!

향일암에서 보았던 장엄한  
해돋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  
하군요. 어두운 바다 속에서 눈  
부신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나는  
듯했습니다. 어린 보살님! 푸른  
바닷물이 내려다 보이는 좋은

도량에서 겨울 잘 보내시구요,  
절에서 기도하던 그 마음으로  
집에 가서도 늘 그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군요. 좋은  
사람 미운 사람 가리지 아니하  
고 보이는 모든 것이 관세음보  
살로 보이고, 들리는 모든 소리  
들, 심지어는 욕하고 비난하는  
소리까지도 그윽한 관세음보살  
의 음성으로 들릴 그때까지 기  
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  
간다면 진흙 속에서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나듯 향기로운 연  
꽃을 피워낼 수 있겠지요.

그런 재영이가 되길 빌  
어봅니다. 함박눈으  
로 겨울 산이 하얗게  
변해가는군요. 따듯  
한 겨울을 보내라는  
하늘 나라의 선물인  
가 봅니다. 깊어 가  
는 겨울 건강히 보내  
세요.





## 가을 산행

천호/태백산 회정대

아 가을인가.

찬 울음 기러기떼 줄지어 날아만 가는 정녕 싸늘한 가을인가.

가을은 어느새 왔다가

저마다 대지에서 가장 먼 가지끝에서 붉게 물들다

이렇게 속절없이 가는지.

더할 수 없는 잎과 줄기들은 갈색으로 탈색되어 대지에 한결 가까이 다가갑니다.

외롭게 외롭게 다가가고 붉은 열매들은 손을 놓고 소리없이 쓰러져갑니다.

어디에도 머물수 없던 영혼은 저물어가는 하늘의 푸른 별빛을 따라

얼마나 멀리 아스라이 사라져야

그 빛을 잃게 되는지.

두팔을 벌려 아직 한번도 껴안아보지 못했던 가을을 끌어안고자

저는 우거진 억새의 군락을 서성입니다.



## 겨울 포행

굵은 낙엽송이 가지런히 이어진 눈길을 걸어도, 눈썹인 응달에 푸르디 푸른 이끼들과 돌돌돌 흐르는 물웅덩이가 보여도 저는 제 눈빛의 의미를 알며 제 침묵의 의미를 압니다. 가슴 속에서 아직 채 식지 않은 아궁이의 불씨가 무엇을 꿈꾸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빛바랜 백년 전의 그림 속으로 하얗게 하얗게 토끼나 고라니, 노루의 발자귀를 되밟으며 걸어갑니다.

하얀 여백의 수목화 속에서 듬뿍 먹물로 번져가며 오히려 저는 살아납니다. 전혀 생소하고 외딴 산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굴참나무처럼 생소한 나무들이나 생소한 구도의 마을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 생소함은 저로 하여금 하얀 화선지 밖으로 내몰아대곤 하지만 그것은 제가 할수 없이 조우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후닥닥 날아오르는 산비둘기나 놀라 달아나는 잿빛 토끼로 인해 저는 뿌연 입김과 함께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수목화 밖으로 걸어나 오곤 합니다.

마을길에 들어서면 가끔 세속의 아낙들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갑니다. 제가 스스로 사랑하지 않고자 했던 것은 아니지만 깊은 골짜기 폭설 속에서 가시돋힌 침엽수처럼 서있었기 때문에 아직껏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여줄가리 하나의 우죽을 두눈으로 응시하고 누구와도 함께 지켜볼 수 없는 고독을 씹으며 저는 돌아옵니다.

저마다 겪어야 할 외로움을 위로하고자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진정 위로할 따스한 말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사랑하지 않고자 했던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모두를 진정 헌신적으로 열렬히 사랑하고자 했기 때문에 바람이 몰아쳐 여지없이 흔들리는 산죽처럼 마른 댓잎으로 서격이며 저는 눈길을 걸어 돌아옵니다.



## 노스님을 떠나보내고

각경/치문

딩딩딩 ...

지난 11월 8일 저녁 8시 35분부터 송광사 도량에 108번 열반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송광사 수호신이라 불리던 계룡 노스님이 세수 84, 법랍 69세로 열반에 드신 것이다.

지난해 가을에 사미계를 받고 강원에 입방해서 내게 주어진 소임이 노스님 시봉이었다. 노스님은 송광사에서도 엄하기로 소문이 나 있고, 행자 때 잠깐 시봉하면서 좀 까다로운 모습을 뵈는 적이 있어서 여간 긴장이 되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 시봉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스님께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다. 죄송한 마음에 시봉을 더 정성껏 했지만 병환은 자꾸 깊어져서 지금까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던 큰방 공양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후원에서 드시게 되었다. 절마당

을 가로질러 후원까지 가는데도 두세 번씩 쉬어가야 했다. 나는 걱정이 되어서 “스님 제가 공양을 방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못써.” 하시면서 내 어깨에 의지해서 힘겹게 걸음을 떼시는 것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스님 병환은 갈수록 깊어져서 처소 밖으로 거동조차 못하시게 되어, 나는 거처를 스님 옆방으로 옮겨 수발을 들게 되었다. 한밤중에 두세 번 소변을 보시기 위해 나를 부르시는데, 잠결에 가래 섞인 희미한 목소리를 겨우 듣고 일어나 스님을 부축해서 요강에 불일을 보시게 한 뒤 자리에 눕혀 드리면 연거푸 “미안해, 미안해.” 하실 땐 웬지 나는 코끝이 시큰거렸다.

사중스님들께서 걱정이 돼서 몇 차례 병원에 모시고 가 양

한방 진찰을 다 받아 보시게 했지만 노쇠해서 오는 증세라 별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르렁 그르렁 가래 끓는 숨 소리가 안되어 보여 가만히 스님을 바라다보고 앉아 있으면 툭 치시면서 “가서 공부 하.” 하셨다.

거의 매일 찾아오는 강원연수스님이 하루는 노스님 손을 꼭 잡고 “스님, 효봉스님 재 때는 꼭 일어나셔야 해요. 나랑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니 “응.” 하고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뒤로 스님은 차차 회복이 되어서, 내 팔에 의지해서 방안을 몇 바퀴 돌기도 하셨다. 햇볕이 따사로운 날에는 도성당 마루에 나오셔서 의자에 앉아 물끄러미 절 앞마당을 내다보며 혼자 뭐라 중얼거리며 어린애처럼 웃기도 하셨다.



드디어 효봉스님 재가 다가왔다. 아침공양을 마치고 스님은 머리를 감으시고, 발도 씻을테니 물을 떠오라고 하셨다.

나는 아무 말없이 시키는대로 해드리면서도 마음속으로 재에 참석하기에는 무리인데, 저러다 병이 도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은사이신 탐전스님이 내려오셨다고 해서,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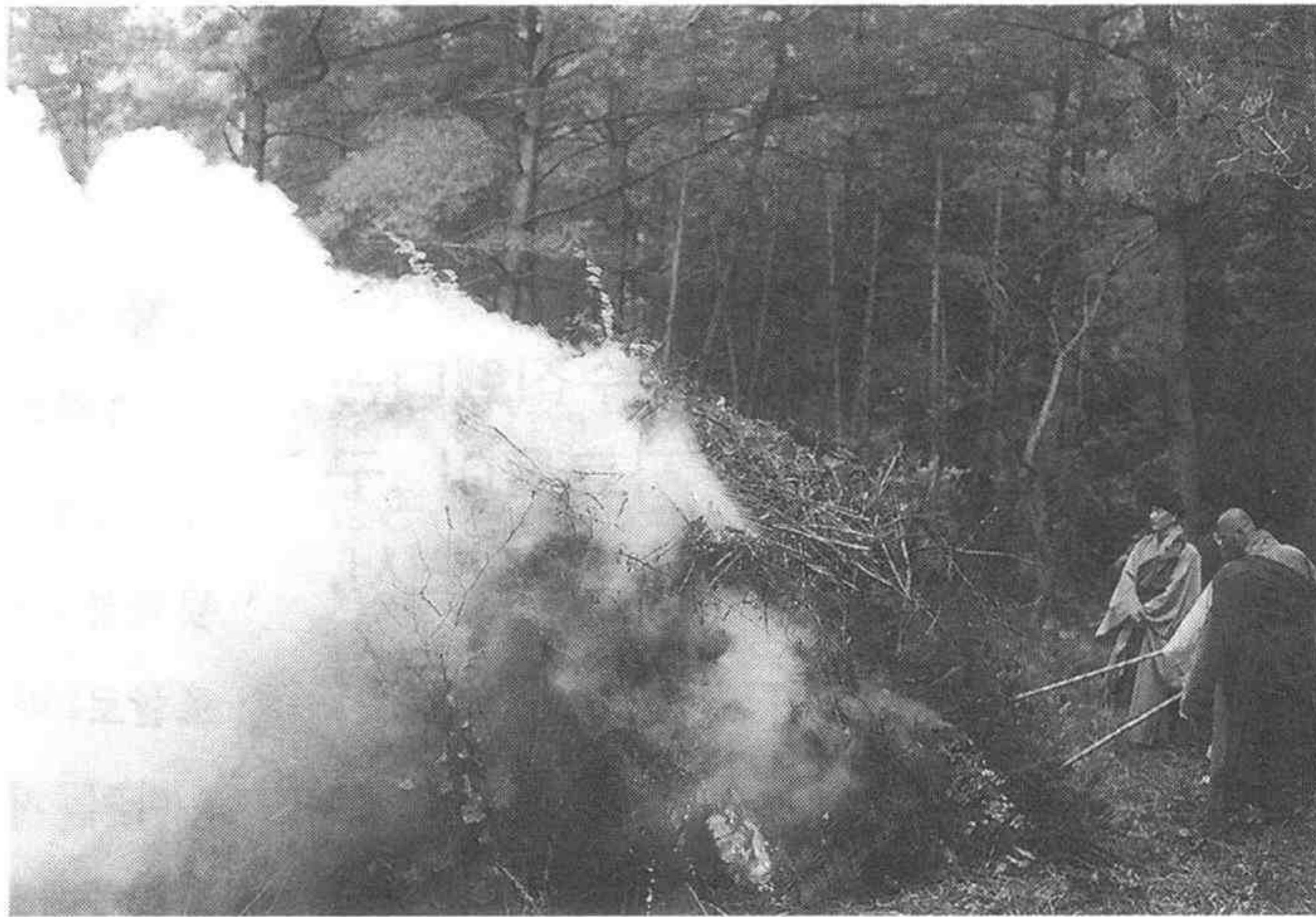
시봉하는 보안스님에게 노스님이 재에 가지 못하게 말려 달라고 부탁하고 탐전으로 인사하러 갔다. 저물녘에 돌아오니 스님은 돌아누우셔서 아는 척도 하지 않으셨다.

재에 꼭 가고 싶으셨는데 나 때문에 못가게 돼서 속이 상하셨던가 보다. 그것이 화근이 됐는지 그때부터 다시 증세가 나빠져서 말씀도 거의 못하시고, 나중에는 종이에 글을 써서 당신의 생각을 전하게 되었다.

밤이 깊어 스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나는 깜짝 놀라 스님에게

달려가 코에 귀를 기울여 숨소리를 들어보고 가슴을 쓸어 내리곤 했다.

잠깐 나갔다 오니 시봉하러 온 행자님이 목불상을 들고 문앞에 서있다가 “노스님이 가져다 태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길래, 우선 스님 방 뒤에 살짝 갔다 놓으라고 했다.



그날은 아침부터 먹구름이 무겁게 깔리더니, 오후에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후룩후룩 떨어지는 빗소리 속에 스님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지고, 옆 사람도 알아보시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 연수스님이 사중을 돌며 스님들께 노스님이 위독하시다고 소식을 알리자 사중스님들이 방안 가

득 모여들었지만, 노스님은 숨만 가쁘게 내쉴 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셨다.

저녁 8시 35분경 그렇게도 가쁘게 내쉬던 숨이 차차 거짓말같이 느려지더니 만상좌인 대원스님이 잡았던 손이 스스로 풀리면서 여든네 해 끌고다니시던 육체에서 숨을 거두셨다.

가랑비가 간간이 뿌리는 가운데 스님은 다비장의 장작더미 속에 묻혀 활활 불꽃으로 타올랐다. 더러 눈물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지만 웬지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참 이상한 일이다. 속가 때 같았으면 통곡을 하고도 남았을 텐데... 노스님은 무상이란 말의 의미를 몸소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 쉽게 열반에 드신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럴 줄 알았으면 효봉스님 재에 가신다고 했을 때 모시고 가는 거였는데, 아직도 목에 가시처럼 내 마음을 찌른다.



## 해인가족 모임에 다녀와서

연각/치문

**“왜!** 어디 가는가?” 강의  
를 마치시고 나오시  
던 은사 스님께서 물으셨다. 날  
짜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출  
발하는 날 아침에서야 허락을  
받겠다고 밖에서 떨며 기다리  
고 있던 내게, 스님께서는 쉽게  
다녀오라고 허락해 주셨다.

해인사에서 발행하는 월간  
‘해인’의 가족모임에 해청당 편  
집위원들이 참석하기 위해 떠  
나는 날 아침이었으니, 비록 쉽  
게 허락해 주셨지만 출발 전부  
터 마음줄이고 허둥거릴 밖  
에... 게다가 오랜만에 타는 버  
스의 기름 냄새는 속을 편하게  
내버려두지를 않아서 해인사에  
도착했을 때는 머리까지 멍해  
져 있었다.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해  
보자고 했었지만 오랜만에 멀

미까지 한데다 강연을 맡으신  
스님들이 사정으로 도착이 늦  
어지면서 줄지에 대중 앞에 소  
개되는 영광(?)까지 안게 되어

**교수님이 프랑스 국립  
박물관에서 수집했다는  
미공개된 자료들이 구  
체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예수님은 어느새 보살  
로 바뀌어 있었다**

애당초 계획은 저만치 달아나  
버렸다.

12월 23일 저녁예불을 마친  
후 편집인들을 소개하는 것으  
로 2박3일간의 일정은 시작되  
었다. 다른 수련회와는 달리 강  
연이 주가 되고, 중간에 요가로  
몸을 풀 수 있게 했는데 강사  
진은 스님보다는 주로 해인지  
의 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중 눈에 띄었던 강연은

민희식 교수의 ‘법화경과 신약  
성서’와 장휘옥 교수의 ‘불교의  
생활화’였다. ‘법화경과 신약성  
서’의 경우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을 뿐 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교수님이 프랑  
스 국립박물관에서 수집했다는  
미공개된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예수님은 어느새  
보살로 바뀌어 있었다.

미처 자기가 깨달은 가르침  
을 제대로 세상에 전하지도  
못하고 떠나야 했고,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왜곡되어 나타  
나는 현상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 내 마음에 작  
은 아쉬움이 생겨나면서 현재  
우리 종교가 해야 할 일들을  
새겨보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  
다. 타종교인들까지 포용해야  
한다는 말을 내세우기 전에  
그들에 대한 대자비심이 우려



승복 입은 입장에서 재가 불자가 목숨 내걸고 공부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재가신도도 저렇게 공부하는데 머리깎은 나는 어떤가? 더 분발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강의시간 내내 온통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에 대한 분별심도 사라져 버리는 듯했다.

이어서 장휘옥 교수의 강연이 있었는데, 강의 잘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작은 체구의 여교수에게서 발산되는 박동감 넘치는 생명력은 200명이 넘는 수련생의 시선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었다. 승복 입은 입장에서 재가 불자가 목숨 내걸고 공부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재가신도도 저렇게 공부하는데 머리깎은 나는 어떤가? 더 분발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강의시간 내내 온통 마음을 가득 채웠다. 가끔은 재가자들에게서 받게 되는 신선한 충격요법도 아직 근기가 약한 내게는 좋은 방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밖에도 이철수의 ‘판화이야기’, ‘슬라이드

로 본 운주사’ 등도 흥미있는 강연들이었다. 3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된 일정을 마무리하는 여연스님의 ‘차 이야기’는 아쉽지만 돌아올 시간이 빠듯해서 해인사 보경당에 남겨 놓은채 떠나와야 했다. ‘해인’의 많은 독자들과 만나면서 ‘해인’지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보탬이 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고, 아울러 사찰에서의 작은 정성들이 얼마나 큰 파장으로 사회에 퍼질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 그런 뿌듯함 때문이었을까? 돌아오는 길엔 멀미도 없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을 수 있었다.

송광사에 도착한 시간이 4시30분, 아마도

결제기간에 나갔다 오게 되어서, 불안한 마음이 숨어 있었는지, 일주문을 들어설 때는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해인가족 모임 주최측과 강원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스님은 관객

노휴/사교

오늘은 다르마(法) 모듬(條)이 ‘보시’라는 주제로 연극법회를 하는 날이다. 이번 법회의 연출을 맡은 다르마반 법우가 앞으로 나왔다.

“오늘 연극법회의 주제는 보시입니다. 보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법보시이죠. 저희 모듬이 다르마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죠. 이번에 저희 모듬은 ‘홍길동이 탐관오리의 재산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보시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재판극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막 올라갑니다.” 법회를 갖 맡은 지난해는 다음주의 주제를 알려주고 생각해 오라고 하면 준비해 오는 학생이 한둘 있을까 말까여서 스님은 법문하

고, 법우들은 그저 별 생각없이 듣다가 끝나면 저희들끼리만 어울리는 단순한 법회가 이어졌다. 이런 저런 고민 속에서 한해를 마무리해 갈 무렵 우연히 서점에서 보리출판사의 ‘선

새학기 첫 법회 날, “이제부터 법회를 연극으로 할까 합니다.” 하자, 법회를 연극으로 한다는 말에 법우들은 웅성거렸다.

생님 우리 연극해요.’ 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 교과서 내용을 연극으로 해서 공부하는 방법이였다. 법회를 연극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연말에 학생회 행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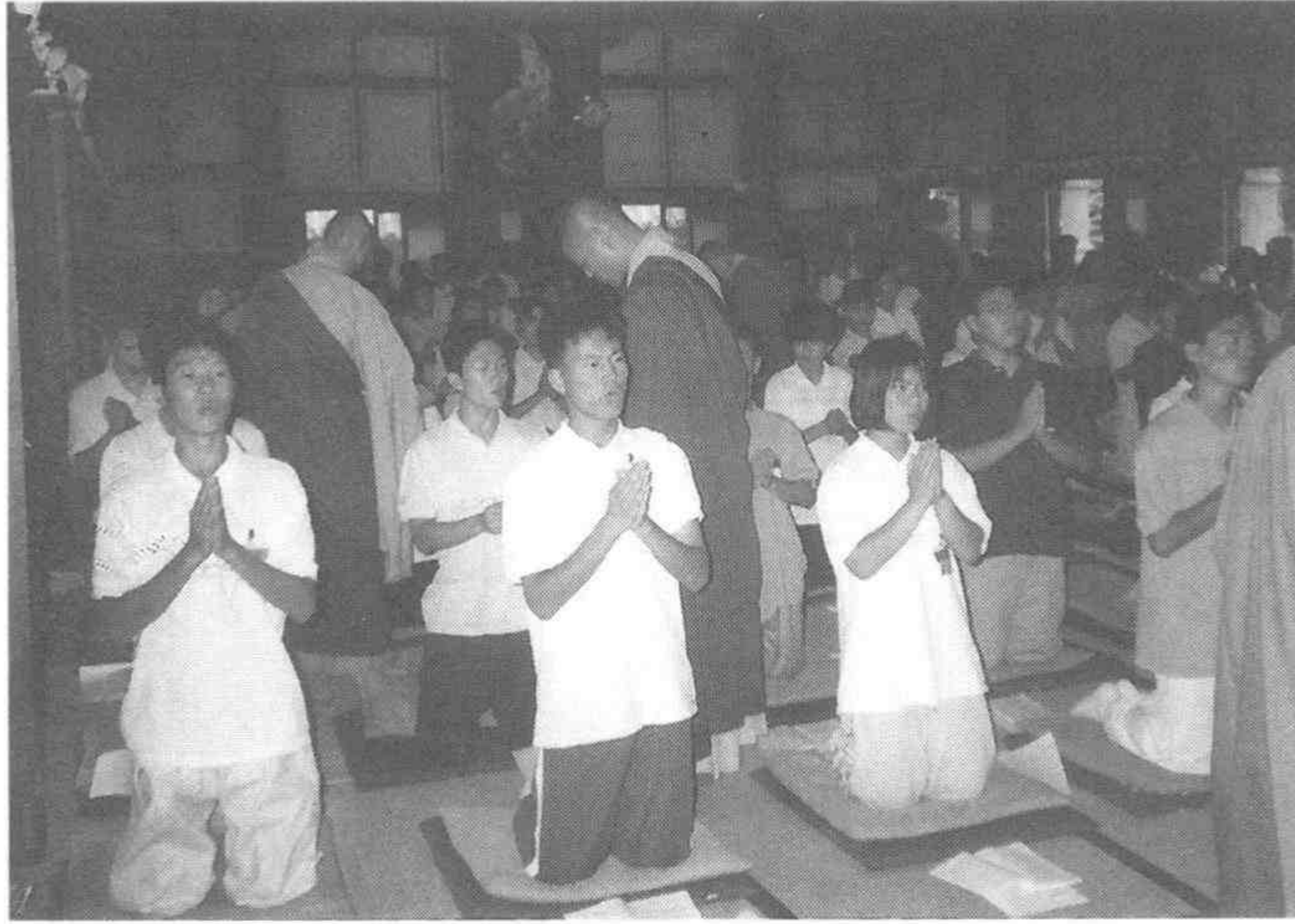
서 연극을 하는 것을 보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나름대로 자료를 구하고 일년 계획표를 작성한 후 주별 주제를 정하였다.

새학기 첫 법회 날, “이제부터 법회를 연극으로 할까 합니다.” 하자, 법회를 연극으로 한다는 말에 법우들은 웅성거렸다. “제가 작년에는 혼자 법회한 것같아 올해는 주별 주제를 연극으로 2-30분 정도 발표하고 전체 토론을 한 후 결론을 내리는 연극법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극법회의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상생활을 극으로 만든 생활극, 검사와 변호사, 피고 등이 나오는 재판극, 노래 가사를 바꿔 만든 노래극, 선과 악을 대립시켜 만드는 심



리극 등이 있는데, 이번주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홍길동전을 재판극으로 만든 것 같다.

법상 앞의 의자에 홍길동이 피고로 앉고, 양 옆에 검사와 변



호사가 서있다. 홍길동이 불교 성전에 손을 얹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자, 변호사가 변론을 했다.

“친애하는 스님, 그리고 법우님들. 오늘 우리는 홍길동의 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홍길동의 보시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도둑질을 해가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것도 밤에 말입니다. 홍길동씨, 뺏은 물건이나 돈을 자신을 위해 쓴 적이 있습니까?”

“부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한 푼도 저를 위해 쓴 적이 없습니다.”

“잘 들으셨죠. 요즘 공직자 비리가 말썽인데, 홍길동은 그

런 탐관오리들이 숨겨 놓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오직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시정신이 투철한 사람을 죄인으로 법정 에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맞은편에 서있던 검사가

“친애하는 여러분. 홍길동은 유죄입니다. 홍길동의 뜻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보시행이 될 수 없습니다. 보시할 때 세 가지가 청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물건을 말하는데, 여기서 물건은 훔친 것이기 때문에 보시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연극법회가 무조건 웃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 준 자료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손수 찾아서 준비하는 수준이 되었다.

증인으로 검사 쪽에서는 변사또가, 변호사 쪽에서는 흥부가 나왔다.

“공금을 훔쳐

간 홍길동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돈이 어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모은 겁니까? 우리 마을을 좀 잘 살게 해보려고 윗사람한테 갖다 바칠려 한 것인데 그걸 훔쳐 가다니 말이 됩니까? 그럼 전 춘향이하고 약속이 있어서 이만 가 보겠습니다.”

“나가 변사또한테 재산을 몽땅 뺏기고, 우리 아그들이 주린 배따지를 부여잡고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남들은 강남제비죽이 박씨를 물어다 쥐서 부자가 된 줄 알고 있는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나가 오늘 진실을 밝히는데, 그때 말이지 홍길동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 아그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시지락. 나가 알기로는 저쪽 앉아있는



작년만해도 설법시간에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낙서만하던 법우들이 이제는 전체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적기 바쁘다.

법사스님도 홍길동이한테 돈을 줌 받은 걸로 알고 있다.”

홍길동전과 상관없는 변사또와 흥부까지 등장시키는가 하면 가끔씩 지도법사까지 끌어들이는 걸 보며 감탄할 뿐이다.

작년만해도 설법시간에 친구와 이야기하거나 낙서만 하던 법우들이 이제는 전체 토론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적기 바쁘다.

연극법회를 하려면 먼저 모둠(條)을 짜야 한다. 모둠이 여러 개 되어야 한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며 하게되므로 학과 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본을 완성할 수 있다. 모둠을 짜고나면 모둠의 구호, 이름, 노래를 정하게 하는데 불교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그냥둔다. 새로 모듬을 짤 때는 불교적인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 매번 같은 구성원으로 모듬을 지속하면 편이 나뉘지고, 경쟁심이 생길 수 있으므로 4개월마다 바꿔주는 것이 좋다.

설법시간을 한 시간이라고 할 때 연극은 20-30분 정도가 적당하다. 나머지 시간은 전체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내린다. 이번 재판극의 연출을 맡은 법우가 다시 나왔다.

“법우님들 잘 보셨죠. 그럼 전체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때 연기의 잘 잘못을 이야기 하기보다는 바른 보시행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우들의 무한한 창의력과 자발성만 믿고, 연극법회를 주저없이 시작하면서 다소 걱정

이 되기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자료준비는 한달 후의 주제에 맞는 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그 주 연극법회를 이끌 모듬에게 주기만 하면 된다. 연극법회를 하다보니 나오지 않던 법우도 호기심을 가지고 다시 나오게 되었고, 법우들 또한 자기가 체득해서인지 포교도 열심히 한다.

전체토론이 끝나고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나보다. 오늘은 다들 주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연극을 한 것같아 굳이 스님이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극의 연출을 맡은 법우가 내려도 될 것 같다.

그럼 결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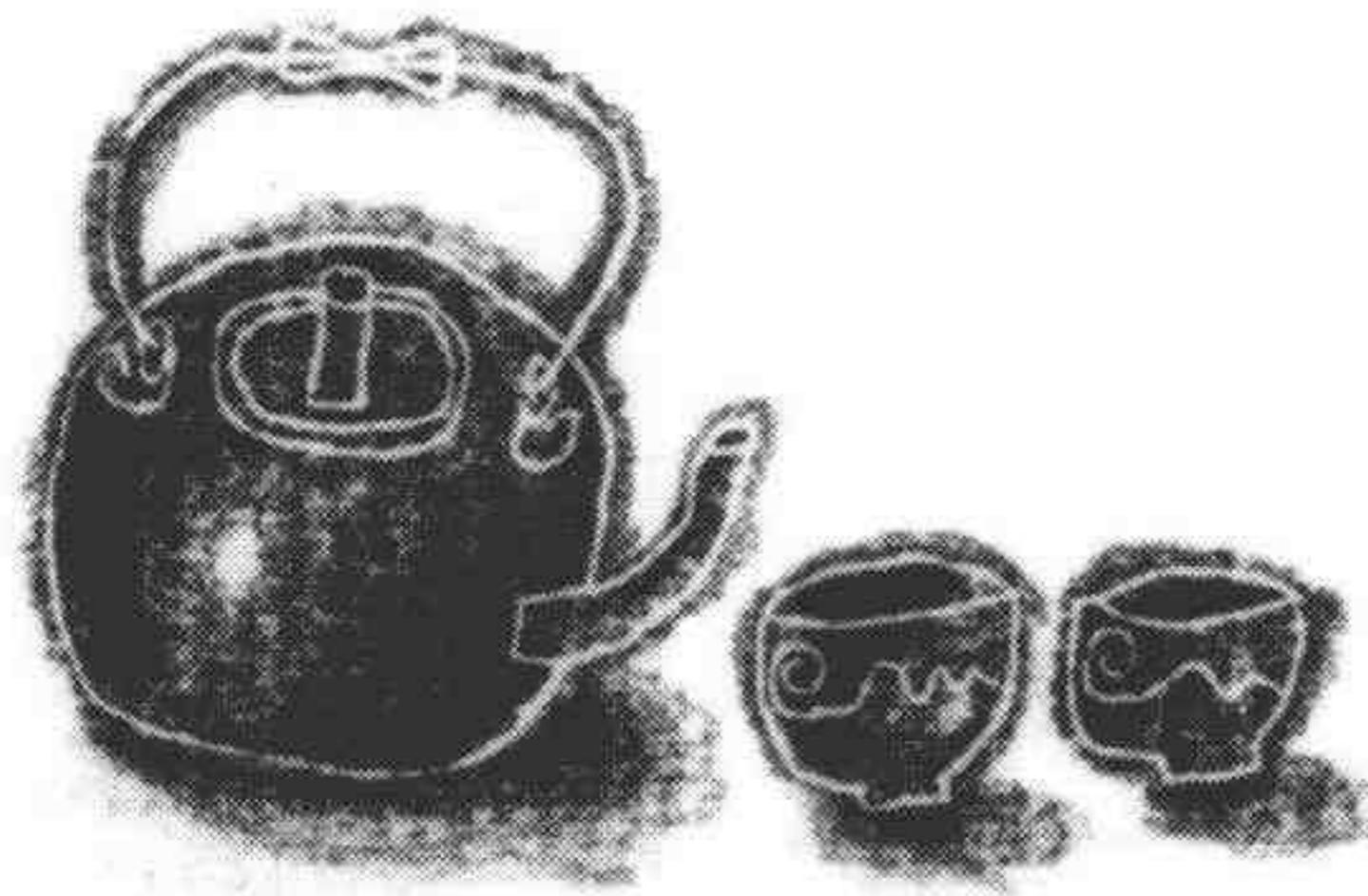
스님, 이제 한겨울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찬데, 기도하시랴, 살갑하시랴 고생이 많으시지요?

저는 한달 남짓한 방황을 끝내고 며칠 전에 송광사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스님 우리가 통도사에서 행자교육을 마치고 송광사 설법전에서 사미계를 받은 지가 삼년이 넘어가는군요. 처음 스님을 만났을 때 티모가 얼마나 무섭게 보이던지 말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고는 친형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밤늦은 시간에 스님이 필요하다는 전화 한 통에, 안개가 짙게 깔린 먼길을 차를 몰고 송광사까지 달려와 주셨습니다. 그때가 출가해서 가장 힘들 때였는데 스님이 보살펴 주신 덕분에 약사암에서 폭 쉬면서 차츰 마음이 안정되고 기운이 나서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스님이 계신 약사암에서 나온 대구 은사스님 절에 있으면서 약을 달여 먹으며 건강을 추스르고, 도반스님들과 경주, 부산으로 여행도 했

## 신원스님에게

종지/사집



습니다. 그동안 강원 공부에 쫓겨 읽지 못했던 책도 마음껏 읽고 은사스님을 도와 기도, 법회, 재도 열심히 바 드리고 한달 동안의 휴학을 끝내고 다시 송광사에 왔습니다. 오늘 낮에 스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기도 중이시라고 해서 통하지 못했습니다. 약사암 큰방에서 세인봉에 쌓인 눈을 바라보는 재미가 대단했는데, 지금 약사암에도 눈이 내리는지요? 여기 송광사는 이틀째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한업전 가는 길에도 육원에 가는 길에도 숲사탕같은 눈이 소복히 깔려 있습니다.

어제는 도반스님과 갈로암 쪽으로 포행을 했는데, 앞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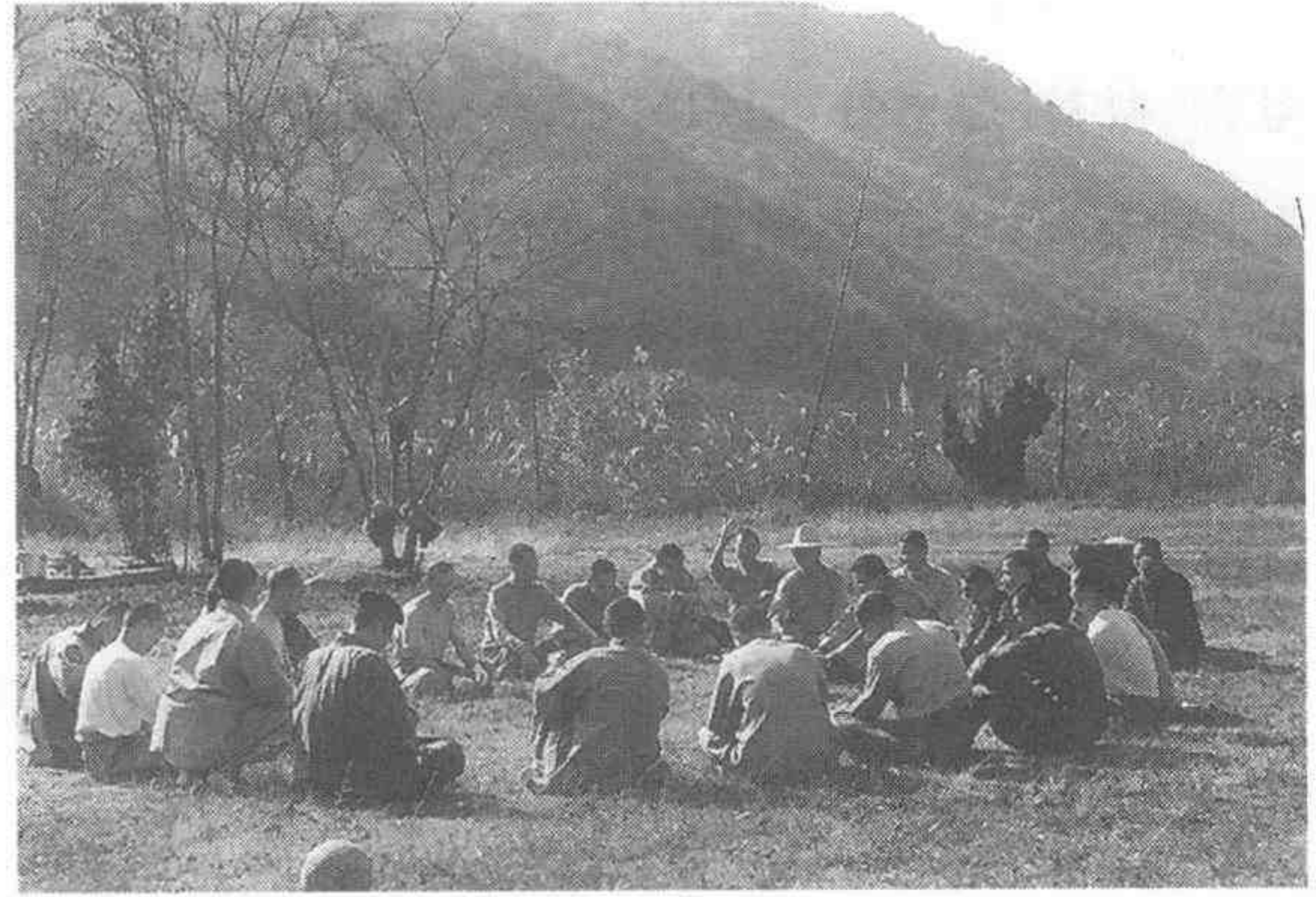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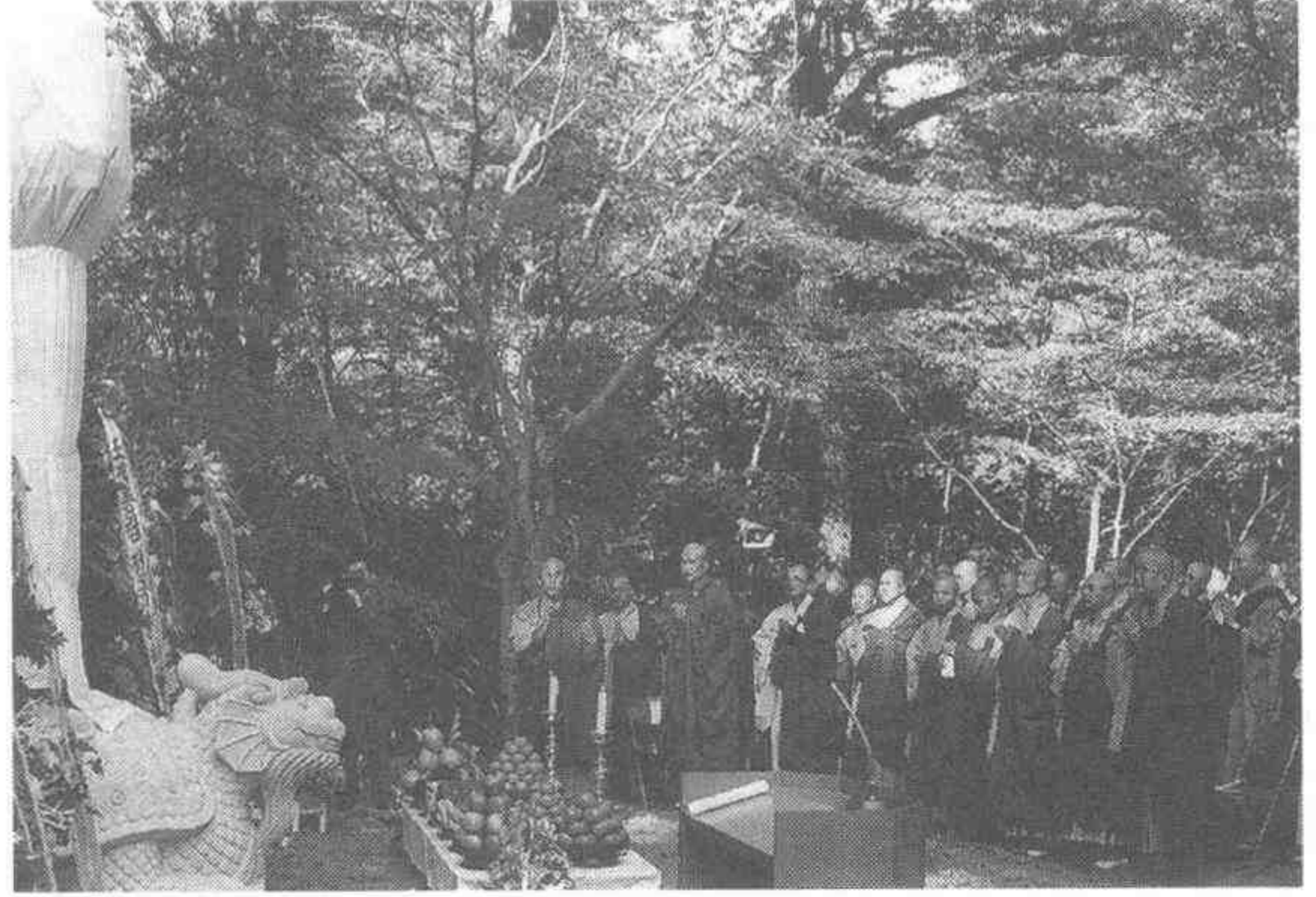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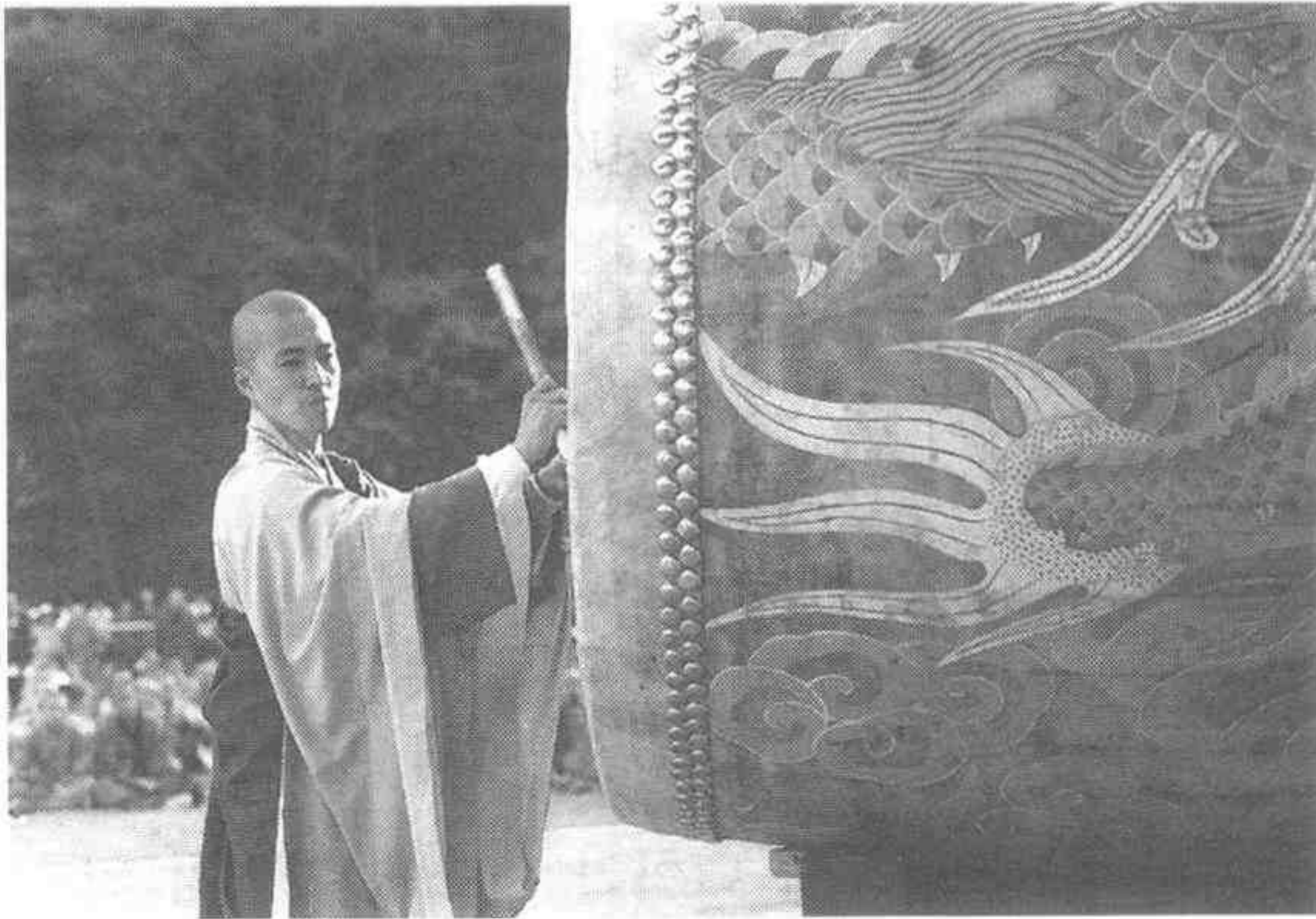
는 도반스님의 발자국에 내 발을 대보니까 서로 맞지 않더군요. 그 순간 이제부터는 내가 대중에 맞춰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때요? 스님, 나 큰 걸 깨쳤지요. 나도 이제 한 살 더 먹어 나이가 서른에 가까워집니다. 스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올해부터는 아주 잘 살 겁니다. 남들은 이번 겨울이 엄청 춥다고 하는데, 나는 추운 줄 모르겠습니다. 스님처럼 늘 나를 돌봐주시는 분들이 곁에 계시고, 강원에서 하나하나 북조의 맛을 배워가는 재미가 있으니까요.

휴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모두 반가게 맞아주시고 어른스님들도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니 올 겨울은 내복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제하면 먼저 약사암으로 가겠습니다. 스님, 날이 찬데 올 겨울 기도 잘하시고, 새봄에 서로 공부가 많이 돼서 건강하게 만나길 북보살님께 기도하겠습니다.





### 전국 학인대회 참가

11월 3-4일 : 김천 직지사에서 제6회 전국학인대회가 열렸다. 일타 큰스님의 포살을 시작으로 친목 체육행사, 법고, 역경, 서예대회 등의 문화행사로 이어진 이번 행사는 여느때와는 달리 여법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진행되었다. 장기 자랑시간을 통해 본 강원 스님들은 '향공(선체조)'를 선보였다.

### 향봉사님 추모비 제막식

11월 7일 : 송광사 비림에서 향봉사님의 추모비 제막식이 있었다.

### 계룡노스님 열반

11월 8일: 계룡노스님께서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경 도성당에서 세수 83, 법랍 68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

셨다. 스님께서서는 젊어서 부터 송광사를 지켜온 역사의 산증인이시며 근면, 무소유의 삶으로 학인들의 귀감이 되어오셨다. 스님의 영결식은 10일 사부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행되었다.

### 광주 비엔날레 관람

11월 3일 : 광주에서 열린 '광주 비엔날레'를 관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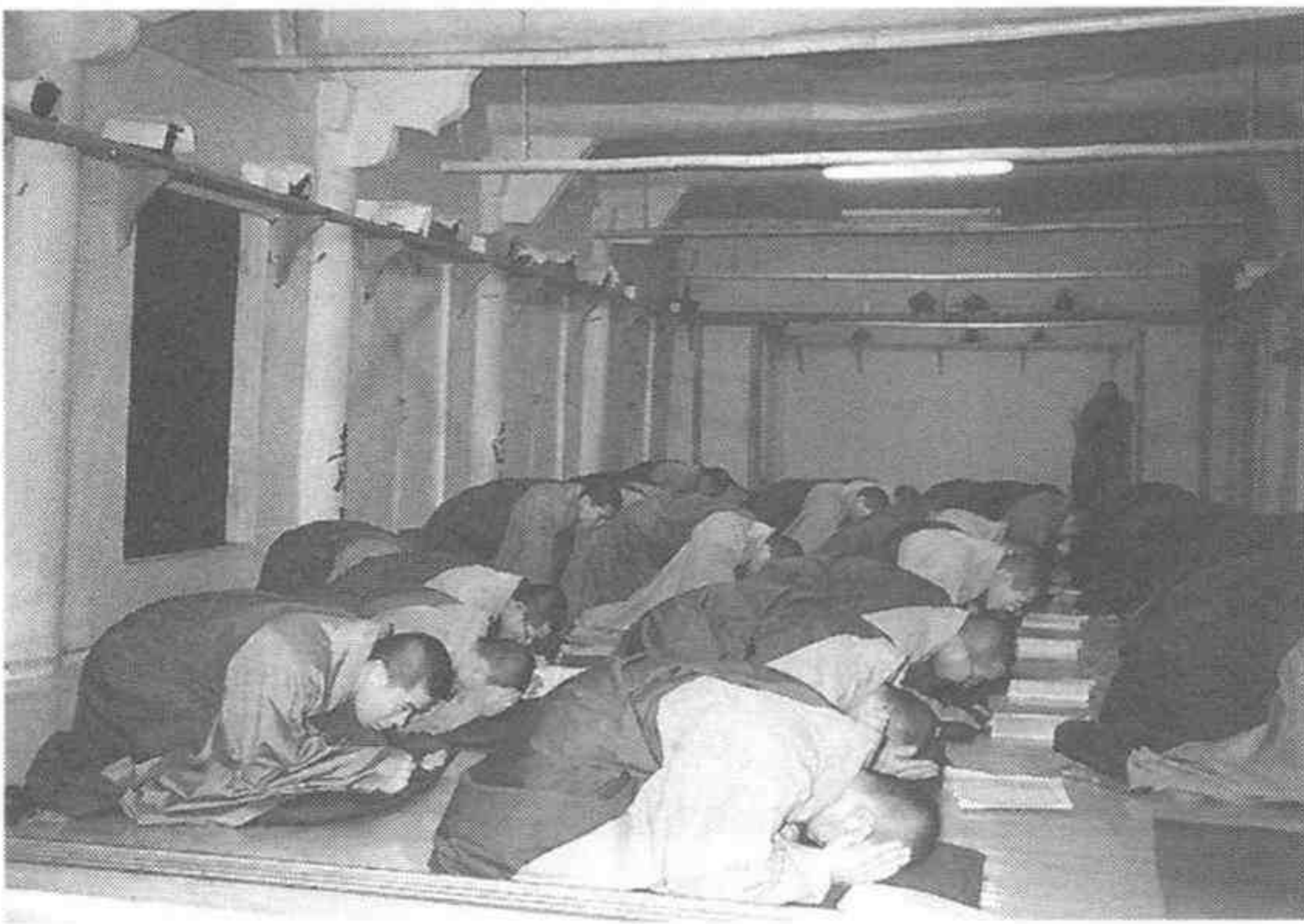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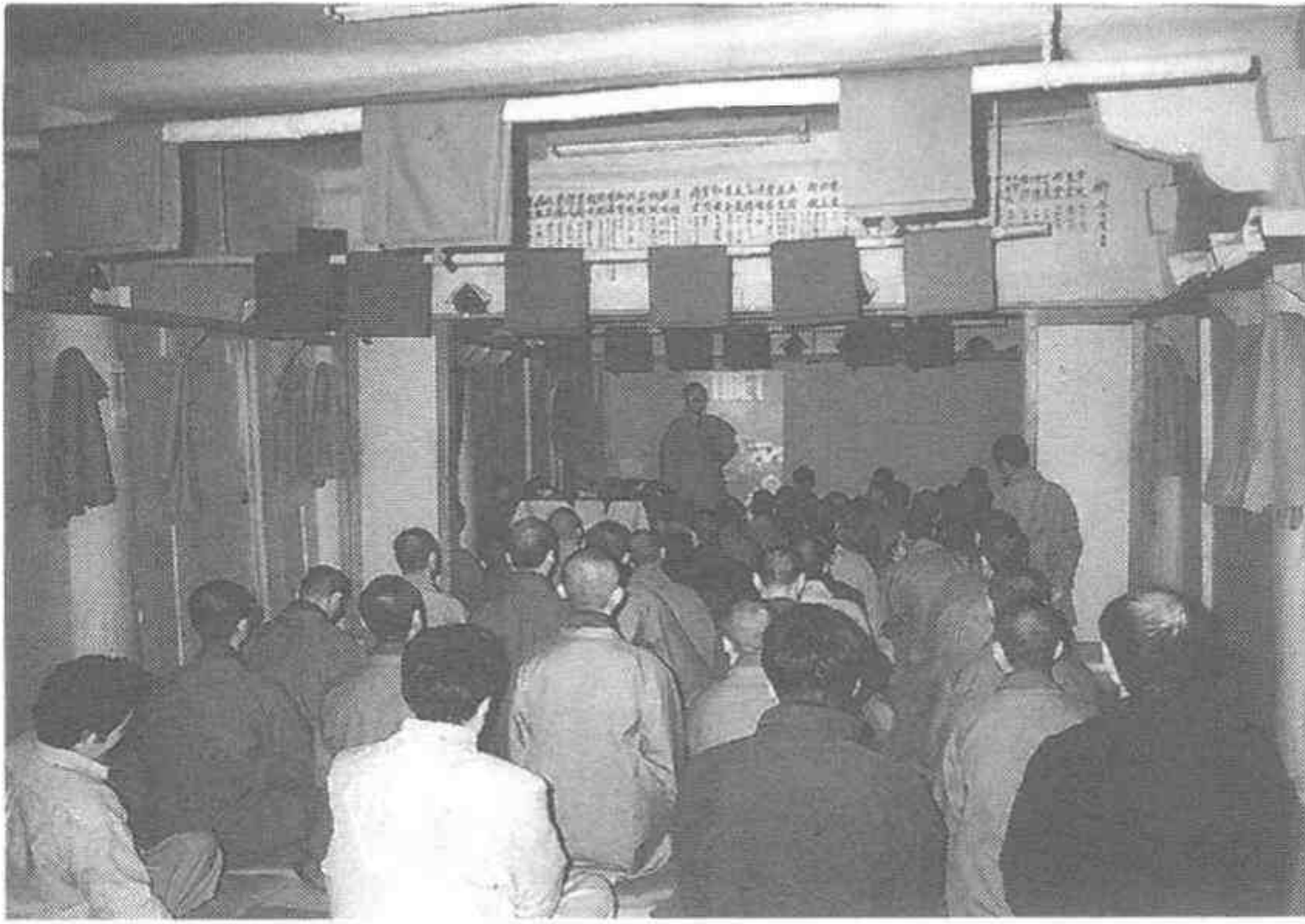
### 오도암 체육행사

11월 18일 : 체육행사가 오도암에서 있었다. 체육행사란 다져진 몫으로 이번 동안거를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수행정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동안거 무장무애 기도

12월 4일-6일 : 동안거 결제동안 무장무애를 비는 참히 발원 기도를 올렸다. 108 대참회문을 읽어 내





려가며 절을 하는 스님들의 표정에서 숙연함을 읽을 수 있었다.

#### 티벳 성지순례 슬라이드 상영

12월 5일-6일 : 저녁 예불을 마친 후 해청당 큰방에서 현장스님(보성 대원사 주지)을 모시고 '티벳 성지 순례'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다. 지난 '87년과 올해 두 번에 걸쳐서 티벳을 여행하면서 달라이 라마를 친견하기도 했던 스님은 티벳 곳곳에 퍼져 있는 사찰과 성보뿐만 아니라, 그곳 수행자들의 생생한 수행생활을 카메라에 담아 흥미진진한 화면을 꾸며 주셨다. 현장스님께 두손 모아 감사드린다.

#### 동안거 결제 포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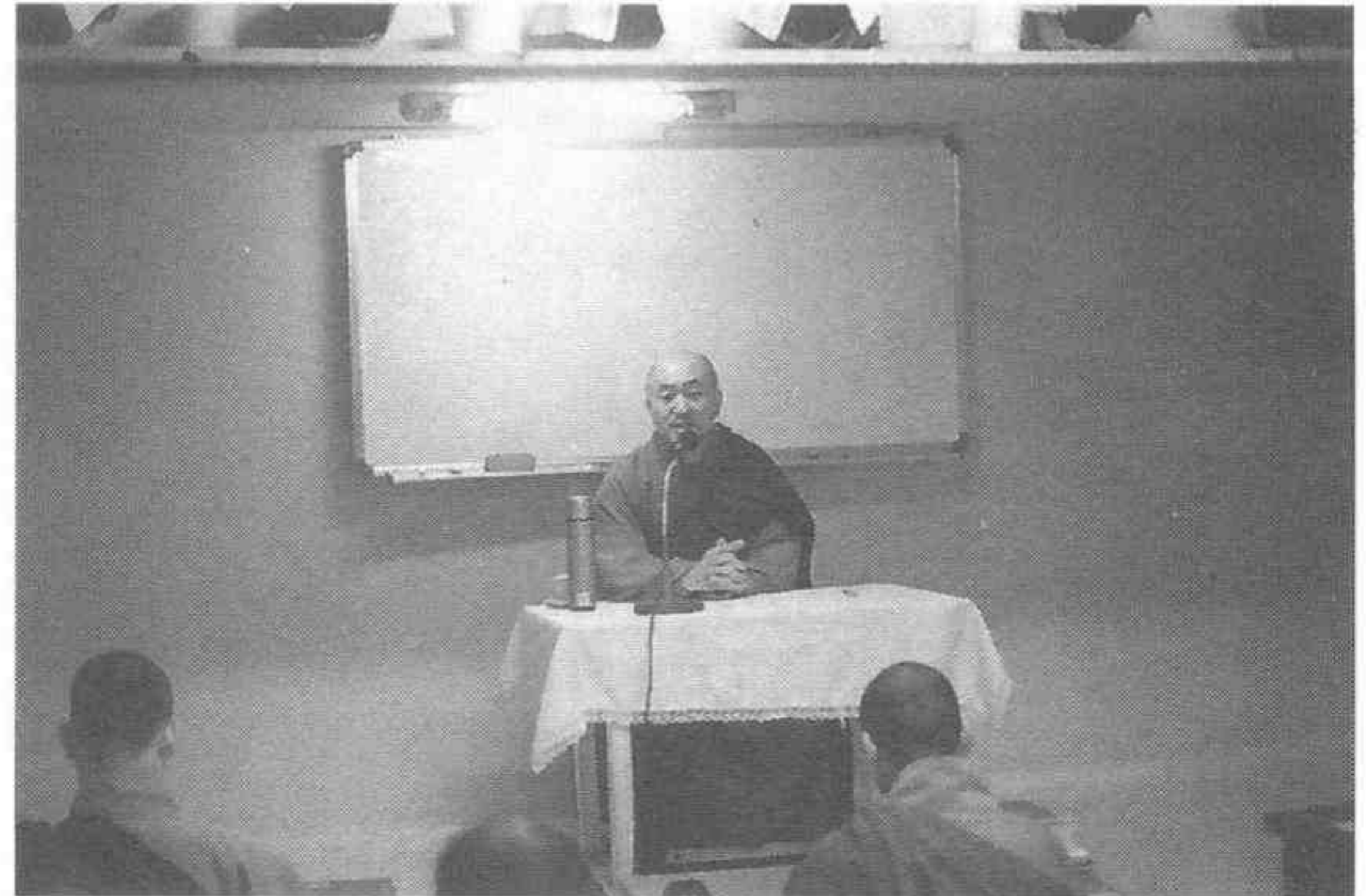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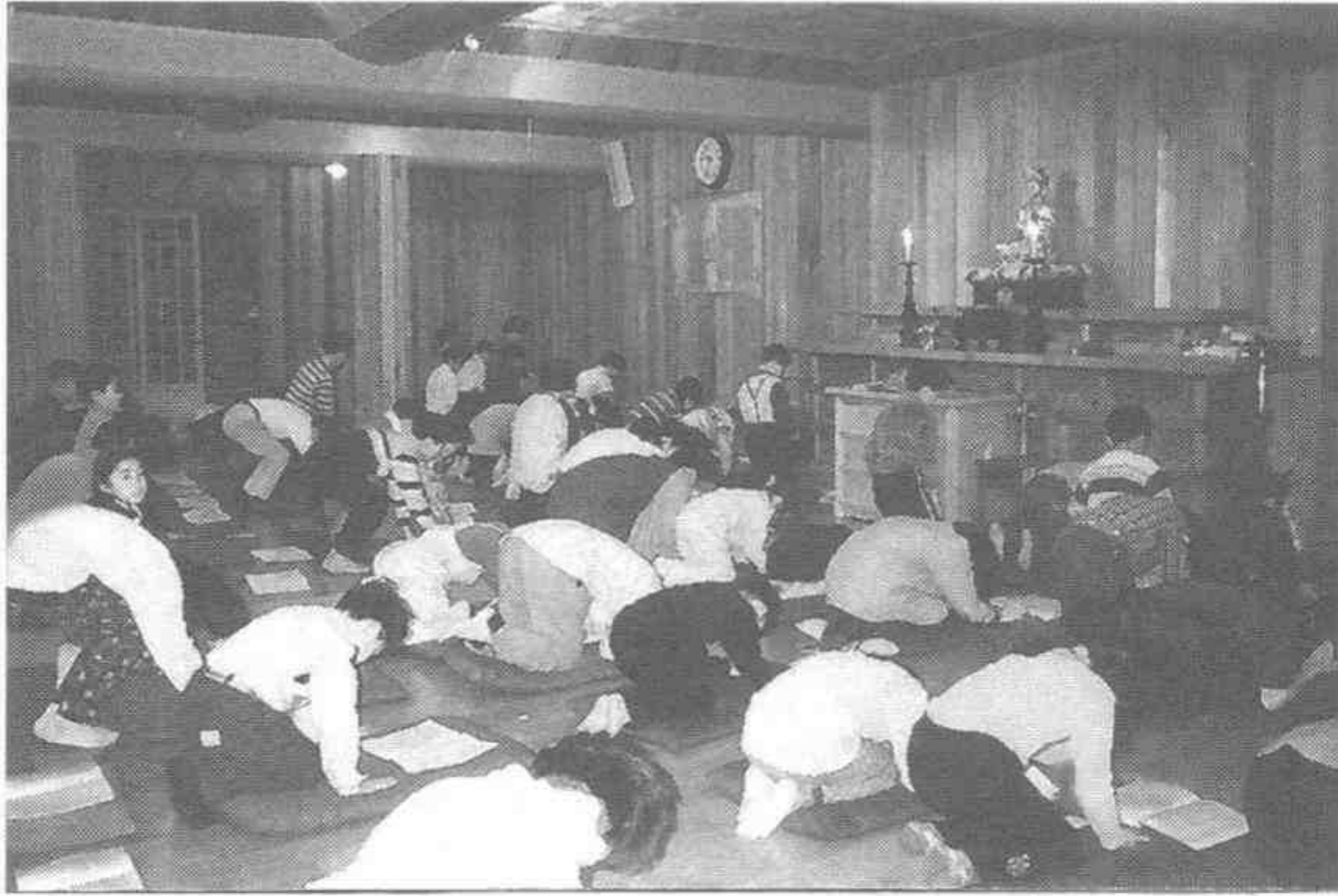
12월 7일(음력 10월 15일) : '동안거 결제일'을 맞아

해청당 큰방에서 오전 8시에 법랑경 보살계 포살과 오후 한시에 방장 스님의 결제 법어가 있었다. 이번 동안거 결제에는 선원, 육원, 강원, 종무소 등에서 100여 명의 수행자들이 모여 한겨울의 추위를 녹이는 수행정진에 들어갔다.

#### 김장 울력

12월 9일-10일 : 이튿동안 총집의 모든 대중들이 힘을 합쳐, 겨울반양식인 김장을 했다. 9일에는 밭에서 배추를 뽑아 큰절로 운반, 다듬어 절이는 일을 했고, 10일에는 절여진 배추를 계곡물에 잘 씻어 양념을 버무려 독에 넣는 순으로 김장울력을 모두 마쳤다.





### 불교학개론 특강

12월 16일- : 16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해침당 큰 방에서 진옥스님(석천사 주지)의 불교학개론 강의가 진행중이다. 인도의 역사와 불교사로 시작된 이번 특강은 인도의 불교성지를 참배하시고 직접 제작하신 슬라이드 상영도 있었다.

### 고등학생을 위한 성교육

12월 17일 : 순천 대승사 학생회(지도법사 노휴) 주최로 '고등학생을 위한 성교육'이 순천시민회관에서 있었다. '구성애의 성교육'의 저자 구성애씨가 강연한 이번 행사는 송광사 종무소에서 후원했다.

### 어린이회 겨울 수련회

12월 26일-29일 : 26일부터 2박3일 동안 송광사 어

린이법회가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다. 90명 정도 참가한 수련회는 첫날 해인사 백전앞에서 1080배, 둘째날 무주리조트에서 눈썰매를 타고, 엑스포 과학공원에 들러 과학관을 관람했다.

### 조계산 계곡 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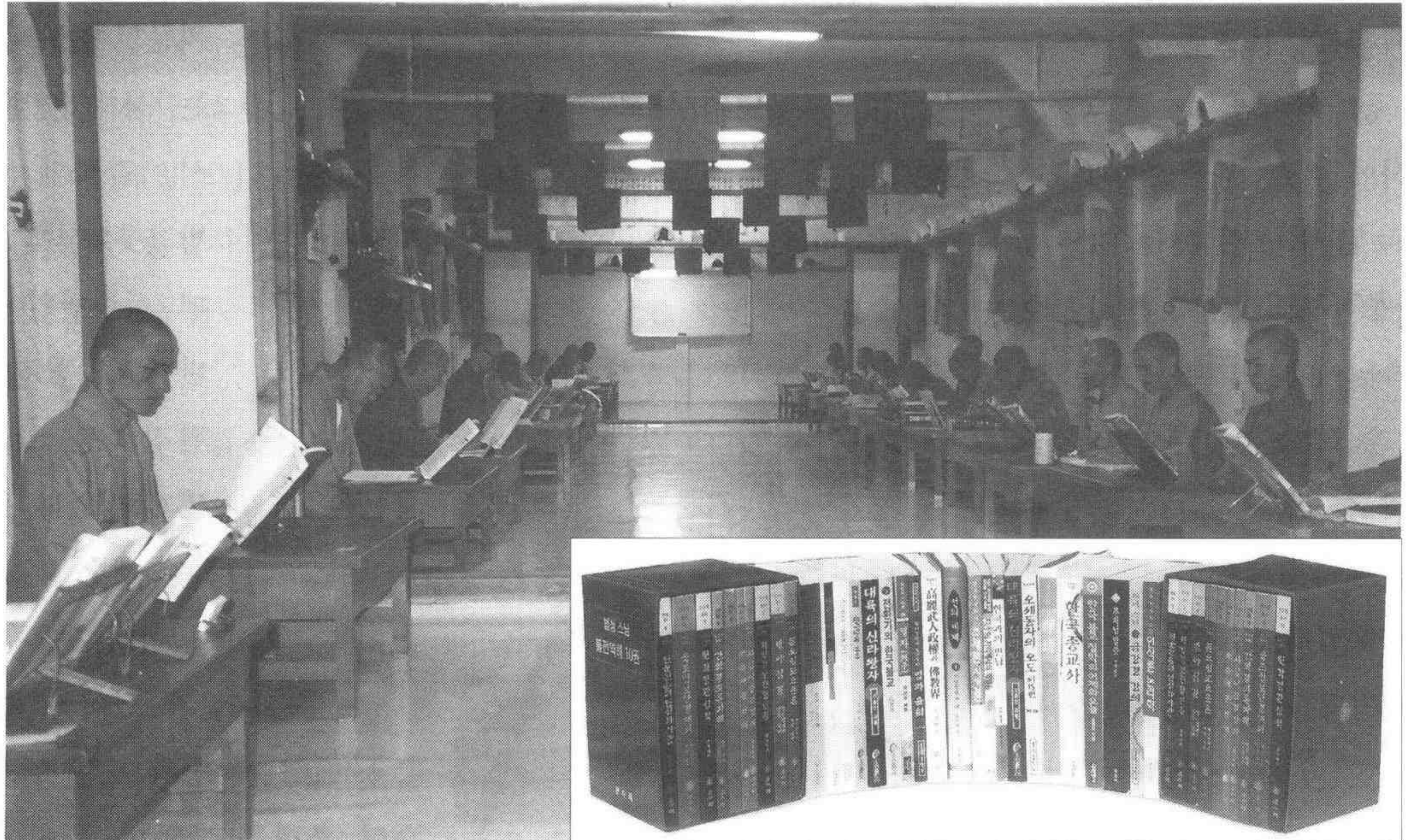
1월 4일 : 사시공양을 마치고 조계산 계곡 청소를 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수고해 주신 대종스님들께 감사드린다.

### 반결제 소풍

1월 22일 : 동안거 반결제를 맞아 겨울 소풍을 다녀왔다. 고경스님의 안내로 선내의 암자터를 답사했다. 대부분이 6.25 때 소실됐다는 암자는 무성한 수풀에 쌓여 옛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 도서를 기증 받습니다



### 책을 보내 주십시오

강원스님들이 사는 해청당에는 하루 종일 경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취침을 알리는 삼경종이 울린 후에도 뜨거운 구도심으로 밤늦게까지 도서관을 밝히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송광사 강원의 도서관에 장서를 밝히기 부끄러울 정도로 읽을 만한 책이 많지 않습니다.

한국불교의 앞날이 구도심에 불타는 젊은 스님들에게 달려 있는만큼 학인스님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을 보내 주십시오.

불서 중에서도 경전, 어록, 연구논문, 학술지, 수행지침서, 사전 등을 보내 주시면 좋겠고, 그밖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이면 무조건 환영합니다. 보시 중에 제일은 법보시라고 합니다. 한국불교를 꽃피울 인재를 키우는 불사에 수희동참하셔서 많은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 법보시하신 분들

법성스님(교육원 역경위원장, 큰수레 총서 2질), 이경순(부산 영광도서, 단행본 20권), 김주환(부산 부다가야, 단행본 20권), 박경채(전남 장흥군, 금성판 국어대사전)



“운문은 나의 화두가 되었어요.”

해마다 보조국사 종재일이면 송광사에 와서 다각을 맡아주시는 ‘운문’ 편집장 보련스님에게 이 말을 듣고, 어쩌면 나하고 그리 똑같은 생각을 할까 감탄했었다.

해청당 편집 소임을 맡은 것이 재작년 가을부터니까, 벌써 이 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해청당을 만들자는 얘기를 처음 꺼낸 이는 지금 프랑스로 출사해 가 계신 지묵스님이었다. 지금은 우유를 배달해 마시고 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아침공양 때 분유를 타서 돌렸는데, 공양을 마치고 여럿이 큰 방에 둘러앉아 따끈한 우유를 마시는 재미가 쏠쏠했었다. 그때 총무 소임을 보시던 지묵스님이 ‘송광사 강원도 학인이 삼십 명 가까이 늘었으니, 그에 걸맞게 문집을 하나 만들어내

## 해청당 소임을 놓으며

보원/사교



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다. 스님께서 스무 해 넘게 제방을 다녀왔지만, 송광사강원만큼 청정하고 여법하게 사는 곳이 드물다고 하면서, 송광사 학인들의 이야기를 잘 묶어내면 스님들뿐 아니라 신도들에게도 아주 환희심나는 일이 될 거라고 하셨다.

강원스님들이 모두 그거 좋다고 맞장구를 쳐서, ‘해청당’이란 이름 고양이 목에 방울다는 일만 남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창간 준비에 들어가니까,

맨 윗반이었던 사교반은 사집반에게, 사집반은 다시 치문반에게 떠넘기는 사태가 벌어져서, 결국엔 절집 밥그릇 수에 밀려 맨 아랫반인 치문반에서 편집장과 편집위원 소임을 맡게 되었다.

그때는 치문반이 상하 두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한 반에서 세 명씩 모두 여섯 명이 총대를 댔는데, 강원엔 입방한 지 일년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여서 절집 사정에 어둡고,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매일 만나다시피 하며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짜내봤지만 별 뽀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다. 고생 고생해서 두달동안 창간 준비 1, 2호를 만들어내고, 상반 스님 셋마저 떨어져나가서 하반에 회일, 혜관스님하고 나, 햇병아리 셋이서 창간호를 만들게 되었다.

해청당 역사를 얘기하면서 회일스님을 빼놓을 수 없는데,



회일스님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지금 해청당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마스타, 읍셋, 대지밭이 등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를 자연스럽게 써서 혹시나 했는데, 알고보니 회일스님은 출가 전에 이름난 출판사 편집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편집 전문가였다.

그 스님이 편집장이 되면서 창간 준비가 순조롭게 풀려서 드디어 불기 2538년 3월1일 해청당 창간호가 이땅에 태어났다.

지금도 따끈따끈한 창간호를 받아보던 그 순간이 눈에 선하다. 장가를 가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첫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마음이 아마 그럴 것이다.

창간호를 지금 살펴보면 겉표지도 없는 약간 촌스런 모습이지만, 그때 반응은 대단해서 며칠만에 천 부가 다 나가버렸다. 창간호가 나오고나서 송광사스님들의 생각도 변했는데, 그전에는 울력이나 대중행사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하면 '뭘 중이 사진을 찍느냐'며 핀잔하던 스님들이 이때부터는 '이쁘게 찍어주세요' 하며 포즈

를 잡아주기까지 했다. 지금은 표지에 자기 사진을 실어달라고 은근히 로비하는 스님까지 생겼다.

해청당은 창간호에서부터 지난 가을에 나온 제7호까지 고집스럽게 지켜온 원칙이 있다.

첫째, 강원 학인들이 평소 살아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는 것이다. 가끔 웃통을 벗은 반바지 차림으로 공을 차는 스님들의 사진이 실려, 강주스님은 제발 그런 사진은 신지 말아달라고 하시지만....

둘째, 스님들이 쓴 원고만 신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가자의 글은 신지 않는다. 중고등 학생 수련회 소감문이 실렸던 제3호와 창간 첫돌기념호였던 제5호 말고는 재가자의 글은 찾아볼 수 없다.

셋째, 인쇄를 제외한 모든 편집과정을 스님들이 손수한다는 것이다. 기획에서 워드 작업, 편집디자인, 사진, 삽화까지 편집위원들이 직접 다하고, 절에 인쇄기가 없기 때문에 인쇄는 외부에 맡기고 있다. 이 점은 아마 불교출판물 중에서 해청당이 유일할 것이

다. 동안거를 맞아 겨울호(제8호)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해청당 창간 멤버였던 회일, 혜관스님은 송광사강원을 떠나 선방에서 참선수행하는 수좌가 되어 있다.

나도 이번 동안거를 마지막으로 해청당 소임을 놓게 되는데,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년간 편집소임을 맡으면서 가장 힘든 일은 원고를 모으는 일이었다. 이번에도 원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아 백일장 (말이 백일장이지 사실은 원고 울력)을 했지만, 40여 명 되는 학인들이 15편쯤 실리는 원고를 써낸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송광사강원 스님들이여! 바라옵건대 제가 편집 소임을 그만두더라도 원고 좀 제발 제때에 써 주옵소서.'

부처님께서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 애착을 갖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는 아직 공부 안 되어서 그런지 이런 말로 해청당에 고별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청당이여! 영원하라.'



# 고산원법사면학

- 孤山圓法師勉學 下 -

출전 : 치문 · 역 : 기함/치문

夫聖且賢必務於學聖賢以下安有不學而成人哉學猶飲食衣服也人有聖乎賢乎衆庶乎雖三者異而飢索食渴索飲寒索衣則不異矣學也豈得異乎惟禽獸土木不必學也嗚呼愚夫嗜飲食而不怠冒貨利而不休及就于學朝學而夕怠者有矣夫有春學而冬怠者有矣夫苟如耆飲食冒貨利之不知怠者何患於不爲博聞乎不爲君子乎曰世有至愚者不辨菽麥之異不知寒暑之變豈令學耶豈可教耶曰至愚由不教也由不學也苟師教之不倦彼心之不怠者聖域可躋而陞乎何憂菽麥之不辨乎且愚者渴而知飲飢而知食寒而知衣既知斯三者則與草木殊矣惡乎不可學也不可教也人之至愚豈不能日記一言耶積日至月則記三十言矣積月至年則記三百六十言矣積之數年而不怠者亦幾於博聞乎又日取一小善而學行之積日至月則身有三十善矣積月至年則身有三百六十善矣積之數年而不怠者不亦幾於君子乎爲愚爲小人而不變者由不學耳中庸子喟然歎曰吾嘗見恥智之不逮才之不敏而輟於學者未見取飲食不如他人之多而輟飲食者輟飲食則殞其命何必恥於不多耶輟學問則同夫禽獸土木何必恥才智之不如他人耶苟恥才智不如而不學則亦應恥飲食不如他人則廢飲食以是觀之豈不大誤乎吾亦至愚也每揣才與智不逮他人者遠矣由知飲食之不可輟而不敢怠於學也行年四十有四矣雖病且困而手未嘗釋卷所以懼同於土木禽獸耳非敢求臻聖域也亦非求乎聞達也雖或徜徉戶庭夷猶原野以暫頤養目觀心思亦未嘗敢廢於學也由是登山則思學其高臨水則思學其清坐石則思學其堅看松則思學其貞對月則思學其明萬境森列各有所長吾悉得師而學之萬境無言而尚可學況人之能言雖萬惡必有一善也師一善而學之其誰曰不然乎中庸子曰世有求之而或不得者也世有求之而必得者也求之而或不得者利也求之而必得者道也小人之於利也雖或萬求而萬不得而求之彌勇君子之於道也求之必得而望途懷恟自念力不足者此求利小人之罪耳仲尼曰仁遠乎哉我欲仁斯仁至矣言求之而必得也

**성**인과 현인도 반드시 배움에 힘쓰는데, 성현이 못되는 사람이 어찌 배우지 아니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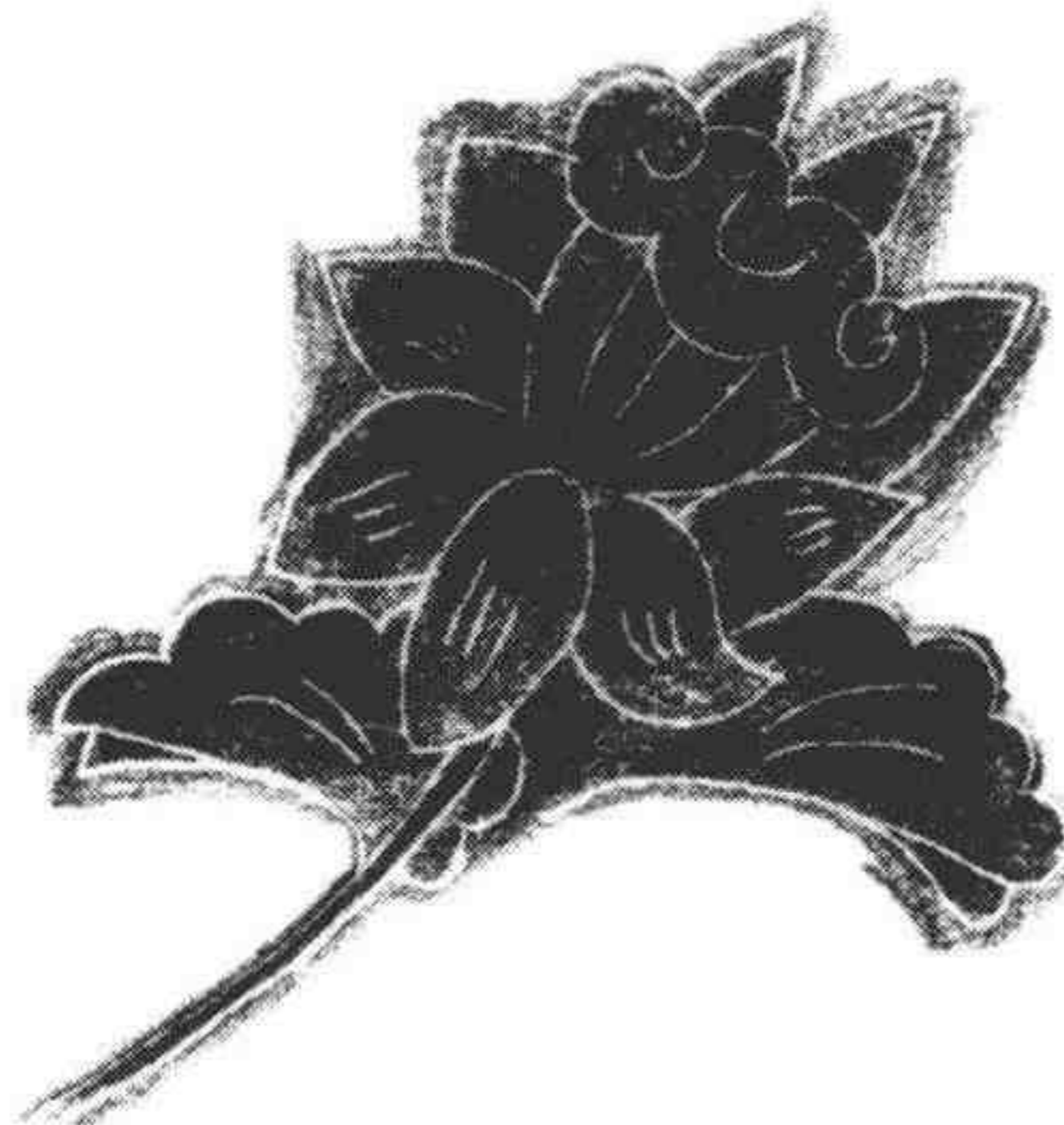
배움은 마치 음식, 의복과 같은 것이다. 사람에는 성인, 현인, 보통사람이 있다. 비록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서로 다르지만,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구하고, 추우면 입을 것을 찾는 것은 다르지 않으니 배움인들 어찌 다르겠는가. 금수와 초목은 꼭 배우지는 않는다. 슬프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음



지극히 어리석은 것은 기르치지 아니한 까닭이며 배우지 않은 연고니, 실로 스승의 가르침이 게으르지 않고,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 게으르지 않다면 누구나 성인의 경지에 오를 것인데 어찌 콩인지 보리인지 분별하지 못할 일을 근심하겠는가

식을 즐기는 것은 게을리하지 않고, 재물과 이익은 끊임없이 탐하면서도 배움에 나아가서는 아침에 배우다가 저녁에 게을리하는 이가 있고, 봄에 배우다가 겨울에 그만두는 이가 있다. 진실로 음식을 즐기고 재물과 이익을 탐하는데 열심인 것처럼 공부를 한다면 누군들 학자와 군자가 되지 못하겠는가. 세상에 지극히 어리석은 자가 있어, 콩과 보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의 변화도 알지 못하니 어찌 가르칠 수 있겠는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은 기르치지 아니한 까닭이며 배우지 않은 연고니, 실로 스승의 가르침이 게으르지 않고,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 게으르지 않다면 누구나 성인의 경지에 오를 것인데 어찌 콩인지 보리인지 분별하지 못할 일을 근심하겠는가. 또한 어리석은 이도 목이 마르면 마실 줄 알고, 배고프면 먹을 줄 알며, 추우면 옷입을 줄 알아서 초목과는 다른 것이니 어찌 배울 수 없으며 가르치지 못하겠는가. 사



람이 지극히 어리석다고 한들 하루에 한 가지의 말도 기억하지 못하겠는가.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삼십 가지 말을 기억할 것이요, 달이 가고 해가 가면 삼백육십 가지 말을 기억할 것이니, 이렇게 몇 년을 게으름피지 않고 공부한다면 유식한 사람이 되지 않을 이가 없을 것이다. 또 날마다 한 가지씩 착한 일을 배우고 행하여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서른 가지 선이 쌓일 것이요. 달이 가고 해가 가면 삼백육십 가지의 선이 쌓일 것이니 몇 년을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군자가 될 것이다. 어리석은 이가 되고 소인이 되어 변하지 않는 자는 배우지 아니한 까닭이다. 공자가 탄식하며 이르기를 내 일찍이 지혜가 모자라고 재주가 민첩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배우기를 그만두는 이는 보았으나, 음식이 다른 사람의 음식과 같이 많지 않음을 부끄럽게 여겨 밥먹는 것을 그만두는 이는 아직 보지 못하였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목숨



삼라만상에 제각기 장점이 있으므로 나는 모두 스승으로 삼아 배웠다. 말없는 자연에서도 배울 것이 있는데,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아무리 악인이라도 한 가지 착한 점은 있는 법이니, 한가지 선을 스승삼아 배운다면 그 누가 그르다 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 떨어지는 것이니 어찌 반드시 음식이 많지 않음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재주와 지혜가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이 여겨 배우지 아니하면 금수 초목과 같아질 것인데 어찌 재주와 지혜가 남만 못하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참으로 재주와 지혜가 남만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배우기를 그만둔다면, 음식이 남만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밥먹기를 그만둬야 할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어찌 크게 그릇된 일이 아니겠는가. 나도 또한 지극히 어리석어 항상 재주와 지혜가 남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을 헤아린 지가 오래이건만 밥먹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이가 마흔넷이라 병들고 고달프나 손에서 일찍이 책을 놓지 아니한 것은 금수와 초목 같이 될까 두려워한 까닭이요, 감히 성인의 영역에 이르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며, 입신출세를 구하는 것도 아니다. 비록 뜰을 배회하고 들녘을 거닐면서도 늘 정신을 가다듬고, 일상생활에서 잠시도 배움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산에 오르면 그 높은 것 배우기를 생각하고, 물가에

가면 그 맑은 것 배우기를 생각하고, 돌에 앉으면 그 굳은 것 배우기를 생각하고, 소나무를 보면 그 곧은 것 배우기를 생각하고, 달을 대하면 그 밝은 것 배우기를 생각하는 것이니 삼라만상에 제각기 장점이 있으므로 나는 모두 스승으로 삼아 배웠다. 말없는 자연에서도 배울 것이 있는데,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아무리 악인이라도 한 가지 착한 점은 있는 법이니, 한 가지 선을 스승삼아 배운다면 그 누가 그르다 할 사람이 있겠는가. 공자가 이르되 ‘세상에 구하여도 혹 얻지 못하는 것이 있고, 구하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으니, 구하여도 혹 얻지 못하는 것은 이익이요, 구하면 반드시 얻는 것은 도(道)이다. 소인은 이익을 비록 한번 구하여서 한번 얻지 못하여도 구하기를 더욱 힘쓰고, 군자는 도를 구하면 반드시 얻을 것인데, 스스로 힘이 부족하다 하여 도를 구하지 않으면 이익을 구하는 소인만도 못하다.’ 하였다. 공자가 “인(仁)이 멀겠느냐? 내가 인하고자 하면 인이 이른다.” 하였으니,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는 말이다.



# 사종의 대의

- 四宗大義 -

출전 : 절요 · 역 : 도은/사집

禪門之旨在乎內照非筆可述非言可宣熒言雖不及猶可強言筆不可及熒尤難下筆今不得已而書之熒望照之於心無滯於文矣熒荷澤意者謂諸法如夢諸聖同說故妄念本寂塵境本空熒空寂之心靈知不昧卽此空寂之心是前達磨所傳清淨心也熒任迷任悟心本自知熒不藉緣生不因境起迷時煩惱知非煩惱悟時神變知非神變熒然知之一字是衆妙之源由迷此知卽起我相計我我所愛惡自生隨愛惡情卽爲善惡善惡之報受六道形世生生循環不絕若得善友開示頓悟空寂之知寂知且無念無形誰爲我相人相覺諸相空心自無念熒念起卽覺覺之卽無熒修行妙門唯在此也熒故雖備修萬行唯以無念爲宗但得無念則愛惡自然淡薄悲智自然增明罪業自然斷除功行自然增進熒於解卽見諸相非相於行卽名無修之修熒煩惱盡時生死卽絕生滅滅已寂照現前應用無窮名之爲佛熒北宗意者衆生本有覺性如鏡有明性煩惱覆之不現如鏡有塵暗若依言教息滅妄念念盡則心性覺悟無所不知如磨拂昏塵塵盡則鏡體明淨無所不照熒洪州意者起心動念彈指動目所作所爲皆是佛性全體之用熒更無別用全體貪嗔癡造善造惡受苦受樂皆是佛性如麵作種種飯食一一皆麵熒意以推求此身四大骨肉喉舌牙齒眼耳手足並不能自語言見聞動作假如一念命終全身都未變壞卽便口不能語眼不能見耳不能聞脚不能行手不能作熒故知能語言動作者必是佛性熒且四大骨肉一一細推都不解貪嗔癡熒故貪嗔煩惱並是佛性熒佛性體非一切差別種種而能造作一切差別種種體非種種者謂此性非凡非聖非因非果非善非惡無色無相無去無往乃至無佛無衆生也熒能作種種者謂此性卽體之用熒故能凡能聖能因能果能善能惡現色現相能佛能衆生乃至能貪嗔癡等熒若覈其體性則畢竟不可見不可證如眼不自見等若就其應用則舉動運爲一切皆是佛性熒更無別法而爲能證所證彼意準楞嚴經云如來藏是善不善因熒能遍興造一切趣生受苦樂與因俱又云佛語心爲宗又云或有佛刹揚眉動目笑欠警欬或動搖等皆是佛事既悟解之理一切天真自然熒故所修行理宜順此而乃不起心斷惡修善亦不起心修道道卽是心不可將心還修於心惡亦是心熒不可將心還斷於心不斷不修任運自在名爲解脫人熒無法可拘無佛可作猶如虛空不增不減何假添補景何以故心性之外無一法可得故但任心卽爲修也牛頭宗意者諸法如夢熒本來無事心境本寂熒非今始空迷之謂有卽見榮枯貴賤等事熒事既有相違相順故生愛惡等情情生則諸苦所繫夢作夢受何損何益景此能了之智亦是夢心乃至設有一法過於涅槃亦如夢幻既達本來無事熒理宜喪已忘情情忘則絕苦因方度一切苦厄此以忘情爲修行也熒

선문의 뜻은 안으로 비추는데 있어서 글과 말로는 그 뜻을 나타낼 수 없다. 그 중에서도 글로 표현하기가 더욱 어렵지만 하는 수

없이 쓰는 것이니 마음으로 비춰 보고 글에는 걸리지 않았으면 한다. 하택의 뜻을 밝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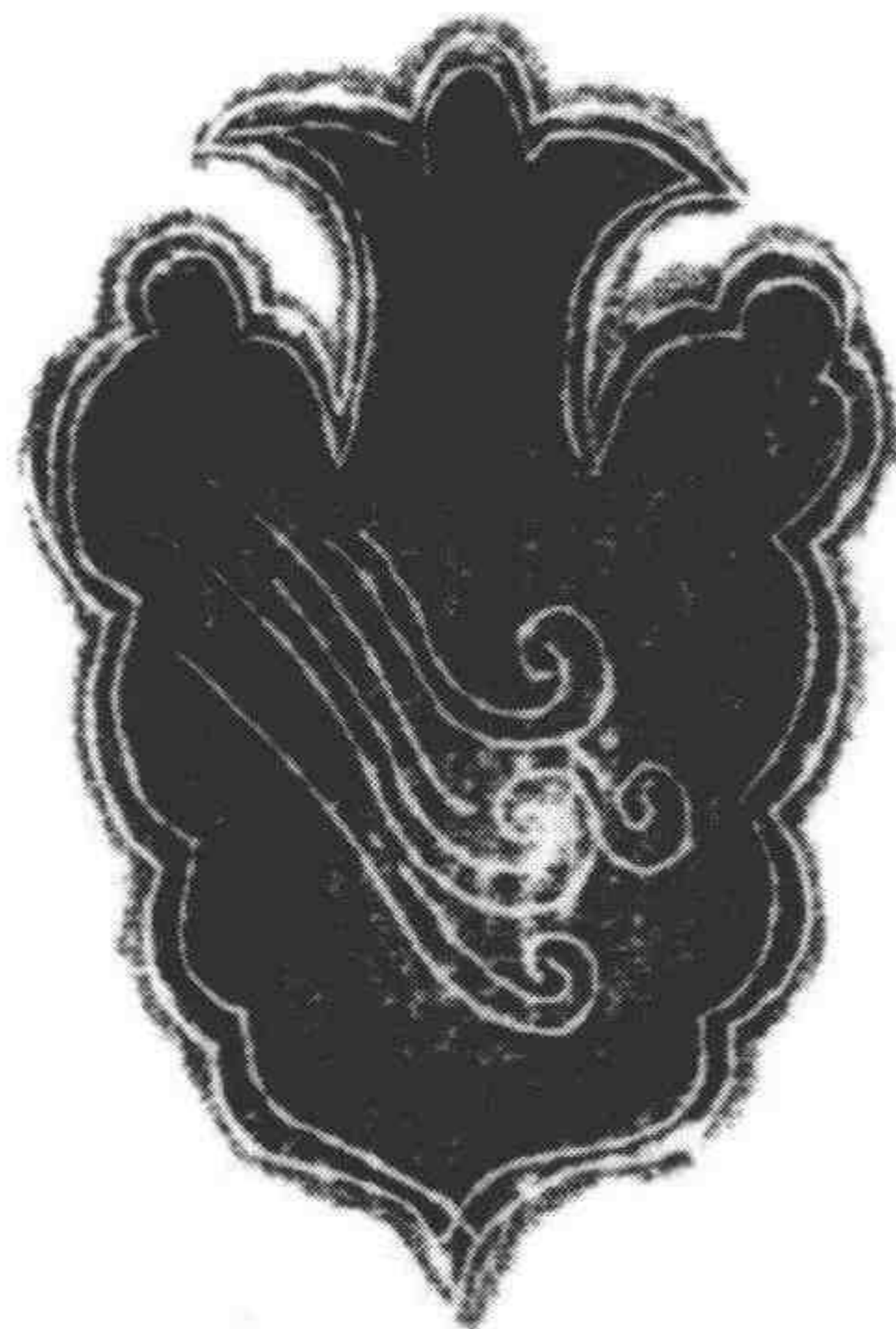


여러 성인들께서도 모든 법이 마치 꿈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헛된 생각과 세상의 경계가 본래 고요하고 텅비어 신령스럽게 알면서도 어리석지 않으니 이러한 공적인 마음이 바로 옛날 달마로부터 전해진 청정한 마음이다.

깨달았거나 미혹하거나 마음은 본래부터 스스로 알고 있어 인연에 의해 생기는 것도,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미혹할 때는 번뇌지만 앓은 번뇌가 아니고, 깨달았을 때는 신통변화지만 앓은 신통변화가 아니다. 그러나 앓이라는 한 글자는 바로 온갖 묘리의 근원이니 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이 일어난다.

“나”와 “내 것”을 헤아려 사랑과 미움이 생기고 이러한 감정을 따르니 선악을 행하게 된다. 이 선악의 과보로 육도(六道)의 형상을 받아 세세생생에 끊임없이 윤회한다. 만약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문득 공적인 앓를 깨달아도 이 앓 또한 생각이나 형상이 없으니 누가 나와 남이라는 집착을 하겠는가! 모든 형상이 공함을 깨달으면 마음은 저절로 분별이 사라지고, 분별이 일어남을 바로 알아차리면 그 분별도 없어질 것이다. 수행의 묘한 문이 오로지 여기에 있으니 비록 여러 가지 수행을 할지라도 오직 분별이 없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념(無念)의 경지에 오르면 사랑하고 미워함이 자연히 줄어들고 자비와 지혜는 더욱 밝아져서 죄



업은 끊어지고 공덕의 행은 저절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깨달음의 입장에선 보이는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니고, 수행의 입장에선 닦아도 닦는 것이 아니다. 번뇌가 다 없어져야 생사가 끊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요한 빛이 앞에 나타나서 끊임없이 비칠테니 이것을 바로 부처라 한다.

북종의 뜻을 밝히겠다.

중생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성품은 마치 거울에 있는 밝은 성질과 같고, 번뇌에 덮혀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거울에 때가 끼어 어두운 것과 같다. 만약 경전의 가르침대로 망령된 생각을 쉬어 다 없애면 마음의 성품을 깨달아서 모르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니 마치 더러운 먼지를 털어서 다 없애면 거울 전체가 맑고 깨끗해져서 비추지 못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홍주의 뜻을 밝히겠다.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하며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으로 보는 등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부처님 성품에 있는 전체(全體)의 작용이다. 따로 다른 작용이 없으니 전체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써 선악을 행하고 고통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 모두 불성이니, 마치 밀가루로 만든 갖가지 음식을 분석하면 모두 밀가루인 것과 같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이 몸의 구성요소인 뼈와 살, 목구멍, 혀, 이빨, 눈, 귀, 손, 발이 모두



다 스스로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니 가령 목숨이 끊어진 후에 온몸이 다 썩지도 않았지만 입으로는 말할 수 없고 눈으로는 볼 수 없으며 귀로는 들을 수 없고 다리로는 걸을 수 없으며 손도 움직일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름아닌 불성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육신을 낱알이 살펴봐도 도무지 탐냄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탐진번뇌가 바로 불성인 것이다. 불성의 본체는 여러 가지 차별이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을 조작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차별이 아니라 한 것은 이 성품이 범부와 성인, 원인과 결과, 선과 악도 아니며 색상도 없으며 가고 머무는 것도 없으며 심지어 부처나 중생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조작할 수 있다 한 것은 이 성품은 곧 본체의 작용이므로 범부와 성인, 원인과 결과, 선과 악도 행할 수 있고 색상으로 나타내며 부처와 성인도 될 수 있으며 심지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그 본체의 성품을 살펴본다면 결국에 보거나 증득할 수 없는 것이 마치 눈이 스스로를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그 작용을 살펴보자면 모든 행동이 불성이어서 다시 특별한 법이 없다. 이 뜻은 능가경에서 여래장이 선과 악의 원인이어서 육도(六道) 윤회 속에서 고통과 즐거움이 항상 따라온다고 한 것과, 부처님은 마음을 근본으로 삼고 눈을 껌뻑이고 입을 벌려 하품하고 기침하고 동요하는 등의 모든 일이 부처님의 일이라고 하신 것에 의거한 것이

다. 만약 이치를 깨달아 알았다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대로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러한 이치를 따라 수행할 것이요, 일부로 악을 끊고 선행을 하겠다거나 도를 닦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지니 도가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또한 마음을 닦을 수 없으며, 악도 이 마음이어서 마음으로써 마음을 끊을 수 없으니 끊거나 닦지도 않고 자유자재한 것을 바로 해탈인이라 한다. 법은 구속하는 것이 없고 부처는 조작하는 것이 없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붙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으니 애써 채워 넣을 것도 없다. 왜냐하면 마음의 성품 밖에서는 하나의 법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니 단지 마음에 맡겨 도를 닦아 나아가라.

우두종의 뜻을 밝히겠다.

모든 법은 꿈과 같아서 본래 일이 없는 것이다. 마음경계가 본래 고요해서 지금에야 비로소 텅비게 된 것이 아닌데 이 도리를 알지 못하니, 있다고 집착하여 번성하고 쇠퇴하고 귀하고 천한 일들을 보게 된다. 일은 현상을 따르거나 거스르기도 해서 갖가지 감정이 생기고 모든 고통이 얽히게 되지만, 결국 꿈속에 일인데 어찌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아는 지혜도 꿈 속의 마음이며 설령 열반보다 더 나은 법이 있다하더라도 역시 꿈과 같은 것이다. 이제 본래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 마땅히 헛된 감정은 없어질 것이고, 고통의 원인도 끊겨 사라질 것이다. 부디 헛된 감정을 없애는 것으로써 수행을 삼을지어다.



# 불일보조국사감로탑개수기

—佛日普照國師甘露塔改修記—

監修 : 현봉스님  
고경스님  
譯 : 정묵/사교

**헤**아려보건데 우리 국사께서 열반에 드신 것은 788년전 고려 희종 경오년(서기1210년) 3월27일이었다.

다비식에서 사리를 얻은 것이 큰 것은 30알 작은 것은 헤아릴 수가 없었다. 이에 수선사의 북쪽 기슭에 부도를 세우니, 주상께서 들으시고 크게 슬퍼하시며 시호를 불일 보조국사로, 탑호를 감로탑으로 이르시었다. 몇 년 후에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보조골 위쪽으로 내어 옮겨졌고, 조선 성종 정유(서기 1477년. 성종8년) 4월27일에 이르러 주지 육정스님이 옛터에 들어 모시었다. 숙종 정묘(서기 1687년. 숙종13년) 3월6일에 비구 해문스님이 다시 고봉의 등성 평탄한 자리 위로 옮기었고, 경종 계묘(서기 1723년. 경종3년) 4월16일에 주지 기인스님이 옛날 터로 들어

모시었다. 영종<sup>1)</sup> 을유(서기 1765년. 영조41년) 3월19일에 주지 창오스님이 세 번째로 비전의 등성이 위로 옮기었으며, 6년이 지난 뒤 경인년(서기 1770년. 영조 46년) 11월12일 주지 승감스님이 옛날 터에 들어 모시고 담을 두르었다.

이제 158년이 지난 뒤인 병인년 (서기 1926년) 본사 주지 율암 찬의가 발원하고 자금을 출연하여 5월13일에 공사를 시작하였다. 8월27일에 탑을 열었고(해체하였고), 9월3일에 성스러운 사리를 모신 자기(사리구)를 드러내어 설법전에 봉안하여 향공을 베풀고 대중이 예배하고 살펴보니, 날날이 황금색이요 표면마다 자주색 연꽃송이라 상서로운 빛이 영롱한 곳에 아름다운 모습이 배나 더하여 치성하였다.

이 무슨 선근으로 영진(사리)에 참배하는가!

1) 英宗은 英祖의 誤記인 듯.

2) 雁塔 : ①범어로 Hamsa-stupa. 불탑을 말함. 西域記 9에 堵波는 巨婆(Hamsa)라하며 唐나라 말로는 雁이라 함.

② 당 현장 법사가 625년에 장안에 大慈恩寺에 세운 높이 300尺의 탑.

③ 옛날 이 가람에서 소승을 익히길 좋아하였다. 소승은 漸敎이므로 三淨肉을 먹으며 이가 람은 그 법을 행하여 名聲을 높이니, 그뒤에 三淨肉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였다. 어느날 비구가 경행을 하다가 갑자기 기러기가 나는 것을 보고 희롱하여 말하기를 “오늘 여러 僧衆이 먹어도 배를 채우지 못하니 보리살타는 마땅히 이때를 알으소서”하였다. 말이 끝나자 마자 한 마리의 기러기가 열을 벗어나그 僧 앞에 떨어져서 숨을 거두었다.





불일보조국사 사리탑과 감로탑  
개수비-송광사내 팔경 중 하나  
로 관음전 뒷편에 자리잡고 있다.

춤출듯이 기뻐하고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하며,  
그 흠모함을 억누를 수 있으리오!

같은 달 18일에 탑 깊은 곳에 모시고, 안탑(雁  
塔)<sup>2)</sup>에 치대를 한층 높이고 30계단을 만들었다.

20일에 봉탑식을 거행하였고, 10월6일에는 공  
사에 사용된 금액을 보고하였는데 일천이백여원  
이었다.

한해 뒤 정묘년(1927년)가을에 삼직 등 대중  
이 발의하여 그 공덕이 잊혀질까 염려되므로,

자구(字句)를 다듬어 돌에 새기었다.

명(銘)하여 말한다.

법의 젓은 조계를 길게 하며  
단월의 공덕은 송령을 높이니,  
불일은 법계를 밝히고  
감로는 선경을 적시네.

□ □<sup>3)</sup> 2년 정묘 음력 10월

금명 보정<sup>4)</sup> 삼가 글을 짓고  
춘곡 재영이 쓰다.

비구가 이것을 보고 여러 대중 스님들에게 사실을 갖추어 아뢰니 듣는 이마다 悲感하여 서로 말하기를  
여래가 법을 설하시매 근기를 따라 인도한다 하시었는데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漸教를 따라 행하였다.  
대승은 바른 이치이니 마땅히 앞서의 집착을 치고 성스러운 가르침에 따르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이 기러기가 警戒를 주니 진실로 道를 밝힌 것이다. 의당 厚德을 나타내야 한다”하고 전하는 기록의 例에  
따라서 솔도파를 세우고 기러기의 남긴 뜻을 기리며 죽은 기러기를 그 밑에 묻어 주었다>고 함. 마갈타국  
의 인타라세라루하의 동쪽 봉우리에 있다고 전해진다.

3) 쫓아낸 두 글자는 정황으로 보아 일본 연호인 昭和가 확실함.

4) 금명 보정(1861. 1. 19 ~ 1930. 3. 13) : 곡성군 석곡면 운월리에서 나심. 字는 茶松 號는 錦溟(諱는 寶鼎,  
또는 添華) 姓 金海김씨. 고종 12년 (1875년) 송광사에 출가. 여러 스승을 찾아 두루 내전을 익히고 고종  
29년 용화스님에게 전강하시고 여러 곳 에서 강을 하심.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경시 교정편집을 보심을 비  
롯하여 본사에서 세운 보명학교에서 교편을 생활하시고 송광사와 제방의 강사를 역임하셨다. 일생을 육영  
으로 자신의 소임으로 삼으시고 많은 記事를 성실히 남기시어 근래의 송광사 사적은 이분의 공덕임. 세수  
칠십 승랍 55세로송광사 보제당에서 입적하심.







# 규봉종밀과 보조국사의 和思想

— 都序와 節要를 중심으로 —

영경/사집

## — 目 次 —

- I. 머리말
- II. 본문
  - 1. 禪과 敎의 대립상
  - 2. 禪과 敎의 유래
  - 3. 會通思想과 佛性
    - (1) 규봉선사의 경우
      - ① 규봉선사의 선교 一元論
      - ② 根源으로서의 佛性
    - (2) 보조국사의 경우
      - ① 보조국사의 선교 一元論
      - ② 根源으로서의 眞心
- III. 맺음말

## I. 머리말

和란 일체의 대립과 矛盾에 대한 조화와 통일을 의미하며, 平和·和合·一乘·中道·無諍·和諍과 상통한다. 이 화의 문제는 부처님의 生涯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부처님의 敎說 전체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和의 理論이라고도 볼 수 있다.

有無의 상대적 개념을 극복한 중도사상이 그

렇고, 萬像이 相依相資적 存在임을 밝힌 緣起說이 또한 和이며, 因과 緣의 조화를 밝힌 因果의 法則이나, 행위의 規範(규범)을 제정한 모든 계율이 조화를 바탕으로 한 敎說이다.

和思想은 한국불교 사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最大의 중심과제로 취급되어 왔다. 일찍이 신라의 원효에서부터 和諍의 필요성은 절감되었고, 義天·普照·太古·西山을 거쳐오면서 모두가 和의 의미를 강조하고 和의 구체적인 방법을



궁구했으며, 그 가치를 추구해왔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和사상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여기서는 강원 四集科 과정의 都序와 節要를 통해 규봉스님과 보조국사의 和사상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 II. 본론

### 1. 禪敎의 對立像

규봉선사는 당시의 불교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頓敎 漸敎와 禪門에서 열어 보이신 頓門과 漸門을 살펴보면 두 敎와 두 門이 각각 부합하거늘 지금의 講하는 사람들은 점문의 뜻에만 치우쳐 드날리고, 선하는 사람들은 돈종만을 편벽되게 전파하여 선하는 사람과 강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면 호나라와 초나라가 막혀 있는 것 같다.(湖超之隔)”<sup>1)</sup>

“요즈음 제자들은 피차 근원에 어두워 마음을 닦는 사람은 경론을 다른 종이라 하고, 강설하는 사람들은 선문을 다른 법이라 여긴다.”<sup>2)</sup>

“지금의 禪者들은 흔히 義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단지 마음을 禪이라 하고, 강하는 사람은 흔히 법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단지 名을 잡아 의를 말하나니, 名을 따라 집착을 내므로 가히 회통하기 어렵다.”<sup>3)</sup>

선교뿐만 아니라 선문 내부에도 심각한 분쟁이 있음을 한탄한다.

“頓漸門 아래서는 서로 원수를 보는 듯하고 南北宗 가운데서는 서로 楚漢과 같이 대적한다.”<sup>4)</sup>

“남쪽의 혜능과 북쪽의 신수는 물과 불이 嫌하는 것 같고 하택과 홍주는 參商의 差인저”<sup>5)</sup>

그러면 규봉선사가 <법을 위하여(爲法)> <사람을 불쌍히 여겨(愍人)> 붓을 들지 않을 수 없었던 시대상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기원 후 401년 구마라지바의 도착으로부터 많은 경과 논서들이 번역되고, 수와 唐前期에 황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아 중국 불교는 천태와 화엄의 정묘한 교학 체계를 갖추며 절정기를 이룬다.

안록산의 난(755) 이후로는 당조의 중앙집권

1) 도서 p. 3 右

2) 도서 上6 左

3) 도서 上11 右

4) 도서 上13 左

5) 도서 上9 左



적 지배체제가 흔들리면서 강력한 지방 세력들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중앙 권력에 외면 당해 왔던 선종이 이들 지방 절도사나 신흥 관료들의 지지를 받아 중국 불교사의 주류로 등장하게 된다.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기 바로 전인 732년 하택신회가 無遮대회를 열어 돈오와 점수에 관한 활발한 사상 논쟁이 전개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결국 중국의 선불교는 인도 불교에 비해서 완전히 새로운 중국적 불교로 발전하게 된다.

규봉선사(780~841)는 교와 선이 사상적 발전의 극치를 이룬 이러한 시대에 태어났다. 선과 교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전개되어 선과 교는 물론 선교 각각 자체 안에서도 심각한 사상적 대립이 벌어지고 있었다.

보조 국사(1158~1210)가 사셨던 12세기 후반 고려 문벌 독재사회 또한 정치적, 종교적으로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다. 고려 건국 때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불교는 왕실과 깊은 유대를 가지면서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무신난 등 큰 사건들에 직접 가담하면서 극도로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다. 여기에 불교내에서도 종파 대립, 특히 선·교의 관계가 심각하였다. 문인에서 무인으로 권력의 헤게모니가 바뀌는 것과 맞물려 불교계는 교종 세력으로부터 선종으로 주도권이 바뀐다. 절요에 나타난 당시 선교인들의 폐단을 살펴보자.

“내가 요즈음 修心人들을 보니 문자를 의지하여 그 가르친 바 뜻에 나아가지 않고 바로 비밀한 뜻을 서로 전한 곳으로 도를 삼아 멍청히 한갓 수고롭게 앓아 졸며, 혹은 觀行에 있어서 마음을 잃고 錯亂하는 까닭에”<sup>6)</sup>

“제 마음의 열린 곳이 조금 있으면 解行의 깊고 얇은 것과 染習의 일고 사라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法慢만 많아 말마다 분수에 넘치고 도를 지나친다.”<sup>7)</sup>

“내가 교학자를 보니 권교의 말에 걸리어 眞과 妄을 따로 따로 집착함으로써 스스로 물러날 마음을 내고, 혹 입으로는 사사무애를 말하면서도 관행을 닦지 않으며, 제 마음에 깨달아 들어가는 비결이 있음을 믿지 않고”<sup>8)</sup>

규봉선사와 보조국사는 28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唐과 고려에 태어나 어지러운 시대를 사시면서, 당시 불교의 병폐를 막고 바른 믿음을 가져 정법을 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고 참다운 불교를 보여주기 위하여 혼연히 일어섰던 것이다.

## 2. 禪敎의 유래

두 분의 禪敎觀을 論하기 전에 먼저 禪敎의

6) 절요 1

7) 절요 32

8) 절요 31



분화 과정을 살펴보자.<sup>9)</sup>

인도불교에서는 教 밖에 따로 禪이 別立되지 않았던 것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三學 가운데 定이 있고, 六波羅密 가운데 第5禪(dhyana)波羅密이 있었다. 그러나 그 定과 禪那는 佛教的 心性修行上 가장 重要的 課程임에 틀림이 없다.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뒤 譯經, 研究學波時代가 이어졌는데, 南天竺에서 達磨가 옴으로 해서 선교 분화의 계기가 마련된다.

“달마는 相에 집착해 있는 당시 중국인들을 위해 달은 손가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以心傳心 不立文字’를 세웠다. 그러나 문자를 떠나 解脫을 설한 것은 아니고 金剛, 능가 두 경은 나의 心要라고 하여 찬탄했다.”<sup>10)</sup>

달마는 능가경 4권을 慧可에게 傳하였는데 능가경에는 ‘不依文字’의 趣旨는 나타나 있지만 不立文字를 표방하지는 않았고, 달마가 지었다는 血脈論에 ‘以心傳心 不立文字’가 나오나, 이 論은 어느 때의 著作인지 미상이지만 혜능 이후의 著作이라고 한다.

여러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혜능 이전에는 아직 禪宗으로서의 특색이 나타나지 않았고, 藉教悟心하면서 不依文字, 곧 文字, 言句에 집착하지 말고 忘言得旨의 觀心法을 강조해 왔을 뿐이다.

그리고 ‘不立文字 教外別傳’이라는 禪家の 標

語는 혜능 이후 수백 년까지 사용했던 예가 없다. 이 文句가 처음 사용된 것은 ‘拈花微笑’를 둘러싸고 일어났다. 拈花話는 중국 宋代의 문헌에 처음 등장하고, 그 뒤로 ‘不立文字 教外別傳’을 선가의 표식으로 삼으면서 一切教義와 經典을 無視하고 佛教 위에 祖師道가 있다고 표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統一新羅末 曹溪南禪이 전래되어 九山門波가 성립되고 禪優教劣 教外別傳의 표식을 높이 내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教宗을 굴복시키기 위해 중국에도 없는 眞歸祖師說(부처님이 因星悟道하고도 그것을 至極하지 못함을 알고 眞歸祖師를 尋訪하여 비로소 玄旨를 傳하였으니 깨달음이 教外別傳이라 한다.)을 造作하기에 이른다.

이와같이 해서 禪教는 치열한 대립 국면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 3. 會通思想과 佛性

#### (1) 圭봉선사의 경우

##### ① 圭봉선사의 禪教觀

圭봉선사는 말한다.

“經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禪은 부처님의 뜻이다. 모든 부처님의 마음과 입이 반드시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sup>11)</sup>

9) 선교 유래 관한 아래의 글은 고익진 박사의 관점을 위주로 했다.

10) 도서 上6 左

11) 도서 上6 右







“三教와 三宗이 다 한 맛의 法(一味法)이다. 먼저 三教를 가지고 三宗의 禪門을 증명한 뒤에 禪과 教를 함께 잇고 心과 佛을 고요히 한다. 모두 고요해지면 곧 생각 생각이 다 부처라, 한 생각도 佛心 아닌 것이 없고 함께 잇으면 곧 글귀마다 모두 禪이라 한 글귀도 禪教 아님이 없다... 말하는 것마다 妙方 아님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妙藥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다. ‘집착하면 글자마다 瘡疾이 될 것이고 통하면 글자마다 妙藥이 될 것이다.’ 하니 통하는 사람은 삼종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을 알 것이다.”<sup>16)</sup>

## ② 根源으로서의 佛性

그러면 원수처럼 심각한 대립을 보였던 다양한 佛敎思想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 정리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至極한 道는 하나로 돌아가고 精妙한 뜻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둘로 놓아 둘 수 없다.”<sup>17)</sup>고 했을 때 지극한 道가 돌아가는 바로 그 하나는 무엇일까?

규봉선사는 都序 첫 페이지에 ‘禪源’의 뜻을 말하면서 그것을 밝히고 있다.

“源은 일체 중생의 본래 깨달아 있는 참성품

(眞性)이다. 또한 佛性이라 부르며 心地라고도 부른다”<sup>18)</sup>

“하물며 이 참성품은 禪門의 根源일 뿐만 아니라 萬法의 근원인 까닭에 法性이라 부르고 또 迷惑하거나 깨닫거나 衆生의 근원이 되므로 如來藏藏識이라 부르며”<sup>19)</sup>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간에 衆生心의 참성품인 佛性은 절대적인 근원적 존재이다. 人間뿐만 아니라 존재의 참성품이라는 의미에서 말한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佛性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규봉선사는 佛性思想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열반경의 ‘一切衆生 皆有佛性’<sup>20)</sup>이라는 글을 인용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또한 敎法이 어느 곳으로부터 왔는가를 미루어 窮究해 보면 본래 世尊의 一眞心體로부터 흘러 나와서 그 당시 사람들의 귀와 요즘 사람들의 눈에 이르렀다. 그가 설한 바의 뜻도 단지 凡夫와 聖人이 의지한 바인 一眞心體로서...”<sup>21)</sup>

규봉선사는 부처님이 최초로 깨달았던 근원도, 그 후의 모든 중생이 깨달아야 할 근원도

16) 도서 下6 左  
17) 도서 上7 左  
18) 도서 上1 右  
19) 도서 上1 左  
20) 도서 下14 右  
21) 도서 下10 左



모두 불성에서 찾고 있다.

부처님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또 그에 대하여 갖가지로 해석하여 말하는 것이 다 불성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佛性思想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는, 첫째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本性이 있다. 둘째 이것은 미래에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셋째 佛性이라는 正因이 있으므로 緣因으로서 修行이라는 조건이 구비되면 成佛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思想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華嚴經 出顯品’인데, 규봉선사는 그 내용을 도서에서 두 번이나 길게 인용하게 된다.

“한 중생도 如來智慧를 갖추지 아니한 바가 없다.”<sup>22)</sup>

“단지 妄想執着으로 證得하지 못하다니”<sup>23)</sup>

“聖道を 닦고 익히게 하여... 如來無量智慧를 證하게 하여”<sup>24)</sup>

대승불교의 佛性사상은 如來藏 佛性 眞如心性등으로 표현되어 오다가 神會에 이르러 ‘知’라는 한 글자로 드러나게 된다.

규봉선사는 하택신회의 사상을 계승했고, 하택의 禪을 眞顯心性宗이라고 분류하면서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本性은 ‘知’라고 표방한다.

“妄念이 본래 고요하고 번뇌의 境界는 본래 비어 있다. 이 비고 고요한 마음(空寂之心)이 신령스럽게 알아 어둡지 않다. 이 비고 고요한 眞(空寂之知)이 바로 그대의 참성품(眞性)이다. 迷惑한 때나 깨달아 있을 때나 마음은 본래 아는 것이다... ‘知’라는 한 글자가 모든 神妙함의 門이다.”<sup>25)</sup>

## (2) 보조국사의 경우

### ① 보조국사의 禪教觀

보조국사는 선교 대립적 풍토 속에서 ‘과연 佛語인 教와 心宗이 다른 것일까’ 하는 의문을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 그러는 중 국사는 下柯山 普門寺에서 3년간 大藏經을 閱覽하다가,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華嚴經 如來出現品에서 禪教一元의 도리를 발견하고는 그 경을 머리에 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한다.

‘한 티끌이 대천세계를 머금었다’는 塵中經卷의 비유로 시작하여 망상만 여의면 바로 佛智라는 내용은 바로 禪門의 ‘離念即佛. 卽心是佛’의 취지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깨쳐 들어가는 門을 알지 못했는데 李通玄 長者의 華嚴論에서 凡夫의 無明 分別心이

22) 도서 上23 左

23) 도서 下11 左

24) 도서 上24 左

25) 도서 上16 右



바로 諸佛의 不動普光智임을 확신하고 바로 不退心을 이룬다는 教旨가 바로 禪門의 頓悟成佛과 같음을 알게 된다.

節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화엄론에 말한 것을 살펴보면 三乘中에서 十信心을 十千劫이 지내도록 닦아야 하지만, 이 教 가운데서는 根本智인 부처님의 法界로서 教體(불교 일대의 경체)를 삼는 까닭에 다만 재능으로 실상을 볼 수만 있다면 劫량을 논하지 않고 바로 얻는다.”<sup>26)</sup>

국사는 화엄론을 보고 길게 탄식하여 말하기를 “부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 教요, 祖師가 마음으로 전한 것은 禪이다. 부처님과 조사의 마음과 입이 반드시 어긋나지 않을 것인데 어찌 그 근원을 궁구하지 않고 각기 제가 익힌 곳에 안주하여 망령되이 論爭함으로써 헛되이 세월을 보내겠는가?”<sup>27)</sup>하여 禪과 教가 둘이 아님을 명백히 하였다.

여기에서 ‘佛祖心口 心不相違’라는 文句는 규봉선사의 ‘諸佛心口 心不相違와 같은 뜻이다.

규봉선사와 비슷한 시대적 사명을 자각한 보조국사는 禪 教融會思想에 있어서 그의 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리고 證觀의 화엄경 貞元疏에서도 禪教合一의 原則을 찾을 수 있었다.

“聖教로서 龜鑑을 삼고 心契로 가만히 부합한 까닭에 이르되 ‘以心傳心 不在文字’라 하니 진실로 문자 밖의 소식을 알기만 하면 다시 어찌 문자를 걱정할 것인가?”<sup>28)</sup>

라는 一文을 貞元疏에서 引證하고 評하기를 “이 글의 뜻을 살펴보면 華嚴一經의 닦고 증한 것을 의지하여 마음이 가만히 부합하면 禪門의 見性하는 뜻과 같다.”<sup>29)</sup>

그런데 우리는 절요 끝부분에서 국사가 단지 禪教相資的인 一元論만을 말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인용했던 도서의 [불교는 만대의 의빙이라...]한 부분을 인용한 후에

“佛敎가 자세히 보였다는 것은... 全收門에 親近하고... 祖訓이 그윽히 통한다는 것은 全揀門에 親近하고”<sup>30)</sup>

全揀門인 禪에서는 때에 즉하여 度脫(도탈)함을 主旨로 하기 때문에,

“비록 教를 이끌어 오기는 하지만 모두 宗을 밝힌 것(明宗)이 되고 순수한 之(純敎)는 아니다... 만일 큰 도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教義를

26) 절요 60

27) 화엄론 절요

28) 절요 35

29) 절요 36

30) 절요 105



놓아 버리고, 단지 제 마음 앞에 나타난 한 생각만 가지고 禪旨를 자세히 참구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니”<sup>31)</sup> 라고 했다.

그러므로 국사의 思想體系(사상체계)는 그 根本은 禪敎一元의 입장에 서서 敎를 融會하여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 함을 강조하면서 나중에는 ‘會敎明宗’ ‘會敎歸禪’ 최후에는 徑截門을 세워 捨敎入禪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 ② 根源으로서의 眞心

국사의 선교관에서 살펴보았듯이 要는 선교 다같이 自性佛을 찾는 데 있다. 국사가 결사 등의 실천과 여러 저술을 통해 밝히는 그의 和諍의 原理는 自心以外 그 어떤 것에서 佛을 구하는 것도 諍이요 대립이요 갈등이라는 것이다.

절요에서 국사는 당시 禪敎人들의 잘못된 行態들, 즉 自高心이나 退屈心, 癡禪이나 狂慧등을 제거하기 위해 ‘如實言敎에 의하라’고 말한다. 如實言敎(여실언교)란 바로 性宗, 특히 荷澤宗의 가르침이다.

즉, [마음이 본래 신령스럽고, 淸淨하며, 煩惱의 바탕이 空하다]는 자각에 기초한 수행이다. 하택신회와 규봉선사의 [空寂靈知]. [頓悟漸修] 思想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절요에서는 불성과 관련된 經論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法界緣起說을 말한 화엄경 系統이

18회, 一心을 말한 ‘起信論’이 3회, 如來藏을 말한 ‘능가경’이 3회 인용되고 있다.

다음과 같이 경론을 인용하면서 眞心을 강조한다.

“화엄경에 이르되 ‘一切法이 곧 마음의 제 성품인 줄 알라...’하고, 기신론에 이르되 ‘三界는 虛僞다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다...’하고, 능가경에 이르되 ‘寂滅이라고 하는 것은 一心을 말한 것이고 一心은 여래장을 말한 것이다.”<sup>32)</sup>

## Ⅲ. 맺음말

규봉종밀과 보조국사의 최대 관심사는 선교 일원론이었다.

규봉선사의 도서는 실은 선교和會論이며 선교一致論이었는데, 국사도 그 시대적 사명에서 그의 사상을 대부분 수용하여 그의 法集別行錄을 節要한 것이다.

결론삼아 두 분의 선교관을 간단히 비교해 보고 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자.

선의 불립문자는 개념의 틀에 갇힌 문자불교(敎相)를 부정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불립문자에 의한 痴禪, 暗證禪의 병폐가 생기고 이를 다스리기 위해 선과 교의 새로운 합일이 시도된다. 제3의 입장 中 첫번째가 규봉종밀류의 藉敎入宗(교를 의지하여 종지에 들어간다.)이고, 두

31) 절요106

32) 절요101



번제가 보조스님의 捨教入禪(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간다.)으로 자교입종론과 교외별전의 새로운 절충이라 볼 수 있다. 경절문을 세운 보조국사가 한국 선문에 열어놓은 선교관이다.

和는 實相을 앞으로서 가능하다.

두 스님은 세계의 實相을 인간의 참마음(眞心)인 佛性에서 찾는다. 그들이 지지한 하택의 '知'는 相對를 단절한 絕對知이며 바로 佛知이고 佛性이었다. 그리고 佛性을 본다는 것은 세계와 인간 실존의 궁극적 實相을 아는 것이면서 또한 인간의 진정한 삶의 길이 열림을 뜻한다. 수행자는 물론 어떠한 삶의 길에서도 자기 마음을 떠나 밖으로 구하는 행위는 마음의 戰爭일 뿐이다.

“一心으로 돌아가라. 자연히 다툼이 없어질 것이다.(歸一心 自然無諍)”<sup>33)</sup>

마음의 공적영지를 깨닫고 對가 끊긴 無心의 상태에서 慈悲願力을 세워 利他菩薩行을 할 때 無諍의 佛國土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들의 和思想이다.

규봉선사의 '知'는 구체적인 인간 생활 가운데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 철학적 고찰에 머물고 말았는데 비해 보조국사의 眞知는 현실 구현을 위한 구체적 결사(修禪社)의 형태를 동반함으로써 한국 불교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는 점에 두 분의 차이점이 있다 하겠다.

### —참고 문헌—

도서, 절요

鄭性本	禪思想史	불교사상사	1993
	佛教學報 第二輯	동국대학교	
		불교 문화연구소	1964
	第九輯	"	1972
	第十五輯	"	1978
	第十六輯	"	1979
法性	간화결의론과해	큰수레	1993
尹永海	규봉종밀의 불성사상 연구	서강대 대학원	1989
印鏡	보조지눌의 定慧觀 연구	동국대 禪學科	1994

33) 도서101 右



## 편집 후기

\* 해청당 편집을 두 해 하다보니 저 혼자 남았습니다. 강원에 처음 방부들였을 때 치문반이 아홉 명이었는데, 그새 다들 떠나고 저 혼자 사교를 마치게 됐습니다. 하늘을 덮는 복이 있어야 강원 이력을 마칠 수 있다는데, 제가 다행히 화염까지 보게 된다면 그건 오로지 해청당 편집을 맡았던 덕분일 겁니다. 강원외 소임좌차에 따라 이번 제 8호를 마지막으로 해청당 소임을 놓게 됩니다. 겨울이 세 번 지나도록 별 탈없이 소임을 마치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리고, 특히 태백산 토굴에 자취를 묻고 묵언정진 중에 저의 억지청탁에 못이겨 귀한 시를 보내주신 천호스님께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오늘밤부터 두다리 쪽 뻗고 잘 수 있을 것같은데, 제 가슴은 왠지 짠합니다. - 보원/사교

\* 지난 여름 처음 소임을 맡았을 때에는 그저 컴퓨터 만지는 게 좋아서 다른 스님이 가지고 있는 원고까지 빼앗아 타자를 치곤 했었는데, 이젠 싫증이 났는지 치문반 스님에게만 잔뜩 짐을 지워드린 것 같다. 후딱 해치울 원고를 몇 시간씩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올챙이 시절을 잊고 목에 힘이 들어가 다그치기만 했다. 도반이 준 누비를 며칠 되지도 않아서 난로불에 태워먹었는데, 그동안 치문반 스님들에게 못된 시에미 노릇한 과보라는 생각이 든다. - 도은/사집

☆ 그다지 큰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것같은데, 책은 이렇게 나와있다. 많은 대중스님들을 번거롭게 하였고, 뒤이어 교정과 편집을 책임지신 스님들의 노력의 결실이랄까! 이런 많은 정성들에 비한다면 내가 해낸 역할은 작은 부끄러움으로 다가온다. 하나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어야 하는지, 탄생의 의미를 새겨보게 한다. - 연각/치문

➤ 부족한 원고교정과 묵방욱 타자실력은 이번호에도 변함이 없었다. 해청당이 나온 뒤에 듣는 수고했다는 말은 늘 나를 부끄럽게 한다. 내가 맡은 원고 교정과 편집의 많은 부분을 도와준 편집위원스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 편집실 휴지통 자주 안비운다고 얼굴에 주름잡고 다니신 도은스님 저송합니다. - 념해/치문

✕ 추운 겨울이었지만 여느 철보다 많은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었다. 겨울 분위기는 설경이 제일 이라 눈발이 날리는 날이면 완전무장하고 눈속을 헤메고 다녔다. 눈덮인 송광사 전경을 찍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져 떨어질뻔도 했지만, 이리 저리 쫓아다닌 덕분에 좋은 사진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카메라 들이대면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해주신 도반스님들께 감사드린다. - 도웅/치문

㊦ 마지막 편집의 도장을 찍으며 몇날 며칠을 맥과 싸우면서 보냈더니 머리까지 멍하고 눈이 침침한 지경이 되었다. 지겹게 많은 교정 요구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마침내 해청당 8호의 편집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제는 편집작업으로 뒷전으로 미루었던 치문을 열나게 보아야겠다. - 범우 /치문



# 해청당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출판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지금, 해청당도 괜히 쓰레기만 보태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해청당에 실리는 송광사 스님들의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에서 잔잔한 감동을 느낀다는 분들이 뜻밖에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자답게 살고자 할뿐인데, 그런 모습에서 향그런 흠냄새를 맡고, 한 줄기 빛을 본다는 분들이 계시니, 부끄럽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더 열심히 수행하고 더 알차게 해청당을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독자 여러분께 죄송스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청당을 만드는 저희들이 공부만 하는 젊은 학인이다보니, 사실 책 사보기도 벅찬 형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들 아셨는지 해청당을 보내달라는 분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니, 모른 척하고 안 보내 드릴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지금까지 해청당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여러분이 정성껏 보내 주신 후원금 덕분이었지만, 앞으로도 힘닿는 대로 도와주셔서 해청당을 받아 보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보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해청당은 삶에 지친 여러분의 가슴에 한 줄기 환한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래 온라인으로 송금하시고, 편집실로 주소를 알려 주시면 해청당 평생독자로 모시겠습니다.

☎☎☎☎☎

우체국 온라인

501676-0016222-12

예금주 강정신

주소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해청당 편집실

541-930, ☎ (0661) 755-5300, 5302

## 후원해 주신 분들

성지스님, 현봉스님(광원암), 대성스님, 진옥스님(여수 석천사), 원행스님(마산 정인사), 일선스님, 원통스님, 현광스님(장흥 보림사), 송광사 종무소, 정지연, 정지훈, 김태훈, 강종호, 박유석, 김한중, 김복수, 오지영, 심명진, 신승희, 김대구, 김형기, 양성자, 위일남, 김기철, 윤희선, 최성희, 이경근, 김주영, 최감로, 이영란, 김태성, 김무진행, 최창호, 노동한, 박제현, 조영옥, 불일회보사, 이경록, 박유석, 임경륜, 박순자, 김실상화, 조양현, 김갑숙, 류인석, 김미자, 전희진, 박석희, 정각화, 신동은, 안경희, 변경숙, 이보월, 김일선화, 송광사 불일서점, 보광명, 이명희, 박선화, 윤한식, 허명옥, 적십자사, 도서출판 보림



2540년 송광사강원

# 신입 및 편입 방부 안내

2540학년도 송광사강원 신입 및 편입 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방부받는 반	치문반 .....	○○ 명
	사집반 .....	편입 ○ 명
	사교반 .....	편입 ○ 명
	대교반 .....	편입 ○ 명

자 격	치문반 : 사미계 수지자
	사집반 : 치 문 수료자
	사교반 : 사 집 수료자
	대교반 : 사 교 수료자

제 출 서 류	방부원서 .....	2부
	은사스님 추천서 .....	1부
	승적사본 .....	1부
	승려증사본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건강진단서 .....	1부
	수료증(편입생) .....	1부
	사진 (3 × 4) .....	3매
	방부금 .....	20만원

준 비 물 : 대가사(비구) · 만의가사(사미) · 장삼 · 바루

전 형 방 법 : 서류, 면접

방 부 기 간 : 2540년 3월 4일 ~ 5월 31일 (양력)

문 의 처 : (0661)755-5300, 755-5302

송 광 사 강 원





海清堂

東川邊 海清堂에 달을 베고 누웠으니  
 퇴枕님 물소리가 달빛을 부수운다.  
 두어라 銀河水 소리를 누어듣는 이 山房

\* 인암스님의 송광사 순례시조집 중에서

海清堂 강원이 들어있는 큰방으로 법문, 포살, 공양이 여기서 있고, 학인들의 간경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본지의 제호 해청당은 이 당우의 현판에서 따온 것이다.